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4)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승 권
 정 경 희
 송 수 진

목 차

I. 서 론	3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42
3. 표본수집 및 분석자료의 특성	344
II. 생활시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347
1. 주요 개념 및 이론	347
2. 주요 선행연구	350
III.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354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354
2.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54
3. 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63
4. 연령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72
5.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78
6.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83
7.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87
IV.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생활시간배분실태	391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391
2.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생활시간배분실태	391
3.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주요 항목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94
4. 직장인의 시간관리 및 여유시간 활용실태	408
V.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14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414
2.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14

3.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및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17
4. 유배우부인의 시간관리 및 여유시간 활용실태	427
VI.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431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431
2. 노인의 생활시간 구성	431
3.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435
4. 노인의 생활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454
VII.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시간배분실태	459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459
2.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시간배분실태	459
3. 각급 학교 학생의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62
VIII. 한국인의 주요 특성별 가족공유시간	469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469
2.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470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공유시간	471
4.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가족공유시간	484
5.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족공유시간	486
IX.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효율화 방안	489
X. 결 론	502
참고문헌	505
부 록	507

표 목차

〈표 1- 1〉	응답자의 특성별 분석사례수	344
〈표 3- 1〉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355
〈표 3- 2〉	한국인의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357
〈표 3- 3〉	한국인의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358
〈표 3- 4〉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359
〈표 3- 5〉	한국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	361
〈표 3- 6〉	한국인의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363
〈표 3- 7〉	성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364
〈표 3- 8〉	개인유지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366
〈표 3- 9〉	가정관리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367
〈표 3-10〉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368
〈표 3-11〉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370
〈표 3-12〉	이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371
〈표 3-13〉	연령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374
〈표 3-14〉	개인유지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량	375
〈표 3-15〉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량	377
〈표 3-16〉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379
〈표 3-17〉	개인유지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380
〈표 3-18〉	일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381
〈표 3-19〉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382
〈표 3-20〉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384
〈표 3-21〉	개인유지 항목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량	385
〈표 3-22〉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량	386
〈표 3-23〉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	388
〈표 3-24〉	개인유지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량	389

〈표 3-25〉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량	390
〈표 4- 1〉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392
〈표 4- 2〉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395
〈표 4- 3〉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397
〈표 4- 4〉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399
〈표 4- 5〉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01
〈표 4- 6〉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03
〈표 4- 7〉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06
〈표 4- 8〉	직장인의 시간부족 여부	408
〈표 4- 9〉	직장인의 시간부족 이유	409
〈표 4-10〉	직장인의 여유시간에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경험여부	410
〈표 4-11〉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	410
〈표 4-12〉	직장인의 피곤유무	411
〈표 4-13〉	직장인의 피곤한 이유	412
〈표 4-14〉	직장인의 정기적 휴무일	413
〈표 5- 1〉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요일 평균 생활시간 배분실태	415
〈표 5- 2〉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417
〈표 5- 3〉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419
〈표 5- 4〉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420
〈표 5- 5〉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422
〈표 5- 6〉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23
〈표 5- 7〉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25
〈표 5- 8〉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27
〈표 5- 9〉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따른 시간부족 여부	427
〈표 5-10〉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시간부족 이유	428

〈표 5-11〉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유시간에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경험여부	428
〈표 5-12〉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	429
〈표 5-13〉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의 피곤함 느끼는지 여부	430
〈표 5-14〉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의 피곤한 이유	430
〈표 5-15〉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의 정기적 휴무일	430
〈표 6- 1〉	노인특성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33
〈표 6- 2〉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34
〈표 6- 3〉	노인의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435
〈표 6- 4〉	노인특성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436
〈표 6- 5〉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	438
〈표 6- 6〉	노인의 요일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438
〈표 6- 7〉	노인특성별 수면/기상 시간대	440
〈표 6- 8〉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수면/기상 시간대	440
〈표 6- 9〉	노인의 요일별 수면/기상 시간대	441
〈표 6-10〉	노인특성별 경제활동 행위자 비율 및 요일 평균 시간량	442
〈표 6-11〉	노인의 직업별 경제활동 시간	443
〈표 6-12〉	노인의 요일별 경제활동 행위자 비율 및 요일 평균 시간량 ...	443
〈표 6-13〉	노인특성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445
〈표 6-14〉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	447
〈표 6-15〉	노인의 요일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447
〈표 6-16〉	노인특성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448
〈표 6-17〉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	449
〈표 6-18〉	노인의 요일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449
〈표 6-19〉	노인특성별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51
〈표 6-20〉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	453
〈표 6-21〉	노인의 요일별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54

〈표 6-22〉	노인특성별 시간부족 인식상태	455
〈표 6-23〉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시간부족 인식상태	456
〈표 6-24〉	노인특성별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한 경험여부와 이유	457
〈표 6-25〉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여부와 이유	458
〈표 7- 1〉	각급 학교 학생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활용실태	461
〈표 7- 2〉	학생의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463
〈표 7- 3〉	학생의 학습항목의 생활시간량	465
〈표 7- 4〉	학생의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468
〈표 8- 1〉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실태	471
〈표 8- 2〉	성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실태	472
〈표 8- 3〉	연령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474
〈표 8- 4〉	연령 및 요일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475
〈표 8- 5〉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477
〈표 8- 6〉	혼인상태 및 요일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478
〈표 8- 7〉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479
〈표 8- 8〉	교육수준 및 요일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481
〈표 8- 9〉	경제활동여부별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482
〈표 8-10〉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가족공유시간	483
〈표 8-11〉	직업유형별 직장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484
〈표 8-12〉	직업유형 및 요일별 직장인의 가족공유시간	485
〈표 8-13〉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487
〈표 8-14〉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가족공유시간	488

부 록

1. 성 및 요일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507
2. 연령 및 요일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507
3. 혼인상태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508
4. 교육수준 및 요일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량	509
5.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509
6. 직장인의 직업유형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510
7.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511
8. 학생의 요일별 생활시간활용실태	512
9.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513
10.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학습 항목의 생활시간량	51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으로 주어져 있으나, 개인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직업유형,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하여 달리 지각되고 배분된다. 시간의 비효율적 소비는 에너지의 낭비이므로, 개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겠다. 즉, 시간의 소비는 에너지의 소비이며, 시간의 '질'은 사용된 시간의 흐름 그 자체보다는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내용이 무엇이며,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문숙재, 1996).

최근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시간을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적 단위로서 시간의 가치활용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맥락을 심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 1주일 1,440시간이 그들이 원하는 양적 증가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양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간사용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양적 측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개인, 집단, 전체 사회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의의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의 배분실태를 파악하고, 시간 활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직업유형, 여성의 경제활동여부, 노인계층 등 주요 인구집단의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생활시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연구목표는 ‘시간’이라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1) 생활시간배분에 관한 제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2)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및 문제점
 - － 한국인의 요일 평균 및 요일별 생활시간 배분실태(시간량 및 시간대)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시간의 배분유형
 - 주요 영역별 생활시간의 배분유형
- 3) 직장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및 문제점
 - － 직업유형에 따른 직장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비교
 - 요일 및 직업유형별 직장인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실태
 - 직업유형에 따른 주요 영역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 4)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 여부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 －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요일 평균 및 요일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비교
 - 요일별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실태
 - 주요 영역별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실태

- 5)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및 문제점
 - 노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비교
 - 요일 및 주요 영역별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 6) 각급 학교 학생의 시간배분실태 및 문제점
 - 초, 중, 고, 대학생의 시간배분실태 비교
- 7) 가족공유시간의 실태 및 문제점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실태
 - 직장인, 경제활동여부별 유배우부인 등의 주요 집단의 가족공유시간 실태
- 8) 한국인의 제 특성별 생활시간배분의 효율화 방안
 -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의 효율화 방안
 - 한국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시간배분 효율화 방안

나. 연구방법

상기 연구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택하려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국·내외 문헌고찰
 - 생활시간배분에 관한 국내·외 문헌고찰
- 통계청의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분석
 - 사용 프로그램: SPSS 및 SA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및 행태 유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 직장인,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노인 등 특정집단의 특성별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함.
 - 가족공유시간실태를 개인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함.
- 정책협의회 개최
 - 분석방향 및 결과활용 협의
 - 연구결과 세미나 개최협의 등

3. 표본수집 및 분석자료의 특성

가. 표본규모 및 응답사례

조사를 위한 표본규모는 850개 조사구이며,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번호순으로 20가구를 선정하여 17,000가구가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46,000명이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응답자수는 42,973명이고, 시간일지수는 85,906사례이다(표 1-1 참조).

〈표 1-1〉 응답자의 특성별 분석사례수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전체	52,365	16,986	16,555	85,906
남	24,499	8,005	7,791	40,295
여	27,866	8,981	8,764	45,611
연령	52,365	16,986	16,555	85,906
10대(10~19세)	9,946	2,984	2,927	15,857
20대(20~29세)	8,734	2,864	2,828	14,426
30대(30~39세)	10,612	3,484	3,442	17,538
40대(40~49세)	8,948	2,865	2,808	14,621
50~64세	8,847	3,102	2,923	14,872
65세 이상	5,278	1,687	1,627	8,592
교육수준	52,365	16,986	16,555	85,906
무학	3,875	1,282	1,240	6,397
초등	9,298	3,008	2,933	15,239
중등	8,736	2,819	2,780	14,335
고등	19,305	6,271	6,175	31,751
대학 이상	11,151	3,606	3,427	18,184
혼인상태	52,365	16,986	16,555	85,906
미혼	17,047	5,347	5,251	27,645
유배우	30,578	10,066	9,762	50,406
사별	3,973	1,316	1,306	6,595
이혼	767	257	236	1,260

〈표 1-1〉 계속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경제활동여부	52,365	16,986	16,555	85,906
경제활동	28,683	9,383	9,175	47,241
비경제활동	23,682	7,603	7,380	38,665
직업유형	28,639	9,364	9,158	47,161
전문직	1,785	529	542	2,856
기술직 및 준전문직	2,192	675	635	3,502
사무직	3,311	1,122	1,038	5,471
서비스·판매직	6,907	2,402	2,308	11,617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직	5,003	1,620	1,588	8,211
기능직	6,380	2,031	2,066	10,477
단순노무직	3,061	985	981	5,027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15,647	5,140	5,001	25,788
경제활동	8,473	2,698	2,650	13,821
비경제활동	7,174	2,442	2,351	11,967

응답사례의 특성을 성별, 요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40,295사례, 여자 45,611사례이었고, 요일별로는 평일 52,365사례(남자 24,499사례, 여자 27,866사례), 토요일 16,986사례(남자 8,005사례, 여자 8,981사례)이었으며, 일요일 16,555사례(남자 7,791사례, 여자 8,764사례) 등이었다. 그리고 사례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여부, 직장인의 직업,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사례수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7,538사례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대 15,857사례이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학력수준이 31,751사례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이 18,184사례이다.

혼인상태별 사례수는 유배우자가 50,406사례, 미혼 27,645사례이며, 이혼 및 사별의 경우는 각각 1,260사례, 6,595사례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사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47,241사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38,665사례보다 많으며,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구분은 경제활동 13,821사례, 비경제활동 11,967사례이다. 그리고 직업별 사례수는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많은 11,617사례, 기능직 10,477사례의 순으로 많으며, 전문직은 2,856사례로 가장 적다.

나. 조사절차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9월 2일~14일까지 13일간 실시되었으며, 각 조사구 내 대상가구를 4가구씩 5개조로 분할하여, 9월 3일~12일까지 10일 중 2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시간일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¹⁾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자가 대상가구를 직접방문하여 가구원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는 면접타계식과 조사대상가구에 조사표를 배포하여 대상가구원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가구 및 개인 관련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후자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시간일지(time-diary)의 작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조사자료 특성

전체 행동은 대·중·소 분류로 나뉘어진다. 대분류는 전체 9개 유형으로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등이다. 이를 중심으로 조사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유지」의 중분류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등이다. 「일」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 관련 행동 등이다. 「학습」에는 학생의 학교학습, 학생의 학교에 학습, 학습관련 물품구입 등이 포함되며,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등이다.

「가족 보살피기」에는 미취학 아이, 초·중·고등학생,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그 외 가족 보살피기를 말하며, 「참여 및 봉사활동」은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활동 등이다. 「이동」은 앞서 살펴본 제반 행동을 위한 이동과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기타」에는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 그 외 분류하기 곤란한 행동유형을 포함한다.

1) 1조는 9월 3일과 4일, 2조는 9월 5일과 6일, 3조는 9월 7일과 8일, 4조는 9월 9일과 10일, 그리고 5조는 9월 11일과 12일 조사가 실시되었음.

II. 생활시간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1. 주요 개념 및 이론

가. 생활시간관련 주요 개념

(1) 시간의 개념

심리적 시간개념에 의하면 개인은 각자의 주관적인 시간개념에 의하여 현실을 지각하게 되고, 자신의 시간적 활동배열에 영향을 주며, 목표설정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관적 시간지각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은 시간을 인적 자원으로 분류한다고 한다(김외숙 외, 2000). 문화적 시간개념은 문화에 따라 시간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시간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²⁾

미얼루(Meerloo)는 개인의 주관적 시간지각에는 역사적 시간, 생리적 시간, 시간감각, 속도, 시간의 연속성 등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개인마다 시간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은 과거의 사건들을 시간 속에서 바르게 순서를 정하는 시간개념이며, 이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생리적 시간(biological time)은 개인의 현실적 시간개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연과 신체의 변화에 의하여 느끼는 시간개념이라 하겠다. 즉, 낮과 밤의 변화, 달의 변화, 계절의 변화 등 자연현상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인간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생물시계'의 개념 등이다.

셋째, 시간감각(time sense)은 신체적 및 상황적 변화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주관적 시간경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계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시간의 의미와 그 개념을 달리한다.

2)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은 시계의 시간과 관계없이 생리적인 시간개념에 따라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잠을 자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막연한 시간을 많이 사용하나, 선진국에서는 인위적인 특정 시간, 즉, 시계상의 시간개념을 사용함.

넷째, 속도에 의한 시간개념으로 행동의 속도(tempo or pace)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³⁾

다섯째,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은 과거, 현재, 미래의 활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개인은 시간의 흐름에 조화되고 적응해 간다는 것이다. 소위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개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Rice & Tucker, 1986 재인용).

(2) 생활시간의 개념

개인이 매 시간, 일, 주, 월, 연, 그리고 생애 등의 일정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는 생활시간(time use), 시간예산(time budget), 시간배분(time allocation), 시간사용(time use) 등 다양하다. 이들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국가와 학문영역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다.⁴⁾ 생활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영정광영(1981)은 “생명의 유지 계승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영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서병숙·임정빈(1983)은 “1일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라 하였다. 김외숙 외(2000)는 ‘생활시간’이라는 용어의 ‘생활’이 ‘노동’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⁵⁾ 생활시간 대신 시간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간사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1일 24시간뿐만 아니라 생애동안의 시간사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3) 홀(E. T. Hall)은 그의 저서 The Hidden Dimension에서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계획하는 사람인 단선적(monochronic) 성격의 개인과 동시에 몇 가지 활동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 복합적(polychronic) 성격의 개인으로 분류하였음. 일반적으로 일의 속도가 느린 사람은 치밀하고 빠른 사람은 치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름. 즉, 일의 속도가 빠른 사람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며,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함(김외숙 외, 2000 재인용).

4) 예를 들면,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통계에서는 시간예산, 경제학에서는 시간배분, 사회학에서는 시간사용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학에서는 시간사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시간배분과 시간예산을 사용하기도 함. 일본에서는 생활시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NHK가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용어가 정착되었다고 하겠음(김외숙 외, 2000).

5) 가와키다 미모루(川北)는 前工業化 社會에서는 勞動 및 餘暇가 결합되어 있었지만, 工業化 社會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인 근로자의 시간은 자본가에게 판매한 ‘勞動時間’과 판매 되지 않은 ‘非勞動時間’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生活時間’, ‘餘暇’라고 하였음.

나. 생활시간관련 주요 이론

(1) 베커(Becker)의 시간배분이론

베커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시간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시간차원을 종래의 재화자원에 추가시켜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하고, 가정을 생산단위로 간주하여 시장재화와 가족구성원의 시간이 서로 결합되어 음식물, 깨끗한 옷, 사회화된 어린이 등의 가정생산품(z-commodities)이 생산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분배는 재화와 시간의 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간의 가격 또는 비용은 기회비용(opportunity) 개념을 도입하여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또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임금률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2) 파킨슨(Parkinson)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인간은 특정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작업을 수행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종료시간이 없는 작업을 할 경우 마지막까지 시간을 채우게 될 것이므로 결국 작업을 위한 마감시간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즉,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계이론

체계이론은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체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이론은 투입, 과정, 산출 등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체계적 개념 하에서 시간관리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동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간관리는 전체적인 시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체계로서의 각 시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된다(문숙재, 1996).

(4) 종합적 시간사용 모델

종합적 시간사용 모델(consolidated time use model)은 Feldman & Hornik(1981)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시간, 소비자, 의미 등 세 영역으로 나누고 환경변인을 추가하였다. 동 모델은 소비자가 여러 자원과 환경요소를 감안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이 결과가 소비자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주요 선행연구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경제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왔다.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동향은 시간사용구조, 가사노동시간, 가사작업간소화, 여가, 그리고 시간관리 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김외숙 외, 2000). 이들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시간사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간사용구조와 관련하여 최초의 연구는 강신주(1968)에 의하여 이루어진 「생활시간 관리의 실태조사」이다. 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초·중·등 학생과 대학생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관리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는 시간사용에 관한 최초의 연구이면서, 전체 가족원 5,5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가정학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5회에 걸친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방송정책 및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시계열적인 조사자료의 반복으로 사회적 인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생

활시간배분에 있어 개별 활동을 적정 생활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응답자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학력 등의 특성별 자료를 얻지 못하여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녔다.

농촌진흥청은 1979년과 1983년, 1993년에 농가주부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고 농가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구조와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중심으로 농업노동시간과, 생리적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다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시간 부족은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사회·문화적 시간은 텔레비전시청에 60% 이상을 소비하고 농가 주부의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경영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정학분야에서 생활시간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부의 가사노동의 합리화 및 적정화를 꾀하고 에너지 대사량 및 피로연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가족원의 생활시간의 교차 및 순환, 가족단위의 여러 정책 및 사회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및 장·단기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한 기초자료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

생활시간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는 최초로 1924년 구소련에서 실시된 노동자의 시간연구이다. 이는 업별 노동시간실태, 적정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규칙과 표준작성 등 노동에 초점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가사시간, 자유시간, 이동시간 등도 아울러 조사되었다.

미국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여가에 중점을 둔 시간연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방송회사에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실용적 관심에서 생활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영국에서는 1939년에 BBC 방송국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NHK 방송국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시간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헝가리의 살라이(Szalai)는 1964~1966년 기간 중 유럽 12개국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1972년에 시간사용(The Use of Tim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60년대는 생활시간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하겠는데, 이는 경제적 풍요는 달성하였지만 실제 개인의 생활은 여유가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간의 시간사용 비교연구를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와 조사를 위한 유럽공동센터(The European Coordination Center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in Social Science)'와 국제시간사용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가 있다.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으며, 초기연구는 농촌여성의 노동분석적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1929년 Wilson이 오레곤주의 농촌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에 관해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목적은 농촌여성의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농촌가정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1977~1979년에 실시한 NE113 프로젝트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California, Connecticut, Louisiana,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Texas, Utah, Virginia, Wisconsin 등 11개 주에서 실시되었으며 두 자녀를 둔 양부모 가족 2,1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보다 다양화, 세분화되었는데, 가족원을 남편과 주부로, 주부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시간제 취업주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편부모 및 양부모, 인종별, 직업지위별, 국가별로 확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자녀들의 생활시간, 가사노동(식사준비 관련이 대부분임), 여가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족생활에 투입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생활시간에 관련된 연구의 주요 주제는 취업주부의 생활시간구조, 가사노동시간, 시간의 가치측정, 자녀의 생활시간 등이며, 이 외에도 관심을 끄는 연구주제는 효율적 시간관리자,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 비교연구 등이 있다.

일본에서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NHK에서 5년마다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1일 생활행동을 파악하여 방송프로 제작과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의 생활시간에 관련된 주요 연구는 가정학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라 취업주부의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관한 것이다. 가사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맞벌이 가정의 생활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가족 돌보기, 시장보기,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의식주생활관리, 육아 및 교육활동 등의 생활양식변화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북촌군씨, 1965; 횡산시츠씨, 1973; 상전, 1975; 대죽, 1980. 문숙재, 199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시간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원간의 시간분배 및 가족구조가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반 사회정책이 시간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한국인 전체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파악하고, 이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활시간배분실태를 설명한다. 이러한 특성에는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등이 활용된다. 한국인 전체와 성별 한국인에 대한 생활배분실태는 전체 대분류와 중분류를 설명하고, 그 외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는 대분류 중 시간배분비율이 높고 의미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설명한다.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수는 총 85,906사례이며, 남자 40,295사례, 여자 45,611사례이다. 요일별로는 평일 52,365사례, 토요일 16,986사례, 일요일 16,555사례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평일은 남자 24,499사례, 여자 27,866사례, 토요일은 남자 8,005사례, 여자 8,981사례, 그리고 일요일은 남자 7,791사례, 여자 8,764사례이다.

2.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가.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10세 이상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는 대분류에 기초한 각 행동의 생활시간량에 의하여 설명된다. 1주일 단위의 전체 시간사용을 1일 평균으로 환산⁶⁾하여 살펴보면, 개인유지는 10시간 18분(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는 교제 및 여가활동 4시간 49분(20.0%), 일 3시간 43분(15.5%) 등이었다. 이외에도 1시간 이상의 시간배분을 한 항목은 가정관리 1시간 30분(6.3%), 이동 1시간 35분(6.6%), 학습 1시간 28분(6.1%) 등이었으며, 1시간 미만의 시간배분

6) 평균은 $((\text{평일} \times 5) + (\text{토요일} + \text{일요일})) \div 7$ 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항목으로는 가족 보살피기 25분, 참여 및 봉사활동 4분, 기타 8분 등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와 같은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은 요일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인유지,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많았다. 즉,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10시간 9분, 10시간 15분이었으나, 일요일에는 11시간 5분으로 요일에 따라 56분의 차이를 보였고,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은 평일 1시간 28분에서 토요일에는 1시간 34분으로, 일요일에는 1시간 39분으로 11분의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은 평일 4시간 25분에서 토요일 5시간 13분, 일요일 6시간 28분으로 무려 2시간 3분이나 증가하였다.

〈표 3-1〉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개인유지	10:09(42.3)	10:15(42.7)	11:05(46.2)	10:18(42.9)
일	4:02(16.8)	3:35(14.9)	2:13(9.2)	3:43(15.5)
학습	1:45(7.3)	1:07(4.7)	0:28(1.9)	1:28(6.1)
가정관리	1:28(6.1)	1:34(6.5)	1:39(6.9)	1:30(6.3)
가족 보살피기	0:25(1.7)	0:24(1.7)	0:23(1.6)	0:25(1.7)
참여 및 봉사활동	0:04(0.3)	0:03(0.2)	0:03(0.2)	0:04(0.3)
교제 및 여가활동	4:25(18.4)	5:13(21.7)	6:28(26.9)	4:49(20.0)
이동	1:44(6.5)	1:41(7.0)	1:33(6.5)	1:35(6.6)
기타	0:08(0.6)	0:08(0.6)	0:08(0.6)	0:08(0.6)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 학습,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 평일에 더 많았는데, 이는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 및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동을 위한 시간은 평일 1시간 44분, 토요일 1시간 41분, 그리고 일요일 1시간 33분으로 11분의 차이에 불과하여 주말 및 일요일에도 어떤 행위를 위하여 이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배분은 요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 보살피기는 평일 25분, 토요일 24분, 일요일 23분으로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 적은 시간량을 배분하고 있어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요일별 시간배분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토요일 및 일요일의 여유시간을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에 투입하기보다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부분 할애하고, 일부는 개인유지와 가정관리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국인의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실태

(1) 한국인의 개인유지 항목 생활시간량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개인유지를 위한 생활시간배분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개인유지의 세부항목에 따른 생활시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유지활동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외모관리 등의 개인유지를 위한 많은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면시간은 7시간 47분, 식사 및 간식은 1시간 33분이나 되어 한국인은 어느 다른 사회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낮잠·졸음 등도 다소 있지만 대부분 하루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수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활동을 위한 식사 및 간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이는 한국인의 개인유지를 위한 전체시간 중 수면과 식사를 위하여 90.6%나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의 개인위생(용변, 세면, 화장지우기, 면도, 손·발톱 깎기, 목욕, 사우나 등), 옷갈아 입기 및 외모관리(화장, 마사지, 드라이 및 머리손질, 옷갈아 입기 등),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이발소, 미장원, 피부 마사지, 다이어트 등) 등의 개인관리를 위하여 51분을 투입하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자가치료, 의료서비스 받기, 아파서 쉬는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불과 7분만을 할애하고 있었다.

〈표 3-2〉 한국인의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수면 ¹⁾	7:39	7:44	8:31	7:47
식사 및 간식 ²⁾	1:32	1:33	1:37	1:33
개인관리 ³⁾	0:51	0:51	0:51	0:51
건강관리 ⁴⁾	0:07	0:07	0:06	0:07
기타 개인유지 ⁵⁾	0:00	0:00	0:00	0:00
계	10:09	10:15	11:05	10:18

- 주: 1) 수면은 잠을 자는 행동이며 수면과 낮잠·졸음을 포함함. 수면은 하루일과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다음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는 잠을 말하며, 비교적 긴 시간동안 계속적으로 자는 잠이 이에 해당됨. 낮잠·졸음은 낮에 자는 잠으로 짧은 시간동안 조는 행동을 말함. 이는 낮 시간에 잔 잠이라도, 밤에 잠을 잔 시간이 나오지 않았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낮에 잠을 잔 경우는 수면으로 분류되었음. 예를 들어, 야간근무자가 아침에 근무를 끝내고 낮에 자는 경우는 수면에 해당됨.
- 2) 식사 및 간식은 음식이나 음료를 식사나 간식으로 먹는 행동이며 가족과의 식사, 그 외의 식사, 간식 과 음료 등 세 가지 소분류 항목을 포함함.
- 3) 개인관리는 개인위생, 외모관리 및 화장실 가기 등의 행동이며, 개인위생(용변, 세면, 화장지우기, 면도, 손·발톱 깎기, 목욕, 사우나 등), 옷 갈아입기 및 외모관리(화장, 맛사지, 드라이 및 머리손질, 옷갈아 입기 등), 이미용관련 서비스 받기(이발소, 미장원에서 서비스 받기, 피부 맛사지 받기, 다이어트 관련서비스 받기) 등 세 가지 소분류 항목을 포함함.
- 4) 건강관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치료 관련 행동으로 자가치료, 의료서비스 받기, 아파서 쉬 등의 세 가지 소분류 항목을 포함함.
- 5) 기타 개인유지는 1)~4)의 개인유지 활동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행동을 말함.

개인유지 항목을 요일별로 살펴보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음 한 주의 일상생활을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먼저 수면시간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7시간 39분, 7시간 44분으로 유사하였으며, 일요일은 8시간 31분으로 현저하게 많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직까지 토요일에 휴무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의 수면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일요일에는 늦게 일어나고 월요일의 근무를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여유 있게 수면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일요일인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이 요일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도 있으나 개인관리의 경우는 요일에 구분 없이 가능하고, 건강관리는 일요일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2) 한국인의 가정관리 항목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가정관리 시간사용은 요일 평균 1시간 39분이 소요되며, 평일에는 1시간 28분, 토요일은 1시간 34분, 일요일은 1시간 39분을 투입하여 일, 학습 등을 많이 하는 평일보다는 주말인 토요일과 공휴일에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을 약간 더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관리 항목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음식준비 및 정리 항목으로 요일 평균 45분이었으며, 이어서 청소 및 정리 19분, 의류관리 12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8분, 집관리 4분, 가정경영 2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가정관리의 항목별 배분시간량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가정경영을 제외하고는 평일보다 토요일이,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미미하나마 더 많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일 또는 토요일이 일, 학습 등에 얹매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상적인 음식 만들거나 상차림 외에 요리재료를 다듬거나 구입해온 식품을 정리하는 등 음식 준비하는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3〉 한국인의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가정관리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음식준비 및 정리 ¹⁾	0:44	0:46	0:48	0:45
의류관리 ²⁾	0:12	0:13	0:13	0:12
청소 및 정리 ³⁾	0:19	0:21	0:22	0:19
집관리 ⁴⁾	0:04	0:04	0:05	0:04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⁵⁾	0:07	0:09	0:10	0:08
가정경영 ⁶⁾	0:02	0:01	0:01	0:02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1:28	1:34	1:39	1:30

주: 1) 음식준비 및 정리는 식사준비, 설거지 및 식후 정리,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등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식사준비는 요리와 식탁 차리기 행동으로 밥짓기, 반찬 등 일상적인 음식 만들기 및 상차리기 등이 포함됨. 예를 들면, 요리재료 다듬기, 시장와 온 식품정리, 등교하는 아이나 그 외 가족에게 밥상 차려주기, 아기 분유타기, 도시락 싸기도 이 항목으로 분류됨. 설거지 및 식후 정리에는 식탁 치우기, 설거지, 젓병 삶기, 그릇정리, 주방정돈, 냉장고 정리 등 식사 후 정리 관련 행동이 포함됨.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에는 비일상적으로 가끔씩 하는 음식 만들기 및 준비하기로 예를 들면, 김치, 장아찌 등 밑반찬 만들기, 잔치음식 싸주기, 자기 집의 집들이, 가족생일 등 잔치를 위한 요리, 간식(커피, 과일, 케익 굽기 등)만들기 등이 있음.

- 2) 의류관리에는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옷 정리, 다림질·바느질·의류손질, 의류수선·세탁서비스 받기, 재봉·뜨개질 등 다섯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었음.
- 3) 청소 및 정리항목에는 방·물품정리(방이나 욕실, 거실 등 집안 물건 정리, 이불 깔기, 장난감·책상정리), 집안 청소(쓸기, 닦기), 그 외 청소 및 정리(집 안팎 청소, 이삿짐 싸기, 여행 짐싸기·짐정리, 가정용품 닦기 등) 등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됨.
- 4) 집관리는 가재도구·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세차·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그 외 집관리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에는 시장보기(식료품, 일용품), 쇼핑하기(의복, 신발, 장식용품 등),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등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음.
- 6) 가정경영은 가계부 정리, 가정계획(저축, 가족회의),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3)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생활시간량

참여 및 봉사활동은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항목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량인 4분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개별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친구가게 봐주기, 이웃집 농사일 또는 잔치음식 준비 돕기 등의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는 2분, 민방위·예비군 훈련, 환경운동 등 집회·시위참여나 투표참여, 각종 선거유세 관람, 정치적 집회 등 정부기관 행사 참여, 정부나 민간의 각종 설문조사 등의 사회참여활동은 1분, 국가 및 지역행사,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 복구관련 등의 자원봉사 1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상회, 쓰레기 분리수거당번, 마을 청년회·부녀회 활동, 지역의 대책회의, 방범활동, 마을청소 등 지역공동체 활동은 0.5% 미만으로 매우 적어 나타나지 않았다(표 3-4 참조).

〈표 3-4〉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 ¹⁾	0:02	0:02	0:02	0:02
지역 공동체 활동 ²⁾	0:00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³⁾	0:01	0:01	0:00	0:01
자원봉사 ⁴⁾	0:01	0:00	0:01	0:01
계	0:04	0:03	0:03	0:04

주: 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의 예를 들면, 친구가게 봐주기, 이웃집 농사일 또는 잔치음식 준비 돕기 등임.

2) 지역공동체 활동은 반상회, 쓰레기 분리수거당번, 마을 청년회·부녀회 활동, 지역의 대책회의, 방범활동, 마을청소 등이 포함됨.

- 3) 사회참여 활동에는 민방위·예비군 훈련, 환경운동 등 집회·시위참여나 투표참여, 각종 선거유세 관람, 정치적 집회 등 정부기관 행사 참여(상반기, 식목일 등 기념행사 참석 등), 정부나 민간의 각종 설문조사에 응하는 행동이 포함됨.
- 4) 자원봉사에는 국가 및 지역행사(스포츠, 문화행사에서 안내, 통역, 질서지 키기 등을 돕는 활동), 자녀교육(일일급식, 일일교사, 등·하교 교통지도),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을 통해 병원 및 개인가정에서 하는 봉사활동, 개인적 도움, 야학교사 등 봉사활동),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 복구관련, 기타 자원봉사 등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됨.

이와 같은 결과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가에 비추어 보아 시간배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와 연계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인 '지역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에서 수면 등 개인유지 다음으로 큰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요일 평균 4시간 49분이나 된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TAPE 등 음악듣기, 컴퓨터 정보이용 등 대중매체 이용은 가장 많은 2시간 23분이었으며, 가족·친척, 친구 등과의 만남, 대화, 전화통화 등 교제활동은 53분, 독서, 컴퓨터 게임, 놀이, 취미활동, 유흥, 흡연, 휴식 등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는 52분을 배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19분), 종교활동(10분), 일반인의 학습(8분),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2분) 등의 순이었다(표 3-5 참조).

교제 및 여가활동의 각 항목 중 일반인의 학습항목 외의 다른 항목들은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특히 대중매체 이용은 평일에는 2시간 10분이었으나 토요일에는 2시간 36분으로, 일요일에는 3시간 16분으로 현저한 시간량의 증가를 보였다. 교제활동도 평일의 49분에서 토요일 57분, 일요일 1시간 6분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평일 49분에서 토요일 56분, 일요일 1시간 2분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종교활동은 평일과 토요일에 각각 7분, 9분의 시간배분을 하였으나 일요일

일에는 26분으로 연장되었으며,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항목도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5〉 한국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교제활동 ¹⁾	0:49	0:57	1:06	0:53
대중매체 이용 ²⁾	2:10	2:36	3:16	2:23
(TV시청)	(1:52)	(2:17)	(2:56)	(2:05)
일반인의 학습 ³⁾	0:09	0:07	0:06	0:08
종교활동 ⁴⁾	0:07	0:09	0:26	0:10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⁵⁾	0:01	0:03	0:03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⁶⁾	0:17	0:21	0:25	0:19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⁷⁾	0:49	0:56	1:02	0:52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3	0:03	0:02
기타 여가관련활동 ⁸⁾	0:01	0:01	0:01	0:01
계	4:25	5:13	6:28	4:49

- 주 : 1) 교제활동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등('다투기, 꾸중듣기'와 같은 부정적 교제 포함)을 말함. 교제관련통화(사람들과 교제를 목적으로 전화통화 한 경우임), 가족·친척과의 교제(가족·친척 등과 대화, 모임, 방문하는 등의 교제활동),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친구나 동료 등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 모임을 가짐), 성묘·별초, 기타 교제관련 행동 등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됨.
- 2) 대중매체 이용은 대중매체를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로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TAPE 등 음악 듣기, 컴퓨터 정보이용 등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3) 일반인의 학습은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이 여가시간에 자기개발을 위해 하는 학습으로 외국어(교양, 시험대비목적), 컴퓨터(자격증 취득, 교양목적), 자격증·취업(전자, 공업, 디자인, 운전, 세무사, 회계사, 시험접수 및 자격증 수령 등)관련, 취미(미술, 음악, 체육 등)관련 강습, 기타 일반인의 학습 등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됨.
- 4) 종교활동에는 개인적 종교활동(기도, 경전 읽기, 관련tape 듣기 등), 종교집회·모임참가(교회, 성당, 절 등의 집회참가, 구역예배 보기 등), 그 외 종교관련 행동 등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됨.
- 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에는 영화(극장/비디오방), 연극(극장)·콘서트, 전시회·박물관, 스포츠 경기관람(각종 경기 관람), 기타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동물원, 서커스 등 구경)관련 행동 등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됨.
- 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는 걷기(조깅, 걷기, 산책, 자전거, 강아지 산책시키기 등) 및 산책, 등산·하이킹,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맨손체조,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그 외 스포츠(구기 등),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그 외 집밖의 레저활동(낚시, 사냥, 캠핑, 놀이기구 타기, 급류 타기, 암벽등반 등) 등 여섯 가지 항목이 포함됨.
- 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는 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그 외 취미활동(만들기, 모으기, 연주하기 등), 유흥(술, 춤, 노래방),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등 일곱 가지 활동이 포함됨.
- 8) 기타 여가 관련 활동은 개인적 일기 쓰거나 사진첩 정리 및 보기 등을 말함.

이들 항목과는 대조적으로 일반인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취업 관련, 취미 관련 강습 등

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 9분에서 토요일 7분, 일요일 6분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과 토요일에 이를 위한 시간배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미하나마 감소시키고 있어 자기발전을 위해 매우 인색함을 보여주었다.

(5) 한국인의 이동 항목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1시간 35분이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3-6> 과 같다.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37분,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27분으로 두 영역을 위한 이동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이동을 위한 시간은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14분), 가정관리 관련이동(7분), 개인유지관련 이동(5분),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3분), 이동을 위한 기다리기(1분),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1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요일에 따른 이동의 시간량을 살펴보면,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은 평일 40분, 토요일 37분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일요일은 19분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도 마찬가지로 평일 16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3분으로 요일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장과 학교가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일요일에는 대부분 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 21분에서 토요일 34분, 일요일 54분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참여 및 봉사 관련 활동이 극히 미흡한 관계로 이를 위한 이동시간량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면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과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국인의 생활방식(life style)이 변화하고 토요 휴무제도의 정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의 분석결과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표 3-6〉 한국인의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이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¹⁾	0:01	0:01	0:01	0:01
개인유지 관련 이동 ²⁾	0:05	0:05	0:05	0:05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 ³⁾	0:40	0:37	0:19	0:37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⁴⁾	0:16	0:12	0:03	0:14
가정관리 관련이동 ⁵⁾	0:07	0:08	0:08	0:07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⁶⁾	0:03	0:03	0:03	0:03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	0:01	0:01	0:00	0:0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이동 ⁷⁾	0:21	0:34	0:54	0:27
계	1:34	1:41	1:33	1:35

주: 1) 차 기다리기, 표 사기, 표 사기 위해 줄서기 등

2) 식사하러 가기, 병원, 미용실, 목욕탕 가기 등이 포함됨.

3) 출·퇴근 이동에는 일을 하러 가거나 일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동, 일터 직전의 장소에서 일터로의 이동, 일터에서 나와서 첫 번째 목적지까지의 이동 등이 포함되며, 그 외 일 관련이동에는 출·퇴근을 제외한 일과 관련된 이동으로 출장을 위한 이동, 판매원, 트럭 행상인, 부동산업자 등이 본연의 일을 위한 이동, 자영자가 재료 및 판매용품을 사러 가는 이동 등이 포함됨. 다만, 운수업 종사자, 배달원 등과 같이 일 자체가 이동인 사람이 한 이동은 제외되며, 이는 일 항목으로 분류됨.

4) 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장소에 학습을 목적으로 한 이동임.

5) 가사 관련 이동, 시장 보러 가거나 쇼핑하러 가기 등

6) 자녀의 등·하교 동행, 병원 데리고 가기 등

7) 그 외 여가 관련이동에는 교제를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과 관련된 이동이며,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관람, 구경 등을 하기 위한 이동이 포함됨. 단, 구경하면서 한 이동은 구경하기로 포함됨.

3. 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본 절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수는 총 85,906사례이었으며, 성별 시간일지수는 남자 40,295 사례, 여자 45,611사례이다. 요일별로는 평일의 경우 남자 24,499사례, 여자 27,866사례, 토요일은 남자 8,005사례, 여자 8,981사례, 그리고 일요일은 남자 7,791사례, 여자 8,764사례가 분석대상이었다.

가. 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한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대분류에 기초한 각 행동의 생활시간량을 요약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는 행동유형은 일,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등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는 행

동유형은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등이었으며, 개인유지,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남녀간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거나 차이가 없었다.

행동유형 중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량을 배분하고 있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일은 1시간 52분, 교제 및 여가활동은 29분, 이동은 22분, 학습은 12분의 차이로 남자가 많은 생활시간을 배분하고 있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시간량을 배분을 하고 있는 항목의 남녀간 시간량 차이는 가정관리 2시간 20분, 가족 보살피기 3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을 위한 시간량의 성별차이는 여성취업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여성취업자 중 임시직, 일용직 등의 취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등 가족생활을 위한 시간량 배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는 미취업 미혼여성과 전업주부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한국 남성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일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는 성 역할 분리의 사고방식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셋째, 일 항목에 투입되는 시간이 여성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여성의 시간량은 매우 적어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측면, 예를 들면, 그런 활동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활동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3-7〉 성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평균	
	남자	여자
개인유지	10:18(42.9)	10:18(42.9)
일	4:39(19.4)	2:47(11.6)
학습	1:34(6.5)	1:22(5.7)
가정관리	0:20(1.4)	2:40(11.1)
가족 보살피기	0:08(0.5)	0:42(2.9)
참여 및 봉사활동	0:04(0.3)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5:04(21.1)	4:35(19.2)
이동	1:46(7.4)	1:24(5.8)
기타	0:07(0.5)	0:09(0.6)
계	24:00(100.0)	24:00(100.0)

성별 생활시간배분을 요일에 따라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한 것을 들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시간은 남자가 토요일 4시간 31분, 일요일 2시간 40분이었고, 여자는 토요일 2시간 39분, 일요일 1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상당한 시간을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술(제4장)하는 직장인의 직업유형 및 성별 생활시간배분실태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교제 및 여가활동에 배분하는 시간량이 평일에는 남자 4시간 34분, 여자 4시간 16분으로 18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나 토요일에는 남자 5시간 30분, 여자 4시간 55분으로 35분의 차이가 났으며, 일요일에는 남자 7시간 8분, 여자 5시간 48분으로 1시간 20분의 현저한 격차를 보여 우리나라 남자들이 주말이나 일요일의 일에서 자유로워진 시간을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보살피는 등 가족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기보다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투입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부표 1 참조)

나. 주요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배분실태⁷⁾

(1) 개인유지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개인유지활동의 항목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수면을 위한 시간량은 남자 7시간 51분, 여자 7시간 44분으로 남자가 7분 많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일별로 구분하여 보면 시간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요일에 관계없이 남자가 여자보다 2~8분 수면을 많이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한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의 수면시간은 남녀 모두 평일 또는 토요일보다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7) 본 조사는 가구 또는 가족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주요 항목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의 분석에서는 가족 보살피기 항목은 제외함. 이는 해당 가족원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되어야 하나 가구원과 떨어져 사는 부인, 자녀, 노부모 등의 비동거 가족원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타 가구원이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을 보살피는 경우의 실태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등 많은 이유로 인하여 본 조사자료의 가구 및 가족단위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그 가치가 매우 낮음.

개인유지 항목 중 수면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보이고 있는 식사 및 간식의 성별 시간량은 남자 1시간 34분, 여자 1시간 32분으로 비슷하였으며, 요일별로는 남녀모두 1~6분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었다. 개인유지와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은 남자보다 여자가 각각 5분, 4분 많았다. 따라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의 개인관리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도 개인관리를 위하여 여성과 유사한 수준에서의 시간투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개인유지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남자				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수면	7:43	7:45	8:35	7:51	7:36	7:43	8:27	7:44
식사 및 간식	1:33	1:34	1:38	1:34	1:31	1:33	1:37	1:32
개인관리	0:48	0:49	0:49	0:48	0:53	0:53	0:53	0:53
건강관리	0:06	0:05	0:04	0:05	0:09	0:08	0:07	0:09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10:10	10:13	11:04	10:18	10:09	10:17	11:04	10:18

(2) 가정관리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가정관리의 항목별 배분시간량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자는 2시간 40분이었으나 남자는 20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관리를 위한 남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 7분, 음식준비 및 정리와 집 관리에 각각 4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3분, 의류관리와 가정경영 각각 1분 등으로 가정관리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남자의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투입량을 요일별로 구분하면, 평일(18분)보다는 토요일(22분)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29분)에 많았으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여전히 매우 적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를 위한 여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에는 1시간 25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청소 및 정리 32분, 의류관리 23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14분, 집관리와 가정경영을 위해서는 각각 3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가정관리 항목별 시간량은 남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평일(2시간 37분)보다는 토요일(2시간 46분)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2시간 40분)에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남녀 모두 요일에 따라서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9〉 가정관리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가정관리 항목	남자				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음식준비 및 정리	0:04	0:04	0:06	0:04	1:24	1:27	1:30	1:25
의류관리	0:01	0:01	0:02	0:01	0:23	0:24	0:25	0:23
청소 및 정리	0:06	0:07	0:09	0:07	0:31	0:34	0:35	0:32
집관리	0:04	0:05	0:06	0:04	0:03	0:04	0:03	0:03
가정관리관련 물품 구입	0:02	0:04	0:06	0:03	0:13	0:15	0:15	0:14
가정경영	0:01	0:01	0:00	0:01	0:03	0:02	0:01	0:03
계	0:18	0:22	0:29	0:20	2:37	2:46	2:49	2:40

가정관리 항목을 위한 남녀 시간량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취업 여성, 즉, 전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가정관리를 위한 주요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 - 남자, 가정 - 여자」의 경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여자가 주로 책임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 - 남자와 여자, 가정 - 여자」의 책임형태라고 할 수 있어 한국 여성의 이중적 역할부담으로 인한 갈등증폭의 우려가 있음을 예상케 한다.

(3)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은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 활동의 성별 시간량은 1일 요일 평균 남자 4분, 여자 3분으로 매우 낮았으며, 각 항목 별 시간량도 극히 미미하였다. 다만 다소의 특징이 있다면 남자는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1분), 지역공동체활동(1분), 사회참여활동(2분) 등에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2분), 자원봉사활동(1분) 등으로 나타나 남자는 자원봉사에, 여자는 지역공동체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에 전무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표 3-10 참조)

〈표 3-10〉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남자				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2
지역 공동체 활동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2	0:01	0:00	0:02	0:00	0:00	0:00	0:00
자원봉사	0:00	0:00	0:01	0:00	0:01	0:01	0:00	0:01
계	0:04	0:03	0:03	0:04	0:03	0:03	0:02	0:03

요일별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은 남녀 모두 미미하게 나타났다. 즉,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러한 활동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평일에는 일, 학업, 가사 등의 사회적 및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시간을 배분하지 못할 수 있음은 이해되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러한 활동에 시간배분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동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몽 및 인식부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널리 홍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전술한 바와 같이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시간배분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매체 이용, 교제, 취미 등의 활동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여자(4시간 35분)보다는 남자(5시간 4분)가 현저하였으며, 특히 대중매체 이용을 위한 시간투입이 남녀 모두 가장 많았는데, 남자 2시간 29분, 여자 2시간 18분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남자의 경우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시간 41분, 교제활동 48분이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교제활동 57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40분이었다. 이들 항목 외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의 학습(남자 10분, 여자 7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남자 25분, 여자 12분) 등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항목은 종교활동(남자 5분, 여자 15분),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남자 1분, 여자 3분) 등이었다.(표 3-11 참조)

이러한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항목에 따른 시간량을 요일별로 특징적인 것을 간략히 설명하면, 남녀 모두 일반인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소폭이나마 적었고(약 1~3분), 그 외의 대부분의 항목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었다. 특히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 tape 등 대중매체이용은 남자의 경우 평일 2시간 14분에서 일요일에는 3시간 32분으로, 여자는 평일 2시간 6분에서 일요일에는 3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증가를 보여주었다. 대중매체이용 중에서도 TV 시청을 위한 시간량은 남자의 경우 평일 1시간 52분, 토요일 2시간 16분, 일요일 3시간 6분으로 증가하였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평일 1시간 53분, 토요일 2시간 18분, 일요일 2시간 45분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TV 시청을 위한 요일별 시간량 변화는 남자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요일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TV 시청을 많이 하고 있었다. TV 시청 시간량은 대중매체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문, 잡지, 비디오, 라디오, CD tape 등의 이용은 낮은 수준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11〉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남자				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교제활동	0:43	0:54	1:09	0:48	0:55	1:01	1:03	0:57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2:14 (1:52)	2:40 (2:16)	3:32 (3:06)	2:29 (2:06)	2:06 (1:53)	2:32 (2:18)	3:00 (2:45)	2:18 (2:04)
일반인의 학습	0:11	0:09	0:08	0:10	0:08	0:05	0:05	0:07
종교활동	0:03	0:05	0:17	0:05	0:11	0:13	0:34	0:15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2	0:04	0:02	0:01	0:03	0:03	0:02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22	0:28	0:36	0:25	0:12	0:14	0:13	0:12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59	1:11	1:19	1:04	0:39	0:42	0:45	0:4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2	0:01	0:02	0:04	0:04	0:03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1
계	4:34	5:31	7:08	5:04	4:16	4:55	5:48	4:35

취미 및 여가활동은 남자의 경우 평일 59분에서 일요일에는 1시간 19분으로, 여자는 평일 39분에서 일요일 45분으로 증가하여 성별에 따른 요일별 시간배분량의 증가폭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남자 20분, 여자 6분). 교제 및 여가활동은 남자의 경우 평일 43분에서 일요일 1시간 9분으로, 여자는 평일 55분에서 일요일 1시간 3분으로 증가하여 요일에 따른 성별 시간증가폭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남자 26분, 여자 8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종교활동이다. 종교활동을 위한 시간은 남자 5분에 불과하였으나 여자는 15분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남자의 경우 평일 3분에서 일요일 17분으로, 여자는 평일 11분에서 일요일 34분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활동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평일 또는 토요일보다는 주로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이동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 이동을 위한 요일 평균 시간량은 남자 1시간 46분, 여자 1시간 24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출·퇴근 등 일을 위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표 3-12>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출·퇴근 관련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남자 50분, 여자 24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 관련 이동은 남자 3분, 여자 10분으로 성별 차이가 일을 위한 이동시간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12> 이동항목의 성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이동 항목	남자				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0:02	0:02	0:01	0:02
개인유지 관련 이동	0:05	0:05	0:05	0:05	0:05	0:05	0:04	0:05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	0:55	0:50	0:26	0:50	0:26	0:23	0:13	0:24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17	0:13	0:03	0:14	0:16	0:11	0:02	0:13
가정관리 관련이동	0:03	0:04	0:05	0:03	0:10	0:12	0:11	0:10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2	0:03	0:03	0:03	0:04	0:04	0:03	0:04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	0:01	0:01	0:00	0:01	0:01	0:00	0:01	0:0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이동	0:21	0:37	1:02	0:29	0:20	0:31	0:47	0:25
계	1:45	1:54	1:45	1:46	1:24	1:28	1:22	1:24

이러한 이동시간량을 요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과 통학 및 학습 관련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현저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근무 및 수업시간의 감소, 근무 또는 등교하지 않는 등 요일이 갖는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제 및 여가 관련이동은 남자는 평일 21분에서 토요일 37분, 일요일 1시간 2분으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평일 20분에서 토요일 31분, 일요일 47분으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그 폭은 여자(27분)보다 남자(41분)에게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4. 연령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본 절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연령은 10대~40대까지는 각 연령대별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다음은 50~64세와 65세 이상으로 양분하여 한국인을 여섯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수는 총 85,906사례이었으며, 요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수를 보였다. 평일은 전체 52,365사례로서 10~19세 9,946사례, 20~29세 8,734사례, 30~39세 10,612사례, 40~49세 8,948사례, 50~64세 8,847사례, 65세 이상 5,278사례이었다. 토요일의 시간일지수는 전체가 16,986사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19세 2,984사례, 20~29세 2,864사례, 30~39세 3,484사례, 40~49세 2,865사례, 50~64세 3,102사례, 65세 이상은 1,687사례이었다. 일요일의 시간일지수는 전체 16,555사례로 10~19세 2,927사례, 20~29세 2,828사례, 30~39세 3,442사례, 40~49세 2,808사례, 50~64세 2,923사례, 65세 이상은 1,627사례이었다.

가. 연령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개인유지와 관련된 행동은 어느 연령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시간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생명의 유지를 위한 수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체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량은 연령층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동 시간량은 10대가 10시간 18분이었으며, 40대에는 10시간 2분으로 가장 적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50~64세는 10시간 16분, 65세 이상에서는 11시간 19분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이 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어 개인유지시간을 다소 감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노인계층에서는 직장으로부터 은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는 점차 기력이 쇠하여 수면을 많이 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인유지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항목은 연령층에 따라 상

이하에 나타났는데, 10대는 학습(6시간 59분)이 많았으며, 20대는 교제 및 여가활동(4시간 58분), 30대와 40대는 일(각각 5시간 5분, 5시간 25분)이었고, 50대 이상은 교제 및 여가활동이 많았다(50~64세 5시간 14분, 65세 이상 7시간 2분). 이는 10대는 학생이 대부분이어 학습량이 많고,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일에 전념하게 되며, 50대 중반부터는 실제 일에서 은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령층별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대분류 항목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과 관련된 행동에 투입되는 시간량은 10대에 매우 낮은 비율(1.7%)을 보였으나 20대부터는 급증하여 40대에 최고점(22.6%)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50~64세 연령층에서는 4시간 23분(18.2%),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2시간 08분(8.9%)으로 급감하였다.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10대에서는 14분에 불과하였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1시간 9분, 1시간 53분으로 급증하였고, 40대에는 2시간, 50~64세 연령층에서는 2시간 5분으로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시간 57분으로 조금 감소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하여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동 시간대는 유사한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층에서 비록 약간의 시간량 감소가 있었으나 70~80대 고령층 노인들은 가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10대에는 3분에 불과하였으나 20대에는 36분으로 증가하였고, 30대에는 53분으로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급감하여 40대에는 14분, 50~64세 에서는 17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6분으로 저하되었다. 이는 2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결혼 및 출산에 의한 영향과 30대는 미취학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되며,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나타나는 것은 배우자 및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13〉 연령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 분, %)

구 분	요일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64세	65세 이상
개인유지	10:18(42.9)	10:18(42.9)	10:07(42.1)	10:02(41.8)	10:16(42.8)	11:19(47.1)
일	0:25(1.7)	4:03(16.9)	5:05(21.2)	5:25(22.6)	4:23(18.2)	2:08(8.9)
학습	6:59(29.1)	0:54(3.7)	0:01(0.1)	0:01(0.1)	0:00(0.0)	0:00(0.0)
가정관리	0:14(1.1)	1:09(4.8)	1:53(7.9)	2:00(8.3)	2:05(8.7)	1:57(8.1)
가족 보살피기	0:03(0.2)	0:36(2.5)	0:53(3.7)	0:14(1.0)	0:17(1.2)	0:16(1.1)
참여 및 봉사활동	0:00(0.0)	0:05(0.3)	0:03(0.2)	0:03(0.2)	0:04(0.3)	0:04(0.3)
교제 및 여가활동	4:24(18.3)	4:58(20.7)	4:11(17.4)	4:27(18.6)	5:14(21.8)	7:02(29.3)
이동	1:31(6.3)	1:51(7.7)	1:38(6.8)	1:40(6.9)	1:31(6.3)	1:03(4.4)
기타	0:06(0.4)	0:07(0.5)	0:08(0.6)	0:08(0.5)	0:10(0.7)	0:11(0.8)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10대~40대까지는 4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50~64세는 5시간대, 65세 이상은 7시간대로 진입하고 있어 전술한 일 및 학습을 위한 시간량의 변화와 반비례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즉, 일로부터의 은퇴는 교제 및 여가활동의 현저한 증가를 낳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전체 한국인에게 있어서 매우 낮았던 만큼 이는 연령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0대 청소년의 참여 및 봉사활동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로부터 자유로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5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도 4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활동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동을 위한 시간은 연령층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노인층은 1시간 3분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결과, 즉, 활동이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와병노인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나. 주요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배분실태

주요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배분실태는 개인유지 항목과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외의 항목인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이동 등의 항목은 대분류에 의하여 연령별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은 연령층에 따라 특징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개인유지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량

연령별 주요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량을 보여주는 수면은 65세 이상 노인층이 8시간 30분이나 되었고, 다음은 10대의 7시간 58분이었으며, 가장 수면시간이 적은 연령층은 30대의 7시간 29분이었다. 따라서 연령층에 따른 수면차이는 최고 1시간 1분으로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시간은 수면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보였는데 30대가 1시간 37분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시간 25분으로 가장 적어 연령층별 격차는 불과 12분이었다. (표 3-14 참조)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10대가 54분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층은 42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반면에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아 10대는 1분, 20대는 3분, 30대는 5분, 40대와 50~64세는 모두 11분, 그리고 65세 이상은 33분으로 중년기 이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에 의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항목의 시간량 투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4〉 개인유지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10대					20대			
수면	7:43	7:52	9:20	7:58	7:37	7:50	8:30	7:39
식사 및 간식	1:24	1:19	1:33	1:25	1:30	1:33	1:41	1:36
개인관리	0:55	0:54	0:50	0:54	0:57	0:58	0:50	0:49
건강관리	0:01	0:01	0:01	0:01	0:02	0:02	0:03	0:03
계	10:03	10:06	11:44	10:18	10:06	10:23	11:04	10:07
30대					40대			
수면	7:30	7:24	8:05	7:29	7:22	7:24	8:05	7:41
식사 및 간식	1:34	1:38	1:40	1:37	1:36	1:38	1:40	1:36
개인관리	0:51	0:51	0:53	0:51	0:51	0:51	0:53	0:48
건강관리	0:05	0:06	0:04	0:05	0:05	0:06	0:04	0:11
계	9:54	9:59	10:42	10:02	9:54	9:59	10:42	10:16
50~64세					65세 이상			
수면	7:39	7:36	7:56	7:41	8:29	8:32	8:35	8:30
식사 및 간식	1:35	1:37	1:39	1:36	1:34	1:33	1:35	1:34
개인관리	0:47	0:48	0:49	0:48	0:42	0:43	0:41	0:42
건강관리	0:12	0:10	0:09	0:11	0:34	0:32	0:27	0:33
계	10:13	10:11	10:33	10:16	11:19	11:20	11:18	11:19

(2)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연령층에 따른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항목의 생활시간량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층에서 대중매체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할애를 하고 있는 점은 전체 한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동 항목을 위한 시간량은 65세 이상 노인층이 3시간 32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64세의 2시간 43분, 20대 2시간 16분 등의 순이었으며, 10대가 2시간 5분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은 30대가 2시간 8분으로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0대의 학생층, 30대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여성의 가족 보살피기에 시간투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V시청을 위한 시간량은 10대~30대는 1시간 48~49분으로 차이가 없었고, 이는 40대에서 1시간 57분으로 증가하였고, 50~64세는 2시간 28분으로, 그리고 65세 이상은 3시간 19분으로 증가하였다. TV시청을 위한 시간량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10대는 평일 1시간 20분으로 가장 적었으나 학생층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을 TV시청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생층의 이와 같은 TV시청 시간은 토요일에는 2시간 26분으로, 일요일에는 3시간 33분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층의 일요일 TV시청 시간량인 3시간 37분과 유사하였다. 이는 교양프로그램보다는 젊은 연령층을 겨냥한 방송사의 인기가요 프로그램이 주말과 일요일에 많이 방송되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TV시청 시간량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급증한 10대와 같지는 않지만 20대~40대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청시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50~64세 연령층에서는 더 큰 증가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일, 학습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TV시청에 할애하였는데, 이는 요일에 상관없이 높은 시간량을 보이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 역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1시간 22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대가 1시간 8분으로 많았고, 30대는 38분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였다. 종교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10대와 20대는 7~8분에 그쳤으나, 65세 이상 노인층은 18분으로 증가하였다.

〈표 3-15〉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연령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10대					20대			
교제활동	0:38	0:45	0:47	0:40	0:49	1:02	1:12	0:54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1:35 (1:20)	2:45 (2:26)	3:59 (3:33)	2:05 (1:48)	2:01 (1:35)	2:30 (2:01)	3:16 (2:41)	2:16 (1:48)
일반인의 학습	0:04	0:03	0:03	0:04	0:31	0:25	0:20	0:29
종교활동	0:01	0:06	0:28	0:05	0:03	0:04	0:22	0:06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4	0:04	0:02	0:02	0:07	0:08	0:04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3	0:17	0:21	0:15	0:12	0:16	0:19	0:14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55	1:28	1:55	1:08	0:47	0:57	1:00	0:5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5	0:06	0:03	0:03	0:06	0:06	0:04
기타 여가관련활동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계	3:30	5:35	7:45	4:24	4:29	5:28	6:44	4:58
30대					40대			
교제활동	0:47	0:55	1:03	0:51	0:48	0:55	1:06	0:52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1:57 (1:38)	2:17 (1:57)	2:55 (2:37)	2:08 (1:49)	2:07 (1:49)	2:20 (2:02)	2:47 (2:33)	2:15 (1:57)
일반인의 학습	0:09	0:07	0:06	0:09	0:05	0:04	0:03	0:05
종교활동	0:06	0:06	0:21	0:08	0:11	0:13	0:30	0:14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2	0:03	0:01	0:00	0:01	0:02	0:00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3	0:17	0:24	0:15	0:17	0:19	0:29	0:19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8	0:40	0:38	0:38	0:41	0:41	0:44	0:41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2	0:02	0:01	0:01	0:01	0:01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0
계	3:52	4:26	5:33	4:11	4:10	4:34	5:43	4:27
50~64세					65세 이상			
교제활동	0:55	1:00	1:16	0:59	1:10	1:20	1:20	1:13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2:37 (1:22)	2:43 (2:30)	3:01 (2:59)	2:43 (2:28)	3:29 (3:15)	3:35 (3:24)	3:49 (3:37)	3:32 (3:19)
일반인의 학습	0:02	0:01	0:02	0:02	0:01	0:00	0:00	0:01
종교활동	0:11	0:12	0:27	0:13	0:17	0:13	0:29	0:18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1	0:01	0:01	0:02	0:02	0:03	0:02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26	0:28	0:28	0:27	0:32	0:34	0:28	0:32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8	0:48	0:50	0:48	1:23	1:18	1:20	1:22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1
계	5:01	5:14	6:16	5:14	6:56	7:03	7:30	7:02

5.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본 절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등의 네 가지 유형의 혼인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수는 총 85,906사례이었으며,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27,645사례, 유배우 50,406사례, 사별 6,595사례, 이혼 1,265사례 등이다.

가.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혼인상태에 따라 생활시간배분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량을 배분하고 있는 분야는 전체 한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유지이었으나, 그 뒤를 잇는 것은 혼인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혼상태의 사람은 일이 5시간 16분으로 22.0%를 차지하였으나, 그 외의 미혼, 유배우, 사별인 상태인 사람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은 미혼자의 경우는 학습, 유배우 및 사별인 경우는 일, 이혼자인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나타나 혼인상태에 따라 다소 상이한 시간배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사별상태의 사람이 요일 평균 10시간 59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이혼자가 10시간 22분, 미혼 10시간 18분, 유배우 10시간 14분으로 나타나 결혼상태에 따라 최고 45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별상태인 사람의 개인유지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층이 많아 수면시간이 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을 위한 시간량도 결혼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혼이 5시간 16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유배우 4시간 39분, 사별 2시간 35분, 미혼이 2시간 13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상태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별상태의 사람은 노인이 많기 때문에 기회부족, 신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적음을 짐작케 하고,

미혼인 경우는 학업 등에 종사하는 학생층이 많기 때문에 풀이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사별상태의 사람이 6시간 19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혼 4시간 47분, 미혼 4시간 46분, 유배우 4시간 41분 등으로 사별 이외의 혼인상태에서는 유사한 수준에 있었다.

〈표 3-16〉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평균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개인유지	10:18(42.9)	10:14(42.6)	10:59(45.8)	10:22(43.2)
일	2:13(9.3)	4:39(19.4)	2:35(10.8)	5:16(22.0)
학습	4:26(18.5)	0:01(0.1)	0:00(0.0)	0:01(0.0)
가정관리	0:22(1.5)	2:02(8.5)	2:27(10.2)	1:34(6.5)
가족 보살피기	0:02(0.1)	0:38(2.6)	0:18(1.2)	0:10(0.7)
참여 및 봉사활동	0:03(0.2)	0:03(0.2)	0:05(0.3)	0:06(0.4)
교제 및 여가활동	4:46(19.9)	4:41(19.5)	6:19(26.3)	4:47(19.9)
이동	1:44(7.2)	1:33(6.5)	1:06(4.6)	1:35(6.6)
기타	0:06(0.4)	0:09(0.6)	0:11(0.8)	0:09(0.6)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나. 주요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배분실태

(1) 개인유지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혼인상태별 개인유지 항목의 시간량은 사별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수면을 위한 시간량은 미혼, 유배우,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7시간 41분~7시간 52분이었는데 비하여 사별인 상태의 사람은 8시간 20분이나 되었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미혼, 유배우,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2분~9분에 불과하였으나 사별상태의 사람은 27분이나 되었다(표 3-17 참조). 이는 사별상태의 사람은 노인층이 많기 때문으로 고령화에 따른 수면시간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의 증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반면에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사별인 경우가 42분으로 가장 적었고, 미혼자는 57분, 유배우자는 48분, 이혼자는 58분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별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이혼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의 사회적 부담감을 줄이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외모, 이·미용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3-17〉 개인유지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미혼					유배우			
수면	7:39	7:50	9:00	7:52	7:35	7:37	8:15	7:41
식사 및 간식	1:26	1:25	1:33	1:27	1:36	1:38	1:41	1:37
개인관리	0:57	0:57	0:55	0:57	0:48	0:48	0:50	0:48
건강관리	0:02	0:02	0:02	0:02	0:08	0:07	0:06	0:08
계	10:04	10:14	11:30	10:18	10:07	10:10	10:52	10:14
사별					이혼			
수면	8:18	8:18	8:30	8:20	7:40	7:52	8:11	7:46
식사 및 간식	1:29	1:30	1:32	1:30	1:30	1:27	1:28	1:29
개인관리	0:42	0:44	0:42	0:42	0:58	0:57	0:57	0:58
건강관리	0:29	0:24	0:21	0:27	0:09	0:14	0:05	0:09
계	10:58	10:56	11:05	10:59	10:17	10:30	10:41	10:22

(2) 일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이혼상태의 사람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무려 5시간 4분이나 되었으며, 이어서 유배우 상태인 사람의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4시간 5분, 미혼 및 사별자는 각각 2시간 6분, 2시간 5분으로 상대적 열세를 보였다.

〈표 3-18〉 일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미혼					유배우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20	1:58	1:06	2:06	4:30	3:54	2:13	4:05
무급가족종사일	0:03	0:05	0:03	0:04	0:16	0:16	0:13	0:16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2	0:03	0:03	0:02	0:13	0:12	0:12	0:13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0	0:00	0:00	0:00	0:03	0:04	0:05	0:03
구직활동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1
일 관련 물품구입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기타 일 관련 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2:26	2:07	1:13	2:13	5:04	4:27	2:44	4:39
사별					이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11	2:10	1:30	2:05	5:21	4:36	4:11	5:04
무급가족종사일	0:03	0:03	0:02	0:03	0:00	0:00	0:00	0:0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15	0:13	0:13	0:15	0:03	0:06	0:06	0:0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11	0:12	0:13	0:11	0:01	0:03	0:06	0:02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0:03	0:11	0:02	0:04
일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0	0:01	0:02	0:01	0:02	0:02
기타 일 관련 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2:41	2:39	1:58	2:35	5:30	4:57	4:27	5:16

특히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요일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미혼자의 경우는 평일 2시간 20분에서 일요일에는 1시간 6분으로 감소하였고, 사별상태의 사람은 평일 2시간 11분에서 일요일에는 1시간 30분으로 감소하였으며, 유배우자는 평일 4시간 30분에서 일요일에는 2시간 13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혼상태인 사람으로 이들은 평일 5시간 21분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구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일요일에도 무려 4시간 11분 동안이나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요일에 상관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장근무 또는 자영업종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이들 이혼상태인 가구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사별상태의 사람이 가장 많고, 미혼, 유배우, 이혼상태의 사람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별상태인 경우는 대중매체의 이용이 3시간 5분으로 미혼자의 2시간 10분, 유배우자의 2시간 25분, 이혼자의 2시간 32분보다 현저하게 높아 전체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시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의 대부분이 TV 시청이라는 사실은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별상태인 사람의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중 TV 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다른 혼인상태의 경우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노인층에서 어느 다른 대중매체 이용보다도 TV를 시청하며 지내는 것이 쉽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도 사별상태의 사람은 1시간 9분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미혼자의 1시간 5분보다 많았으며, 가장 적은 유배우자의 43분보다는 26분이나 많았다. 취미 및 여가활동은 미혼자의 경우 요일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평일에는 56분, 토요일 1시간 19분, 일요일 1시간 34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결혼상태에서는 요일별로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을 뿐 현저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은 특징을 보였다.

〈표 3-19〉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혼인상태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미혼					유배우			
교제활동	0:42	0:53	0:59	0:46	0:51	0:58	1:08	0:55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1:45 (1:25)	2:39 (2:13)	3:44 (3:12)	2:10 (1:47)	2:17 (2:00)	2:32 (2:14)	3:01 (2:45)	2:25 (2:08)
일반인의 학습	0:18	0:16	0:13	0:17	0:05	0:04	0:03	0:05
종교활동	0:02	0:06	0:26	0:06	0:08	0:09	0:24	0:10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2	0:06	0:06	0:02	0:01	0:01	0:02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4	0:18	0:22	0:16	0:19	0:22	0:27	0:2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56	1:19	1:34	1:05	0:43	0:43	0:44	0:43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5	0:06	0:03	0:01	0:01	0:01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1	0:01	0:01	0:00	0:00	0:01	0:00
계	4:02	5:43	7:31	4:46	4:25	4:50	5:51	4:41
사별					이혼			
교제활동	1:12	1:18	1:20	1:14	0:46	0:58	1:01	0:50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3:02 (2:55)	3:02 (2:57)	3:26 (3:19)	3:05 (2:59)	2:29 (2:12)	2:34 (2:18)	2:47 (2:34)	2:32 (2:16)
일반인의 학습	0:01	0:00	0:01	0:01	0:06	0:02	0:01	0:05
종교활동	0:22	0:17	0:38	0:24	0:10	0:13	0:23	0:12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2	0:02	0:02	0:02	0:00	0:01	0:01	0:00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23	0:24	0:19	0:23	0:18	0:19	0:13	0:18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10	1:06	1:10	1:09	0:48	0:49	0:44	0:4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2	0:04	0:01	0:02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계	6:13	6:10	6:57	6:19	4:39	5:00	5:13	4:47

6.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배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수준의 분류는 재학생과 중퇴자 등을 모두 각급 교육수준에 포함하여 졸업자와 동등하게 조작하였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이는 교육수준이 연령과 학생신분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는 후술하는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시간배분실태에서 다시 논의된다. 따라서 전체 한국인의 현재 평균 교육수준의 생활시간배분을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의미가 있다.

가.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는 교육수준에 따라 시간량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전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 일 등의 순으로 많은 시간량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노인층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무학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량이 11시간 15분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초등학교 학력소지자 10시간 41분, 중학교 학력소지자 10시간 17분,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10시간 6분,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 10시간 7분 등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노인이 많은 무학자가 6시간 6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5시간 7분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4시간 27분으로 가장 적었다. 일을 위한 시간량은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가 4시간 7분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도 4시간 2분으로 많았으며, 무학자는 2시간 46분으로 가장 적었다.

많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들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 일 외에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무학자가 2시간 19분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점차 적어져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1시간 3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고등학교 학력소지자가 33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27분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요일 평균 약 14~17분간 가족 보살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및 봉사활동은 학력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무학인 경우는 타 연령층의 3분보다 2배가 많은 6분의 시간량을 보였다.

〈표 3-20〉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평균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개인유지	11:15(46.9)	10:41(44.5)	10:17(42.8)	10:06(42.1)	10:07(42.1)
일	2:46(11.5)	3:06(12.9)	3:20(13.9)	4:02(16.8)	4:07(17.2)
학습	0:00(0.0)	1:38(6.8)	2:27(10.2)	1:31(6.3)	0:58(4.0)
가정관리	2:19(9.7)	1:46(7.3)	1:33(6.5)	1:32(6.4)	1:03(4.4)
가족 보살피기	0:17(1.2)	0:14(1.0)	0:14(1.0)	0:33(2.3)	0:27(1.9)
참여 및 봉사활동	0:06(0.4)	0:03(0.2)	0:03(0.2)	0:03(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6:06(25.4)	5:05(21.2)	4:33(19.0)	4:27(18.5)	5:07(21.3)
이동	0:59(4.1)	1:16(5.3)	1:24(5.8)	1:38(6.8)	2:02(8.5)
기타	0:12(0.8)	0:11(0.8)	0:09(0.6)	0:08(0.6)	0:06(0.4)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나. 주요 항목의 교육수준별⁸⁾ 생활시간배분실태

(1) 개인유지 항목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량

개인유지 행위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다. 즉, 초등학교 학력소지자는 8시간 12분, 중학교 학력소지자는 7시간 51분,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7시간 37분,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7시간 33분 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수면 시간량의 요일변화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7시간 21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였고, 초등학교 학력자는 8시간 9분으로 가장 많은 수면시간을 나타냈으나, 일요일에는 전체가 8시간 28분~8시간 34분의 범주에서 수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토요일무제의 시행과 함께 토요일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추측된다.

8) 본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의 분류항목에 무학소지자는 제외하였음.

〈표 3-21〉 개인유지 항목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수면	8:09	8:06	6:32	8:12	7:44	7:42	8:34	7:51
식사 및 간식	1:31	1:31	1:36	1:32	1:30	1:28	1:34	1:31
개인관리	0:45	0:46	0:46	0:45	0:50	0:51	0:50	0:50
건강관리	0:13	0:13	0:10	0:12	0:06	0:06	0:05	0:05
계	10:38	10:36	11:04	10:41	10:10	10:07	11:03	10:17
고등학교					대학 이상			
수면	7:28	7:29	8:28	7:37	7:21	7:41	8:30	7:33
식사 및 간식	1:32	1:33	1:37	1:33	1:34	1:38	1:41	1:36
개인관리	0:52	0:53	0:53	0:52	0:54	0:56	0:56	0:55
건강관리	0:04	0:03	0:03	0:04	0:04	0:02	0:01	0:03
계	9:56	9:58	11:01	10:06	9:53	10:17	11:08	10:07

식사 및 간식을 위한 시간량은 학력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최고: 대학 이상 1시간 36분, 최저: 중학교 학력 1시간 31분), 요일별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최고: 대학 이상 7분, 최저: 중학교 4분). 개인관리 행위의 시간량을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 학력소지자는 4분으로 가장 낮았고,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 시간량은 증가하여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55분이었다. 따라서 세면, 사우나, 맛사지, 화장, 이·미용, 외모관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관리의 특성상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기관리를 위해 개인위생 및 외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건강관리 행위의 시간량을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 학력자가 12분이었으며,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량은 감소하여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3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기관리를 위해 개인위생 및 외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은 연령과 관련됨으로써 학력이 낮을수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량

교육수준별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초등학교 학력자 5시간 5분, 중학교 학력자 4시간 33분, 고등학교 학력자 4시간 27분,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자는 5시간 7분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시간사용률을 나타내는 대

중매체이용은 요일 평균 2시간~3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자 3시간 21분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학력자 2시간 23분, 고등학교 학력자 2시간 17분, 대학 이상 학력자는 2시간 14분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량은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중매체 이용의 한 항목인 TV 시청 시간량도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는데, 초등학교 학력자가 2시간 28분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자는 1시간 42분이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초등학교 학력 1시간 2분, 대학 이상의 학력자 52분, 중학교 학력 49분,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 44분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외국어나 컴퓨터, 자격증이나 취미관련 강습 등의 일반인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요일 평균 26분으로 다른 교육수준의 학력자(0분~5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3-22〉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교육수준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교제활동	0:47	0:57	1:05	0:51	0:45	0:52	1:03	0:49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2:26 (2:18)	2:41 (2:35)	3:21 (3:14)	2:36 (2:28)	2:07 (1:55)	2:45 (2:31)	3:21 (3:06)	2:23 (2:10)
일반인의 학습	0:01	0:00	0:00	0:00	0:01	0:01	0:00	0:01
종교활동	0:09	0:08	0:24	0:11	0:06	0:10	0:27	0:10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2	0:02	0:02	0:01	0:01	0:03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20	0:22	0:20	0:21	0:17	0:18	0:24	0:18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58	1:06	1:19	1:02	0:44	0:55	1:08	0:49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2	0:01	0:01	0:03	0:02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1
계	4:44	5:18	6:34	5:05	4:03	5:05	6:29	4:33
고등학교					대학 이상			
교제활동	0:48	0:53	1:02	0:51	0:50	1:04	1:11	0:55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2:05 (1:47)	2:25 (2:06)	3:10 (2:49)	2:17 (1:59)	1:56 (1:26)	2:37 (2:01)	3:20 (2:43)	2:14 (1:42)
일반인의 학습	0:06	0:04	0:04	0:05	0:28	0:23	0:20	0:26
종교활동	0:06	0:08	0:22	0:09	0:08	0:09	0:33	0:12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2	0:03	0:01	0:02	0:06	0:07	0:03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5	0:18	0:23	0:17	0:18	0:26	0:33	0:2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2	0:48	0:52	0:44	0:49	0:59	1:00	0:52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3	0:03	0:02	0:02	0:05	0:04	0:03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계	4:06	4:42	6:00	4:27	4:34	5:50	7:09	5:07

종교활동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이상 학력자 모두가 약 9~12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종교활동을 많이 하는 일요일의 시간량은 초등학교 학력자 24분, 중학교 학력자 27분, 고등학교 학력자 22분이었으며, 대학 이상 학력자는 대폭 증가하여 33분이나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3분 이하에 그쳐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이 낮음을 짐작케 하였다.

7.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가.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은 일과 이동의 항목뿐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은 개인유지,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이었고, 경제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시간량을 보이는 것은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 비참여자가 경제활동참여자보다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항목이 많은 것은 일에 투입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만큼 이러한 시간을 다양한 다른 행동을 하는데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 관련 항목의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 6시간 38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10분으로 현저한 격차가 있었으며,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 1시간 44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1시간 24분으로 경제활동자가 다소 많았으나 경제활동 비참여자도 많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자과 경제활동 비참여자간에 많은 시간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여자는 가정관리를 위하여 1시간 9분(경제활동 비참여자 1시간 56분), 가족 보살피기를 위하여 15분(경제활동 비참여자 36분)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취업여성이 직장의 일을 마치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요일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부표 5>에 의하면, 동 항목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가 평일 3시간 30분, 토요일 4시간 4분, 일요일 5시간 35분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비참여자의 경우는 평일 5시간 32분, 토요일 6시간 37분, 일요일 7시간 35분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이 경제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3분에 불과하였다. 특히 경제활동 비참여자의 경우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이 평일에는 5분이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각각 3분, 2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 비참여자의 시간관리는 개인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적 측면의 투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23>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개인유지	10:04(42.0)	10:35(44.1)
일	6:38(27.6)	0:10(0.7)
학습	0:06(0.4)	3:08(13.1)
가정관리	1:09(4.8)	1:56(8.1)
가족 보살피기	0:15(1.0)	0:36(2.5)
참여 및 봉사활동	0:03(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3:53(16.2)	5:59(24.9)
이동	1:44(7.2)	1:24(5.8)
기타	0:08(0.6)	0:09(0.6)
계	24:00(100.0)	24:00(100.0)

나. 주요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1) 개인유지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량

경제활동여부별 개인유지를 위한 요일 평균 시간량은 경제활동 비참여자가 경제활동참여자보다 31분이 많았는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면, 건강관리 등의 시간량이 경제활동 비참여자가 경제활동참여자보다 많았다. 즉, 수면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 7시간 36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8시간 1분이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 3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12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외의 항목인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표 3-24 참조).

이러한 양상은 요일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면시간과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 등이 요일에 따라서도 경제활동참여자와 경제활동 비참여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곤으로 인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해될 수도 있으며, 이와 달리 경제활동 비참여자도 다른 행동유형으로 인하여 피곤이 누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표 3-24〉 개인유지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수면	7:28	7:33	8:19	7:36	7:53	7:58	8:46	8:01
식사 및 간식	1:33	1:34	1:37	1:34	1:31	1:32	1:37	1:32
개인관리	0:51	0:51	0:52	0:51	0:50	0:50	0:50	0:50
건강관리	0:03	0:03	0:03	0:03	0:12	0:11	0:09	0:12
계	9:55	10:01	10:51	10:04	10:26	10:31	11:22	10:35

(2)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량

경제활동여부별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량을 분석하여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 비참여자가 경제활동참여자보다 무려 2시간 6분이나 많은 영향으로 전체 항목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대중매체이용은 경제활동참여자 1시간 58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2시간 54분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중매체이용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TV 시청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 1시간 42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2시간 33분으로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51분의 차이가 났다. 요일별 TV 시청시간량의 변화는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참여자의 TV 시청시간량은 평일 1시간 31분, 토요일 1시간 46분, 일요일 2시간 31분으로 요일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활동 비참

여자의 경우도 요일에 따라 차이를 보여 평일 2시간 17분, 토요일 2시간 55분, 일요일 3시간 28분이었다.

이는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에서도 동일하였는데, 동 항목은 경제활동참여자 41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1시간 6분이었으며, 경제활동참여자가 평일보다는 주말, 주말보다는 일요일에 활동시간량이 더 많았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 또는 방문하는 등의 교제활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46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1시간 2분을 사용하여 업무상 교제활동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 경제활동참여자보다 경제활동 비참여자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동 항목을 위한 시간량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자의 경우 평일은 41분, 토요일은 50분, 일요일 1시간 6분으로 평일보다는 주말 및 공휴일에 교제를 위한 시간량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비참여자의 경우는 평일 1시간, 토요일 1시간 7분, 일요일 1시간 5분으로 요일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참여자 14분, 경제활동 비참여자 25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활동이 더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참여자는 평일 12분, 토요일에 16분, 일요일에 23분을 사용하여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활동 비참여자는 평일 24분, 토요일에 27분, 일요일에 26분을 사용하고 있어 요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25〉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교제활동	0:41	0:50	1:06	0:46	1:00	1:07	1:05	1:02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1:47 (1:31)	2:02 (1:46)	2:48 (2:31)	1:58 (1:42)	2:38 (2:17)	3:18 (2:55)	3:52 (3:28)	2:54 (2:33)
일반인의 학습	0:05	0:04	0:05	0:05	0:14	0:11	0:08	0:13
종교활동	0:05	0:06	0:20	0:07	0:10	0:12	0:33	0:14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2	0:03	0:01	0:02	0:04	0:04	0:02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2	0:16	0:23	0:14	0:24	0:27	0:26	0:25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9	0:42	0:47	0:41	1:01	1:13	1:22	1:06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2	0:02	0:01	0:02	0:04	0:04	0:02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1
계	3:30	4:04	5:35	3:53	5:32	6:37	7:35	5:59

IV.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생활시간배분실태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한 개인의 직장생활은 그 사람의 다른 생활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장에서의 시간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직업의 종류에 따라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생활시간 구조가 크게 다르다. 현대사회시스템은 '기업중심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에 대한 기업의 구속력이 매우 강하여 사회전체가 기업의 리듬을 중심으로 좌우되고 있다(이기영, 1998 재인용). 이와 같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활시간 중에서 직업상 노동을 위한 시간에 우선 시간을 배분하게 되며, 나머지 시간을 생리적, 사회문화적, 가사노동 등의 영역에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직종별로 직장인들의 생활시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유형은 신직업분류⁹⁾를 기준으로 하여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일곱 가지 직종으로 재분류하였다. 직장인들 전체의 요일 평균, 평일·토요일·일요일 생활시간 배분실태는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제3장 제7절)에서 논의되었으므로 본 장에서의 설명은 제외하였다.

2.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생활시간배분실태

직종별 분류에 의하면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은 10시간 20분으로 기능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등 다른 직종보다 10여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 시간사용이 가장 적은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으로 요일 평균 9시간 54분을 사용하였다.(표 4-1 참조)

9) 신직업분류는 열 가지로 ①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전문가 ③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서비스 종사자 ⑥판매 종사자 ⑦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⑧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⑨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단순노무종사자로 구분됨.

요일별로 보면 평일과 토요일에는 개인유지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종과 가장 적은 직종간에 차이가 적어 평일에는 36분의 차이를 보인다. 토요일에는 4분으로 더 좁혀지다가 일요일에는 2차이가 커져 사무직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으로 11시간 31분을 소요하여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서비스 판매직은 10시간 26분을 사용하여 두 직종간에 1시간 5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표 6 참조)

〈표 4-1〉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임업· 어업 숙련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개인유지	10:00 (41.7)	10:05 (42.0)	10:05 (42.0)	9:54 (41.3)	10:20 (43.1)	10:08 (42.2)	10:01 (41.7)
일	6:26 (26.7)	6:09 (25.7)	6:28 (26.9)	6:53 (28.6)	5:29 (22.7)	7:22 (30.7)	6:26 (26.8)
학습	0:07 (0.5)	0:14 (1.0)	0:08 (0.6)	0:09 (0.6)	0:04 (0.3)	0:02 (0.1)	0:06 (0.4)
가정관리	0:40 (2.8)	0:39 (2.7)	0:51 (3.5)	1:32 (6.4)	1:51 (7.7)	0:43 (3.0)	1:37 (6.7)
가족 보살피기	0:14 (1.0)	0:15 (1.0)	0:16 (1.1)	0:19 (1.3)	0:12 (0.8)	0:12 (0.8)	0:17 (1.2)
참여봉사활동	0:01 (0.1)	0:03 (0.2)	0:01 (0.1)	0:03 (0.2)	0:08 (0.6)	0:01 (0.1)	0:02 (0.1)
교제 및 여가활동	4:19 (18.0)	4:12 (17.5)	4:00 (16.7)	3:30 (14.6)	4:20 (18.1)	3:43 (15.5)	3:50 (16.0)
이동	2:07 (8.8)	2:18 (9.6)	2:05 (8.7)	1:33 (6.5)	1:22 (5.7)	1:42 (7.1)	1:33 (6.5)
기타	0:06 (0.4)	0:05 (0.3)	0:06 (0.4)	0:07 (0.5)	0:14 (1.0)	0:07 (0.5)	0:08 (0.6)
계	24:00 (100.0)	24:00 (100.0)	24:00 (100.0)	24:00 (100.0)	24:00 (100.0)	24:00 (100.0)	24:00 (100.0)

일을 위한 시간량이 가장 많은 직종은 기능직으로 30.7%인 7시간 22분이었으며, 다음은 서비스·판매직 6시간 53분(28.7%), 사무직 6시간 28분(26.9%),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6시간 26분(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임업·어업숙련직(5시간 29분)과 기술직 및 준전문직(6시간 9분)은 기능직(7시간 22분)과는 1시간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서비스 판매직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직종별 일요일에 일을 하는 시간량은 사무직 1시간 47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 2시간 1분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판매직은 5시간 22분,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은 4시간 50분, 기능직은 3시간 55분, 단순노무직 3시간 42분이나 되어 직업내용이 비전문화된 직종일수록 주 6일제 근무개념이 약하며,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짐작케 한다.

직장인이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사무직이 6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문직 4시간 29분을,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은 4시간 20분 등으로 비교적 많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3시간 30분으로 전체 직종가운데 교제 및 여가활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단순노무직(3시간 50분), 기능직(3시간 43분) 등도 적은 시간량을 나타냈다. 일에 사용하는 시간과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사무직이 일하는 시간량과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량의 차이가 약 28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기능직은 일과 교제 및 여가활동간에 약 3시간 39분의 차이를 보였으며, 두 항목간의 차이는 서비스·판매직 3시간 23분, 단순노무직 2시간 36분으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직장인이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은 1시간 51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단순노무직이 1시간 37분, 서비스·판매직이 1시간 32분, 사무직은 51분, 기능직 43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 39분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관리에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직종은 기술직 및 준전문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보살피기 시간량은 서비스·판매직(19분)이나 단순노무직(17분), 사무직(16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15분)의 순으로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특히 기능직은 12분으로 요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주요 항목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가.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직장인의 개인유지시간의 세부 항목별 사용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직종별로 수면시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수면시간이 가장 많은 직종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으로 8시간 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능직(7시간 40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7시간 35분), 사무직(7시간 30분), 서비스·판매직(7시간 28분), 전문직(7시간 22분)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수면시간이 가장 많은 직종과 가장 적은 직종간에는 39분의 차이로 타 활동에 비해 직종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개인위생이나 외모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과 관련된 개인관리 시간사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종은 사무직으로 59분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과 서비스·판매직(54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53분) 순이었다. 그리고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은 40분을 개인관리에 사용하고 있어 직종 가운데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을 위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문직이 1시간 41분으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직(1시간 37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1시간 36분), 단순노무직(1시간 33분), 농업·임업·어업숙련직(1시간 31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개인 유지를 위한 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직종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인의 생활시간 활용실태 분석 중 개인유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직장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에 있어서 수면과 식사 이외의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극히 미흡하였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건강회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전문직				
수면	7:08	7:25	8:27	7:22
식사 및 간식	1:39	1:44	1:46	1:41
개인관리	0:54	0:55	0:57	0:54
건강관리	0:03	0:03	0:01	0:03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9:44	10:07	11:11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수면	7:20	7:43	8:44	7:35
식사 및 간식	1:34	1:37	1:42	1:36
개인관리	0:53	0:55	0:52	0:53
건강관리	0:01	0:01	0:01	0:01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9:48	10:16	11:19	10:05
사무직				
수면	7:13	7:34	8:49	7:30
식사 및 간식	1:33	1:37	1:40	1:34
개인관리	0:58	1:01	1:01	0:59
건강관리	0:02	0:03	0:01	0:02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9:46	10:15	11:31	10:05
서비스·판매직				
수면	7:22	7:27	7:58	7:28
식사 및 간식	1:29	1:30	1:31	1:29
개인관리	0:54	0:52	0:54	0:54
건강관리	0:03	0:03	0:03	0:03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9:48	9:52	10:26	9:54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수면	8:01	7:58	8:07	8:01
식사 및 간식	1:31	1:31	1:32	1:31
개인관리	0:40	0:41	0:40	0:40
건강관리	0:08	0:05	0:08	0:08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10:20	10:15	10:27	10:20

〈표 4-2〉 계속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기능직				
수면	7:33	7:28	8:28	7:40
식사 및 간식	1:36	1:36	1:40	1:37
개인관리	0:49	0:50	0:51	0:49
건강관리	0:02	0:01	0:03	0:02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10:00	9:55	11:02	10:08
단순 노무직				
수면	7:30	4:27	8:10	7:35
식사 및 간식	1:33	1:31	1:35	1:33
개인관리	0:48	0:49	0:51	0:49
건강관리	0:04	0:07	0:02	0:04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계	9:55	9:54	1:38	10:01

나.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직장인의 일하는 시간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능직이 요일 평균 7시간 22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서비스·판매직이 6시간 53분, 사무직이 6시간 28분,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이 6시간 26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은 6시간 9분,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은 5시간 29분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평일이나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일하는 시간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과 농업·임업·어업숙련직 및 기능직, 단순노무직은 일요일에 각각 5시간 22분, 4시간 50분, 3시간 55분, 3시간 42분인데 비해 사무직은 일요일에 일하는 시간이 1시간 47분으로 일요일에 타 직종보다 가장 적게 일하는 단순노무직에 비해 약 2시간 이상의 차이를 갖기 때문에 요일 평균 일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는 사무직의 경우 일요일에는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3〉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전문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7:30	4:58	2:00	6:21
무급가족종사일	0:02	0:04	0:02	0:02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0	0:02	0:02	0:01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1	0:01	0:02	0:01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1	0:00	0:01	0:01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7:34	5:05	2:07	6:26
기술직 및 준전문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7:03	5:09	1:54	6:03
무급가족종사일	0:05	0:03	0:02	0:04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0	0:01	0:04	0:01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0	0:00	0:01	0:00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0	0:01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7:09	5:14	2:01	6:09
사무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7:23	5:16	1:35	6:15
무급가족종사일	0:11	0:13	0:08	0:11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1	0:02	0:03	0:02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0	0:01	0:01	0:00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0	0:00	0:00	0:00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7:35	5:32	1:47	6:28
서비스·판매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6:09	5:58	4:29	5:53
무급가족종사일	0:54	0:57	0:46	0:5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1	0:01	0:01	0:01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1	0:02	0:02	0:01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5	0:04	0:04	0:05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7:10	7:02	5:22	6:53

〈표 4-3〉 계속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농업·임업·어업숙련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27	3:24	2:56	3:23
무급가족종사일	0:03	0:03	0:03	0:0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01	1:55	1:43	1:57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5	0:07	0:07	0:06
구직활동	0:00	0:01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1	0:00	0:01	0:01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5:37	5:30	4:50	5:29
기능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7:46	7:12	3:42	7:06
무급가족종사일	0:14	0:12	0:07	0:1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2	0:02	0:03	0:02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1	0:01	0:03	0:01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0	0:00	0:00	0:00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8:03	7:27	3:55	7:22
단순 노무직				
고용된 일 및 자영업	6:41	6:02	3:22	6:07
무급가족종사일	0:08	0:05	0:03	0:07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06	0:06	0:08	0:06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4	0:06	0:08	0:05
구직활동	0:01	0:01	0:01	0:01
일 관련 물품구입	0:00	0:01	0:00	0:00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계	7:00	6:21	3:42	6:26

다.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직종에 따른 가정관리 사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1시간 51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관리에 소비하였고, 단순노무직은 1시간 37분, 서비스·판매직은 1시간 32분, 사무직이 51분, 기능직 43분, 전문직 40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은 39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활시간 중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7.6%밖에 되지 않으며, 전문직 등 학력수준이나 기술수준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일수록 가정관리시간에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4-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종사를 위한 시간 할당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관리에 관한 시간 할당에 있어서도 매우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은 가사노동에 관해서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4-4〉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가정관리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전문직				
음식준비 및 정리	0:14	0:18	0:26	0:16
의류관리	0:03	0:05	0:07	0:04
청소 및 정리	0:07	0:12	0:18	0:09
집관리	0:03	0:06	0:05	0:04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4	0:08	0:16	0:06
가정경영	0:01	0:01	0:00	0:01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0:32	0:50	1:12	0:40
기술직 및 준전문직				
음식준비 및 정리	0:14	0:18	0:22	0:16
의류관리	0:04	0:05	0:07	0:04
청소 및 정리	0:08	0:10	0:18	0:10
집관리	0:02	0:03	0:04	0:02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4	0:08	0:13	0:06
가정경영	0:01	0:01	0:01	0:01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0:33	0:45	1:04	0:39
사무직				
음식준비 및 정리	0:21	0:24	0:36	0:24
의류관리	0:06	0:07	0:14	0:07
청소 및 정리	0:09	0:11	0:20	0:11
집관리	0:01	0:02	0:05	0:02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4	0:11	0:15	0:06
가정경영	0:01	0:02	0:00	0:01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0:42	0:57	1:30	0:51
서비스·판매직				
음식준비 및 정리	0:48	0:47	0:51	0:48
의류관리	0:12	0:12	0:15	0:13
청소 및 정리	0:19	0:20	0:23	0:20
집관리	0:02	0:03	0:03	0:02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7	0:07	0:09	0:07
가정경영	0:02	0:01	0:01	0:02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1:30	1:30	1:42	1:32

〈표 4-4〉 계속

가정관리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음식준비 및 정리	1:00	0:58	1:01	1:00
의류관리	0:14	0:14	0:14	0:14
청소 및 정리	0:23	0:23	0:24	0:23
집관리	0:09	0:08	0:08	0:09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5	0:04	0:03	0:04
가정경영	0:01	0:01	0:00	0:01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1:52	1:48	1:50	1:51
기능직				
음식준비 및 정리	0:20	0:17	0:26	0:20
의류관리	0:04	0:04	0:08	0:05
청소 및 정리	0:08	0:10	0:14	0:09
집관리	0:03	0:04	0:06	0:03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4	0:05	0:07	0:05
가정경영	0:01	0:01	0:00	0:01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0:40	0:41	1:01	0:43
단순 노무직				
음식준비 및 정리	0:50	0:52	0:01	0:52
의류관리	0:12	0:14	0:18	0:13
청소 및 정리	0:18	0:19	0:23	0:19
집관리	0:04	0:04	0:05	0:04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7	0:09	0:08	0:08
가정경영	0:01	0:02	0:01	0:01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계	1:32	1:40	1:56	1:37

라. 참여 및 봉사활동항목의 생활시간량

직장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 및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으로 8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과 서비스·판매직이 3분, 단순노무직이 2분, 전문직 및 사무직, 기능직이 각각 1분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노무직 등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수준이 낮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참여봉사활동을 하며 전문직 및 사무직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참여봉사를 적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5〉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전문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0	0:00	0:00	0:00
지역 공동체 활동	0:00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1	0:01	0:00	0:01
자원봉사	0:00	0:00	0:01	0:00
계	0:01	0:01	0:01	0:01
기술직 및 준전문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1	0:02	0:02	0:01
지역 공동체 활동	0:00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1	0:00	0:00	0:01
자원봉사	0:01	0:00	0:01	0:01
계	0:03	0:02	0:03	0:03
사무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1	0:01	0:01	0:01
지역 공동체 활동	0:00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0	0:00	0:00	0:00
자원봉사	0:00	0:00	0:00	0:00
계	0:01	0:01	0:01	0:01
서비스·판매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1	0:01	0:01	0:01
지역 공동체 활동	0:01	0:00	0:00	0:01
사회참여 활동	0:01	0:01	0:00	0:01
자원봉사	0:00	0:00	0:00	0:00
계	0:03	0:02	0:01	0:03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5	0:05	0:05	0:05
지역 공동체 활동	0:02	0:02	0:02	0:02
사회참여 활동	0:01	0:00	0:00	0:01
자원봉사	0:00	0:00	0:01	0:00
계	0:08	0:07	0:08	0:08

〈표 4-5〉 계속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기능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1	0:01	0:01	0:01
지역 공동체 활동	0:00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0	0:00	0:00	0:00
자원봉사	0:00	0:00	0:00	0:00
계	0:01	0:01	0:01	0:01
단순 노무직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1	0:02	0:03	0:01
지역 공동체 활동	0:00	0:01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1	0:00	0:00	0:01
자원봉사	0:00	0:00	0:00	0:00
계	0:02	0:03	0:03	0:02

직종별로는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각각 5분 2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사회참여활동에는 서비스 판매직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는 기술공 및 준전문직만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요일 평균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 및 실천정도가 매우 희박하다고 보겠다.

마. 교제 및 여가활동항목의 생활시간량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4시간 20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교제 및 여가활동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4시간 19분), 기술직 및 준전문직(4시간 12분), 사무직(4시간), 단순노무직(3시간 50분), 기능직(3시간 43분), 서비스·판매직(3시간 30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교제 및 여가활동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전문직				
교제활동	0:38	0:56	1:10	0:45
대중매체 이용	1:40	2:20	3:12	1:59
- TV시청	1:12	1:51	2:41	1:30
일반인의 학습	0:11	0:12	0:13	0:12
종교활동	0:08	0:11	0:35	0:12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3	0:06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8	0:30	0:40	0:23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2	0:49	0:50	0:44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3	0:03	0:02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1	0:02	0:01
계	6:39	5:05	6:51	4:19
기술직 및 준전문직				
교제활동	0:42	0:53	1:04	0:47
대중매체 이용	1:36	2:24	3:24	1:58
- TV시청	1:14	1:54	2:49	1:33
일반인의 학습	0:10	0:06	0:10	0:09
종교활동	0:06	0:11	0:31	0:10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2	0:05	0:02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3	0:23	0:39	0:18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2	0:49	0:57	0:45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2	0:03	0:02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1	0:00	0:01
계	3:32	4:51	6:53	4:12
사무직				
교제활동	0:40	0:57	1:15	0:48
대중매체 이용	1:36	2:01	3:15	1:54
- TV시청	1:15	1:42	2:47	1:32
일반인의 학습	0:12	0:08	0:13	0:12
종교활동	0:03	0:06	0:24	0:06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2	0:06	0:07	0:03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2	0:18	0:29	0:15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5	0:45	0:47	0:3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5	0:06	0:03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0	0:01	0:01
계	3:23	4:26	6:37	4:00

〈표 4-6〉 계속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서비스·판매직				
교제활동	0:43	0:48	0:59	0:46
대중매체 이용	1:40	1:46	2:11	1:45
- TV시청	1:25	1:32	1:58	1:31
일반인의 학습	0:04	0:02	0:03	0:04
종교활동	0:06	0:06	0:20	0:08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1	0:02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1	0:11	0:15	0:1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3	0:34	0:36	0:34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2	0:02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0	0:00
계	3:19	3:30	4:28	3:30
농업·임업·어업숙련직				
교제활동	0:49	0:56	1:06	0:52
대중매체 이용	2:15	2:18	2:36	2:19
- TV시청	2:06	2:11	2:27	2:10
일반인의 학습	0:02	0:01	0:01	0:02
종교활동	0:03	0:03	0:11	0:04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2	0:02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09	0:09	0:08	0:09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52	0:52	0:55	0:52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0	0:00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1	0:00
계	4:11	4:21	5:00	4:20
기능직				
교제활동	0:35	0:43	1:08	0:41
대중매체 이용	1:47	1:56	3:00	1:59
- TV시청	1:33	1:42	2:44	1:44
일반인의 학습	0:02	0:02	0:02	0:02
종교활동	0:03	0:04	0:15	0:05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1	0:02	0:00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2	0:16	0:28	0:15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9	0:43	0:48	0:41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0	0:01	0:02	0:00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0	0:00
계	3:18	3:46	5:45	3:43

〈표 4-6〉 계속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단순 노무직				
교제활동	0:39	0:46	1:12	0:45
대중매체 이용	1:54	2:07	2:53	2:04
- TV시청	1:45	1:55	2:42	1:55
일반인의 학습	0:03	0:02	0:03	0:03
종교활동	0:05	0:06	0:18	0:07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2	0:03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0	0:12	0:18	0:11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6	0:39	0:45	0:3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0	0:00
계	3:28	3:55	5:33	3:50

교제 및 여가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종사자의 세부적인 여가활동을 보면 대중매체 이용이 2시 19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제활동(52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52분), 스포츠·집밖의 레저활동(9분), 종교활동(4분), 일반인의 학습(2분),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1분)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여가생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임업·어업숙련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TV를 보는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여가활용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등 문화적 활동으로 인한 여가생활은 두 활동 항목을 합하여도 10분(3.8%)으로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다.

바.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직종별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기술직 및 준전문직의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요일 평균 1시간 30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무직으로 1시간 20분, 전문직 1시간 19분, 기능직 1시간 9분 순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직업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으로 45분이었다. 이는 직업 특성이 이동거리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4-7〉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이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전문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개인유지관련 이동	0:05	0:06	0:07	0:06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30	1:17	0:25	1:19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2	0:01	0:01	0:02
가정관리관련이동	0:03	0:07	0:09	0:04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3	0:05	0:04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0	0:00	0:00	0:00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	0:19	0:50	0:81	0:32
기타 이동	0:00	0:00	0:00	0:00
계	2:03	2:27	2:08	2:07
기술직 및 준전문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개인유지관련 이동	0:04	0:05	0:06	0:04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44	1:20	0:28	1:30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5	0:02	0:01	0:04
가정관리관련이동	0:03	0:08	0:11	0:0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3	0:04	0:05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1	0:00	0:01	0:0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	0:20	0:42	0:65	0:30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계	2:21	2:22	1:58	2:18
사무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개인유지관련 이동	0:04	0:05	0:05	0:04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32	1:19	0:19	1:20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3	0:01	0:01	0:02
가정관리관련이동	0:04	0:08	0:09	0:0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2	0:05	0:04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0	0:00	0:00	0:00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	0:18	0:40	1:20	0:30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계	2:04	2:19	1:59	2:05

〈표 4-7〉 계속

이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서비스·판매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개인유지관련 이동	0:04	0:04	0:03	0:04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00	0:55	0:39	0:56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3	0:02	0:00	0:02
가정관리관련이동	0:06	0:06	0:07	0:06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3	0:03	0:03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1	0:00	0:01	0:0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	0:15	0:22	0:41	0:20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계	1:33	1:33	1:34	1:33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2	0:02	0:01	0:02
개인유지관련 이동	0:09	0:08	0:06	0:08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0:46	0:44	0:39	0:45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1	0:02	0:00	0:01
가정관리관련이동	0:05	0:06	0:04	0:0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3	0:02	0:02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1	0:01	0:01	0:0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	0:15	0:21	0:27	0:17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계	1:22	1:26	1:20	1:22
기능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개인유지관련 이동	0:04	0:04	0:05	0:04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14	1:14	0:36	1:09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0	0:00	0:00	0:00
가정관리관련이동	0:04	0:04	0:06	0:04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2	0:03	0:04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0	0:00	0:00	0:00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이동	0:13	0:25	1:00	0:21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계	1:38	1:51	1:52	1:42
단순노무직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2	0:02	0:01	0:02
개인유지관련 이동	0:04	0:04	0:04	0:04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1:02	0:56	0:32	0:57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	0:01	0:01	0:00	0:01
가정관리관련이동	0:06	0:08	0:09	0:07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03	0:04	0:02	0:03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0	0:00	0:01	0:00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	0:13	0:23	0:47	0:19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계	1:31	1:38	1:36	1:33

이동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토요일에 어느 직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으로 인한 이동시간이 더 많은 이동시간을 소요하는 지 분석해본 결과 기술직 및 준전문직은 토요일에 1시간 20분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이동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무직(1시간 19분), 전문직(1시간 17분), 기능직(1시간 14분), 단순노무직(56분), 서비스·판매직(55분), 농업·임업·어업숙련직(44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직장인의 시간관리 및 여유시간 활용실태

직종별 시간부족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시간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가장 시간을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 직종은 기술직 및 준전문직(88.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88.2%), 사무직(85.1%) 순으로 시간을 부족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농업·임업·어업숙련직(70.1%)과 단순노무직(68.8%)도 상당수가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표 4-8〉 직장인의 시간부족 여부

(단위: %)

구 분	시간부족 여부				계
	전혀 느끼지 않음	거의 느끼지 않음	가끔 느낌	항상 느낌	
전문직	2.4	9.4	49.5	38.7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2.0	9.4	52.2	36.4	100.0
사무직	2.1	12.7	51.7	33.5	100.0
서비스·판매직	4.4	16.5	43.5	35.6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8.4	21.5	37.4	32.7	100.0
기능직	4.3	15.8	48.0	31.9	100.0
전체 단순노무직	7.2	24.0	41.5	27.3	100.0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 때문으로 그 비율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81.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72.5%), 기술직 및 준전문직(68.8%), 기능직(67.1%), 사무직(64.0%) 순으로 나타났다. 일 다음으로

는 자녀양육 및 집안일, 혹은 교제 및 사회활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제 및 사회활동으로 인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14.0%), 사무직(13.7%), 전문직(11.7%)순으로 나타나 반면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는 단순노무직(18.8%), 서비스·판매직(16.5%), 농업·임업·어업숙련직(12.7%) 순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직종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부족한 이유는 전문직과 비전문직간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직장인의 시간부족 이유

(단위: %)

구 분	시간부족 이유					계
	일(학습) 때문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	시간관리를 못해서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문직	72.5	6.8	3.8	11.7	5.2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68.8	5.5	7.0	14.0	4.7	100.0
사무직	64.0	9.1	9.0	13.7	4.2	100.0
서비스·판매직	62.9	16.5	6.9	8.8	4.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81.5	12.7	2.4	1.4	2.0	100.0
기능직	67.1	10.3	5.9	8.9	7.8	100.0
단순노무직	63.0	18.8	6.6	6.4	5.2	100.0

註: 1) 기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후 위의 다섯 가지 경우 외의 그 나머지 경우만을 다루어 자료처리에서는 제외함.

직장인들이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비율은 약 30~40%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기능직(48.8%)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44.6%), 단순노무직(43.6%) 순이었다. 또한 직장인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능직(51.8%)이나 단순노무직(52.3%) 서비스판매직(45.3%)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가활용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경제요인과 여가활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4-10〉 직장인의 여유시간에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경험여부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항상 있음	계
전문직	21.7	45.2	30.1	3.0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17.9	40.9	35.4	5.8	100.0
사무직	15.1	42.6	38.2	4.1	100.0
서비스·판매직	17.6	37.8	36.4	8.2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22.3	41.1	29.6	7.0	100.0
기능직	15.2	36.0	41.2	7.6	100.0
단순노무직	18.6	37.8	36.2	7.4	100.0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 직장인들은 경제적 여유 외에 ‘피곤하거나 아프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문직(29.9%), 서비스·판매직(27.0%), 기술직 및 준전문직(25.8%)이나 그 외 직종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 때문에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땅히 갈곳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전문직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19.1%, 기술직 및 준전문직이 16.9%로 나타나 직업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유시간에 찾아 갈 만한 곳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종상 업무시간대 특성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여유시간을 활용할 만한 여행정보나 활용정보가 요망된다.

〈표 4-11〉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

(단위: %)

구 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피곤하거나 아파서	계
전문직	25.4	11.4	24.1	9.2	29.9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36.7	12.6	16.9	7.9	25.8	100.0
사무직	40.6	12.0	17.9	7.2	22.3	100.0
서비스·판매직	45.2	9.9	12.3	5.6	27.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36.2	14.6	19.1	6.0	24.0	100.0
기능직	51.8	9.3	12.4	6.1	20.3	100.0
단순노무직	52.3	8.7	15.0	5.5	18.5	100.0

註: 1) 기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후 위의 다섯 가지 경우 외의 그 나머지 경우만을 다루어 자료처리에서는 제외함.

직장인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상당수가 '피곤하거나 아프다'고 응답하였는데 '피곤함을 느끼는가'에 대해 직장인들의 80% 이상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상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직장인들도 무려 30% 이상 달하고 있어 한국 직장인들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에 대한 자각율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유지 항목에서 건강관리나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스포츠 등에 사용하는 시간량에서도 나타난 바, 40대 중반 남성 사망률의 주요 요인이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스트레스 등인 점을 상기해 볼 때 향후 직장인들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표 4-12〉 직장인의 피곤 유무¹⁾

(단위: %)

구 분	피곤 유무				계
	전혀 느끼지않음	거의 느끼지않음	가끔 느낌	항상 느낌	
전문직	1.4	12.0	53.5	33.1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1.9	12.4	52.8	32.9	100.0
사무직	2.2	14.4	54.2	29.2	100.0
서비스·판매직	2.9	13.7	38.6	44.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2.6	14.2	41.7	41.5	100.0
기능직	1.6	8.2	46.4	43.8	100.0
단순노무직	3.3	13.8	40.4	42.5	100.0

註: 1) 평소 업무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임.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업무량이 많거나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문직(62.3%), 사무직(60.5%)이 높았고, '일 자체가 힘들어서'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는 직종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82.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70.7%), 서비스·판매직(60.7%)으로 나타났다.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종사자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하기보다는 일 자체의 강도가 높아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피곤함을 항상 느낀다는 비율도 41.5%에 달하였다.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일 자체가 피곤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낮은 순위에 속하는 것에 반해,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하

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높은 순위에 속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이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강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량이 많기 때문에 피곤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직장인의 피곤한 이유

(단위: %)

구 분	피곤한 이유				계
	업무량이 많아서	일자체가 힘들어서	근무여건 (시설·환경)이 나빠서	직장내 인간관계 때문에	
전문직	62.3	24.2	6.3	7.3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55.1	30.6	8.8	5.6	100.0
사무직	60.5	21.3	10.3	7.8	100.0
서비스·판매직	25.3	60.7	11.2	2.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16.0	82.7	1.3	0.0	100.0
기능직	26.4	59.7	11.6	2.3	100.0
단순노무직	16.9	70.7	11.2	1.2	100.0

註: 1) 기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후 위의 네 가지 경우 외의 그 나머지 경우만을 다루어 자료처리에서는 제외함.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살펴보면 보통 1주일에 하루 쉬고 있으나 농업·임업·어업숙련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격주로 휴무하는 경우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10.4%)과 사무직(10.0%)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경우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10.0%)이 가장 많았다. 매 2주에 하루만 쉬는 경우는 서비스·판매직(13.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직에 비해 비전문직의 경우 휴일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근무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4-14〉 직장인의 정기적 휴무일

(단위: %)

구 분	정기적으로 쉬는 날					계
	일주일 하루	토요일 격주 휴무	일주일 이틀	매 2주 하루만	정해진 휴일없이 수시로 쉬	
전문직	69.4	8.5	7.7	2.6	11.8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60.9	10.4	10.0	3.1	15.6	100.0
사무직	74.6	10.0	5.8	3.0	6.6	100.0
서비스·판매직	38.3	1.6	4.1	13.8	42.2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직	1.6	-	0.1	0.3	98.0	100.0
기능직	54.2	5.9	4.0	6.5	29.4	100.0
단순노무직	39.5	2.6	9.1	5.6	43.2	100.0

V.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출산력 저하에 의한 자녀수 감소,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생산노동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등의 재생산 노동도 모두 담당토록 함으로써 이중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과 갈등을 겪게 한다. 즉,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고용노동이나 가사노동 등의 총 노동량은 남성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들의 노동량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은 기혼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적응이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활용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생활시간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배우부인의 경우 요일 평균 개인유지시간은 9시간 50분으로 하루의 41.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하는 시간 5시간 58분(24.8%), 교제 및 여가활동 3시간 4분(12.8%), 가정관리 2시간 58분(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는, 개인유지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22분(43.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제 및 여가활동이 5시간 42분(23.7%), 가정관리가 4시간 39분(19.4%), 가족 보살피기가 1시간 40분(6.9%)이었다.

〈표 5-1〉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요일 평균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개인유지	9:50(41.0)	10:22(43.2)
일	5:58(24.8)	0:11(0.8)
학습	0:01(0.1)	0:00(0.0)
가정관리	2:58(12.4)	4:39(19.4)
가족 보살피기	0:35(2.4)	1:40(6.9)
참여봉사활동	0:03(0.2)	0:02(0.1)
교제 및 여가활동	3:04(12.8)	5:42(23.7)
이동	1:21(5.6)	1:13(5.1)
기타	0:10(0.7)	0:11(0.8)
계	24:00(100.0)	24:00(100.0)

이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부인의 1일 생활시간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경제활동참여 부인과 참여하지 않는 부인 모두 1일 중 개인유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하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부인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 외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에 있어서 경제활동 참여 부인보다 참여하지 않는 부인이 소요하는 시간이 더욱 많았다. 가정관리시간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 경우 2시간 58분이었는데,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4시간 39분에 비해 1시간 41분이나 적은 시간이다.

가족 보살피기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이 35분만을 소요하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시간 40분을,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은 3시간 4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5시간 42분으로 2시간 38분이 더 길며 1일 중 약 1/4를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소요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이 5시간 58분으로 1일 중 24.9%를 일하는데 보내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단지 11분만을 일하는데 보내며, 이동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 각각 1시간 21분과 1시간 13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요일별로도 생활시간 활용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1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개인유지 시간의 경우도 평일(9시간 41분)

보다는 토요일(9시간 49분)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10시간 34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대로 일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일이 가장 많아 6시간 25분이며, 토요일 5시간 50분, 일요일 3시간 49분으로 휴일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관리는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개인유지 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34분 정도 더 소비하나 가정관리는 평일보다 감소하여 경제활동참여부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부표 7 참조)

한편 가족 보살피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이나 참여하지 않는 부인 모두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 감소폭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 경우 평일에서 토요일이 1분,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1분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 경우 가족 보살피기 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이 9분 감소하였고,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16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 부인의 경우 평일이나 주말 등에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가족을 보살피는 다른 가족원이나 대리인 등이 있어 요일에 따른 시간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는 평일보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 다른 가족원들이 줄어드는 일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족 보살피기에 할애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부인의 경우 평일에 일을 함으로써 절대시간 부족에 따라 돌볼 수 없었던 가정관리를 휴일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경제활동참여부인들이 일과 가사에 따른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 모두 평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그 증가폭이 점차 커져 평일에 2시간 52분에서 토요일에 3시간 9분으로 약 17분 정도 증가하나 일요일에는 4시간 2분으로 평일에 비해 1시간 10분, 토요일에 비해 53분 정도 더 할애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부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에 비해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경제활동으로 인한 절대시간 부족으로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또한 짧아짐으로써 일과 교제 및 여가활동간에는 상반되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및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가.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개인유지 생활시간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면, 식사 및 간식시간과 개인관리, 건강관리 및 기타 개인관리유지 생활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유지 생활시간 중에는 수면시간의 비중이 가장 높아 경제활동참여부인은 7시간 24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7시간 46분보다 22분 정도 더 적으며, 전체 개인유지 생활시간 중 75%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은 식사 및 간식시간으로 이 경우에도 경제활동참여부인(1시간 32분)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1시간 38분)이 6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관리 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은 50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46분으로 경제활동 참여 부인의 4분 정도 더 할애하고 있다.

개인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가운데 건강관리는 본인이 직접 치료하거나 전문의료인이 아닌 가족 및 이웃의 치료를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물리치료, 산후조리원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아파서 다른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있다.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4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에는 요일 평균 12분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참여부인 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이 더 많은 시간을 건강관리에 할애하고 있다.

〈표 5-2〉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수면	7:16	7:22	8:04	7:24	7:42	7:40	8:11	7:46
식사 및 간식	1:31	1:32	1:36	1:32	1:36	1:41	1:43	1:38
개인관리	0:50	0:50	0:50	0:50	0:46	0:47	0:50	0:46
건강관리	0:04	0:05	0:04	0:04	0:13	0:11	0:07	0:12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9:41	9:49	10:34	9:50	10:17	10:19	10:51	10:22

각 개인유지에 할애하는 시간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수면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 모두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평일 7시간 16분에서 토요일 7시간 22분, 일요일 8시간 4분을 할애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는 평일 7시간 42분에서 토요일에 7시간 40분, 일요일에는 8시간 11분을 사용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부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식사 및 간식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 모두 평일보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간에 요일별 식사 및 간식시간의 차이는 평일은 5분, 토요일은 9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7분 정도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에 비해 식사 및 간식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다.

개인관리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은 요일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경제활동비참여 부인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약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시간은 경제활동참여부인은 평일 4분인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3분, 토요일은 경제활동참여부인 5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 11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은 4분인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7분으로 경제활동참여부인은 요일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경제활동참여부인에 비해 요일별 차이를 보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다 오히려 평일에 건강관리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

나.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5시간 58분을 일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는 1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세부항목별 생활시간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부인은 전체 일에 소요하는 시간(5시간 58분)중 고용된 일이나 자영업 종사에 요일

평균 4시간 16분을 소요함으로써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림어업 외의 무급가족종사자 일에 54분을, 그리고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 일에 44분을 소요하고 있다. 그 외 자가소비를 위한 농·임·어업 일과 일 관련 물품구입에 약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인은 일에 소요하는 시간 전체가 1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부항목별 시간활용 실태는 미미한 수준으로 자가소비를 위한 농·임·어업 일 5분, 고용된 일이나 자영업 종사에 4분, 그리고 농·임·어업의 무급가족종사자 일과 농림어업 외의 무급 가족종사자 일에 각 1분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평일은 6시간 25분, 토요일은 5시간 50분, 일요일은 3시간 49분을 일하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는 평일에 10분, 토요일 7분, 그리고 일요일에 9분을 소요하고 있다.

〈표 5-3〉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4:41	4:09	2:21	4:16	0:04	0:02	0:01	0:04
무급가족종사일	0:56	0:54	0:44	0:54	0:01	0:00	0:00	0:01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45	0:42	0:39	0:44	0:01	0:01	0:02	0:01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2	0:04	0:04	0:03	0:04	0:04	0:06	0:05
구직활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일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기타 일 관련행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6:25	5:50	3:49	5:58	0:10	0:07	0:09	0:11

세부항목별 요일별 일에 소요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고용된 일이나 자영업 종사에 평일에는 4시간 41분, 토요일에 4시간 9분, 그리고 일요일에 2시간 21분을 소요하여 휴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적으며, 그 다음은 농림어업 외의 무급 가족종사자 일로써 이 역시 평일(56분)보다 토요일(54분)이나 일요일(44분)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은 그 활동시간이 미미하나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평일: 2분, 토요일, 일요일: 4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는 전체 일에 소비하는 시간의 약 절

반을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에 할애하고 있으며, 평일(4분)이나 토요일(4분)보다 일요일(6분)에 더 많이 소요하고 있다.

다.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가정관리란 자신의 가족 및 가구를 위한 가정유지 및 관리 행동으로 요리, 세탁, 청소, 물품구입, 가정경영 등 가사 일이 포함되어있는 활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는 24시간 중 요일 평균 2시간 58분(12.4%)을 사용하였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요일 평균 4시간 39분(19.4%)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보다 약 1시간 41분을 가정관리를 위해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의 세부활동별 시간을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음식준비 및 정리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은 요일 평균 1시간 44분을 사용하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43분을 더 사용하여 2시간 26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의류관리나 청소 및 정리, 집관리, 물품구입, 가정경영 등 가정관리의 다른 항목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가정관리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음식준비 및 정리	1:41	1:43	1:57	1:44	2:27	2:29	2:21	2:26
의류관리	0:23	0:25	0:32	0:25	0:44	0:44	0:34	0:43
청소 및 정리	0:32	0:34	0:40	0:33	0:55	0:57	0:48	0:54
집관리	0:02	0:03	0:03	0:02	0:05	0:05	0:05	0:05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11	0:14	0:15	0:12	0:26	0:27	0:22	0:26
가정경영	0:03	0:02	0:01	0:02	0:06	0:04	0:02	0:05
기타 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2:52	3:01	3:28	2:58	4:43	4:46	4:12	4:39

요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들의 시간 사용은 음식 준비, 의류관리, 청소,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에 평일보다는 주말로 갈수록 시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들의 경우는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외 의류관리는 평일이나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가정경영은 평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시간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집관리 항목은 요일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가정관리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들의 가정관리와 일과의 병행을 위한 시간사용의 고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라.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가족을 보살피기 위한 시간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35분을 사용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들은 1시간 40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간의 시간활용상 차이를 보여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보살피는 데 있어 경제활동참여부인은 31분을 소요하는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는 1시간 28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아동 보살피기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은 18분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시간 10분으로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및 조부모 등의 기타 가족원을 보살피기에 있어서 경제활동참여부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약 1/3에 불과하여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가족을 보살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평일은 35분, 토요일은 34분, 일요일은 33분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들은 평일에 1시간 45분, 토요일은 1시간 34분, 일요일은 1시간 18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 보살피기 시간은 부인들 모두 주말로 갈수록 시간량이 감소하고는 있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부인의 가족 보살피기 시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보다 약 1시간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세부항목별 사용시간을 보면,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미취학 아동을 보살피는 시간은 요일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욱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나 부모 등 그 외 가족 보살피는 시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부인의 미취학아동 보살피는 시간은 오히려 주말에 더욱 감소하여 경제활동참여부인과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초·중·고등학생과 배우자 등을 보살피는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감소하고, 부모 및 조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은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간 증가하였으며, 그 외 기타 가족 보살피는 시간은 토요일에만 약간 증가하고 일요일에는 평일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5-5〉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가정관리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18	0:18	0:19	0:18	1:13	1:07	0:58	1:1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13	0:10	0:08	0:13	0:20	0:14	0:10	0:18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3	0:03	0:02	0:07	0:06	0:04	0:06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그 외 가족 보살피기	0:01	0:02	0:02	0:01	0:04	0:05	0:04	0:04
계	0:35	0:34	0:33	0:35	1:45	1:34	1:18	1:40

마.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유배우부인들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량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24시간 중 3분

을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24시간 중 2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세부항목별로는 유배우부인 모두 경제활동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와 자원봉사에 매우 적은 시간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요일별로는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평일이나 주말이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용시간 자체가 미미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에 비해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 참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향후 유배우부인의 유휴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역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6〉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지역 공동체 활동	0:00	0:01	0:01	0:00	0:01	0:00	0:00	0:00
사회참여 활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원봉사	0:01	0:00	0:00	0:01	0:02	0:00	0:01	0:01
계	0:03	0:03	0:03	0:03	0:05	0:02	0:02	0:02

바.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교제 및 여가활동은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시간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활동항목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3시간 4분으로 24시간 중 12.7%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24시간 중 23.8%에 해당하는 요일 평균 5시간 42분을 사용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는 유배우부인 모두 대중매체 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경제활동참여부인: 1시간 37분, 경제활동 비참여 부인: 2시간 56분), 그 다음은 교제활동(경제활동참여부인: 43분, 경제활동 비참여 부인: 1시간 12분), 그리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경제활동참여부인: 27분, 경제활동 비참여 부인: 39분)의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평일에는 2시간 52분, 토요일은 3시간 9분, 일요일은 4시간 2분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평일 5시간 38분, 토요일 5시간 45분, 일요일에 5시간 56분을 사용하여 평일보다는 주말에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유배우부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활동은 대중매체 이용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1시간 37분(52.7%),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인은 2시간 56분(51.5%)을 사용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평일에 1시간 31분, 토요일에 1시간 40분, 일요일에 2시간 6분을 대중매체 이용에 사용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평일에 2시간 52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3시간 6분과 3시간 7분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보다 약 1시간이 많았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를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대화, 모임,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 활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의 경우 요일 평균 43분이었으며,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평일보다는 오히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제활동 시간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과는 평일에는 33분,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28분과 15분의 차이를 보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들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은 일요일에 약간 증가(평일·토요일: 24분, 일요일 25분)하는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 감소하여 평일 40분에서 토요일 37분,

일요일 33분을 소요하고 있다.

한편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기도나 경전 읽기, 종교관련 tape 듣기 등의 개인적 종교활동이나, 교회·성당·절 등 종교 집회에 참석하기, 교인들 식사 준비 등 종교관련 행동이 포함된 종교활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보다 12분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요일 평균 22분을 종교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평일에는 19분, 토요일은 18분, 일요일은 39분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평일에 8분 토요일에는 10분, 일요일에는 26분을 소요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이 평일과 토요일에는 각각 12분과 8분, 일요일에는 13분을 더 할애하였다.

〈표 5-7〉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교제활동	0:40	0:44	0:54	0:43	1:13	1:12	1:09	1:12
대중매체 이용 (TV시청)	1:31 (1:23)	1:40 (1:33)	2:06 (2:00)	1:37 (1:30)	2:52 (2:34)	3:06 (2:49)	3:07 (2:54)	2:56 (2:14)
일반인의 학습	0:02	0:01	0:01	0:02	0:08	0:05	0:02	0:07
종교활동	0:08	0:10	0:26	0:11	0:19	0:18	0:39	0:22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1	0:02	0:00	0:01	0:02	0:02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06	0:08	0:07	0:06	0:22	0:21	0:22	0:22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24	0:24	0:25	0:24	0:40	0:37	0:33	0:39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3	0:03	0:02	0:03
기타 여가관련활동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계	2:52	3:09	4:02	3:04	5:38	5:45	5:56	5:42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평일이나 주말에 약 20여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평일이나 주말에 약 6~8분을 사용하는데 불과하였다. 전술한 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시간사용량이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 또한 걷기나 산책, 등산, 하이킹, 헬스나 에어로빅 등 체력단련 개인운동, 드라이브나 쇼핑 등 스

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건강 및 체력관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사.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이동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1시간 21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인(1시간 13분)보다 다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세부항목별로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을 위한 시간 사용량(46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 이동(16분), 가정관리 관련이동(9분)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교제 활동 및 여가관련 이동에 가장 많은 시간(35분)을 사용하였으며, 시간(35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정관리 관련 이동(20분), 그리고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8분)의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 참여부인은 토요일 이동관련 시간(1시간 24분)이 가장 많았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인은 일요일 이동 관련 시간(1시간 23분)이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항목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의 경우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상당히 감소(26분)하였고,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 이동은 평일보다 토요일에 8분, 일요일에 25분 정도 증가하였으며, 가정관리 관련 이동은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2분 정도 늘어났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 이동은 평일보다 토요일에 8분, 그리고 일요일에 25분 증가하였고, 가정관리 관련 이동과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은 평일과 토요일 보다 일요일에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인 모두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 이동만이 평일보다 증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다른 이동시간은 감소하는 양상이다.

〈표 5-8〉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개인유지관련 이동	0:04	0:05	0:04	0:04	0:06	0:06	0:05	0:06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 이동	0:51	0:44	0:26	0:46	0:02	0:01	0:02	0:02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관련이동	0:09	0:11	0:11	0:09	0:21	0:21	0:16	0:20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4	0:04	0:04	0:04	0:09	0:08	0:04	0:08
참여 및 봉사관련이동	0:01	0:00	0:00	0:01	0:01	0:01	0:00	0:0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이동	0:11	0:19	0:36	0:16	0:30	0:38	0:55	0:35
기타이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1:21	1:24	1:22	1:21	1:10	1:16	1:23	1:13

4. 유배우부인의 시간관리 및 여유시간 활용실태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유배우 부인이 느끼는 시간부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가운데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83.7%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부인의 53.6%만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9〉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시간부족 여부

(단위: %)

구 분	전혀 느끼지 않음	거의 느끼지 않음	가끔 느낌	항상 느낌	계
경제활동	3.3	13.0	41.6	42.1	100.0
비경제활동	12.8	33.6	43.2	10.4	100.0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 부인들의 그 주된 이유를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일 때문인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이 30.2%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한 경우가 70.3%, 그리고 시간관리를 못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는 11.0%이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일과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을 함으로써 그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보다 자녀양육 및 집안일 을 하는데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육아와 가사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보다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시간부족 이유

(단위: %)

구 분	일(학습) 때문	자녀양육 및 집안일 때문	시간관리를 못해서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
경제활동	59.9	30.2	3.4	4.1	2.4	100.0
비경제활동	7.8	70.3	11.0	8.7	2.2	100.0

註: 1) 기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후 위의 다섯 가지 경우에 부호화하였고 그 나머지 경우만을 다루어 자료처리에서는 제외함.

여유시간 활용과 관련하여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을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42.6%,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43.3%이다.

〈표 5-11〉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유시간에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경험여부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항상 있음	계
경제활동	20.1	37.3	35.1	7.5	100.0
비경제활동	17.7	39.0	38.2	5.1	100.0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46.4%) 피곤함 혹은 아프기 때문에(30.6%)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0.6%에 달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45.3%) 여유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10.2%), 피곤하거나 아파서(16.4%),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11.1%),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8.0%) 여유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보다 시간활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여유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인이 40%를 상회하고 있어 지역사회나 민간단체 등에서 유배우부인들의 여유시간활용에 대한 정보 및 홍보의 제공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부인의 흥미와 취미를 고취시키고 여유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5-12〉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

(단위: %)

구 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피곤하거나 아파서	계
경제활동	46.4	8.8	10.3	3.9	30.6	100.0
비경제활동	45.3	11.1	19.2	8.0	16.4	100.0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가운데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5.2%로 나타났다(표 5-13 참조). 피곤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 자체가 힘들어서(64.2%), 업무량이 많아서(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의 피곤함 느끼는지 여부¹⁾

(단위: %)

구 분	전혀 느끼지 않음	거의 느끼지 않음	가끔 느낌	항상 느낌	계
경제활동을 하는 유배우 부인	2.3	12.5	38.4	46.8	100.0

註: 1) 평소 업무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직장에서의 노동강도와 업무량 때문에 약 90.6% 가량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이 일 때문에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피곤하거나 아파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은 직장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가사노동, 육아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14〉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의 피곤한 이유

(단위: %)

구 분	업무량이 많아서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근무여건 (시설·환경)이 나빠서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계
경제활동을 하는 유배우 부인	26.4	64.2	7.1	2.3	100.0

정기적으로 쉬는 날에 대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45.3%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으며, 매 2주에 하루만 쉬는 부인도 7.4%로 나타났다. 한편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쉰다고 응답한 경우도 36.7%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임업·수산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면서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을 하는 부인들의 경우로 추정된다.

〈표 5-15〉 경제활동참여 유배우부인의 정기적 휴무일

(단위: %)

구 분	일주일에 하루	격주 토요일	일주일에 이틀	매 2주에 하루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쉰	계
경제활동을 하는 유배우 부인	45.3	3.7	6.9	7.4	36.7	100.0

VI.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우리는 노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한국노인들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업이나 경제활동이 생활시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비노인층에 비하여 다른 시간이용 행태를 갖고 있을 것이다. 본 장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자기관리 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생활시간조사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비노인층의 여가활동유형과 시간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들을 동일한 집단(homogeneous group)으로 보기보다는 신체,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노인의 각 특성에 따른 생활시간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2. 노인의 생활시간 구성

가. 노인의 제 특성별 생활시간 구성

노인의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이 수면,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11시간 19분으로 하루 24시간 중 47.2%를 차지하여 그 다음으로 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활동은 교제 및 여가로 하루 24시간 중 29.3%에 해당하는 7시간 2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8분으로 하루일과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 생활에서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하루 일과 중 가정관리로 할애된 시간은 1시간 57분(8.1%), 이동에는 1시간 3분(4.4%)이었으며,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용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고, 학습시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 참조)

노인의 생활시간 구성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높아 4시가 28분으로 하루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 거주 노인의 1시간 10분이나 비농가에 거주하는 노인의 1시간 28분에 비하여 거의 3시간 정도가 많은 것인데, 농업이 은퇴연령이 없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교제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농가 거주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비농가가구 노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이 많아서 7시간 52분과 7시간 24분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5시간 17분에 비하여 약 2시간 정도가 많은 편이었다.

노인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하여 일(10.9%), 교제 및 여가활동(31.8%), 이동(5.3%)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약간 많았고, 여자노인은 가정관리(11.7%) 및 가족 보살피기(1.2%)등의 활동에 남자노인에 비해 활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인의 생활시간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일,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등의 활동은 줄어들고 있으나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69세 연령층의 근로시간은 2시간 54분으로 나타난 반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시간은 55분이며, 하루의 54.2%에 해당하는 13시간을 개인유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별 생활시간구성을 보면 유배우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무배우 노인보다 비중을 두는 활동은 일,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개인유지 및 가정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노인의 생활시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 6-1〉 노인특성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분	개인 유지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 피기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	이동	기타	계
전체	11:19 (47.2)	2:08 (8.9)	1:57 (8.1)	0:15 (1.1)	0:04 (0.3)	7:02 (29.3)	1:03 (4.4)	0:12 (0.8)	24:00 (100.0)
지역									
광역시	11:24 (47.5)	1:10 (4.9)	1:58 (8.2)	0:19 (1.3)	0:03 (0.2)	7:52 (32.8)	1:06 (4.6)	0:09 (0.6)	24:00 (100.0)
비농가	11:23 (47.4)	1:28 (6.1)	2:11 (9.1)	0:18 (1.3)	0:05 (0.3)	7:24 (30.8)	0:59 (4.1)	0:13 (0.9)	24:00 (100.0)
농가	11:06 (46.3)	4:28 (18.6)	1:37 (6.7)	0:07 (0.5)	0:06 (0.4)	5:17 (22.0)	1:05 (4.5)	0:14 (1.0)	24:00 (100.0)
성									
남자	11:20 (47.2)	2:37 (10.9)	0:42 (2.9)	0:12 (0.8)	0:04 (0.3)	7:38 (31.8)	1:16 (5.3)	0:11 (0.8)	24:00 (100.0)
여자	11:18 (47.1)	1:47 (7.4)	2:48 (11.7)	0:18 (1.2)	0:05 (0.3)	6:37 (27.7)	0:55 (3.8)	0:12 (0.8)	24:00 (100.0)
연령									
65~69세	10:42 (44.6)	2:54 (12.1)	2:08 (8.9)	0:20 (1.4)	0:05 (0.3)	6:24 (26.7)	1:15 (5.2)	0:12 (0.8)	24:00 (100.0)
70~74세	11:11 (46.6)	2:01 (8.4)	2:02 (8.5)	0:17 (1.2)	0:06 (0.4)	7:02 (29.3)	1:08 (4.7)	0:12 (0.9)	24:00 (100.0)
75~79세	11:40 (48.6)	1:27 (6.0)	1:52 (7.8)	0:09 (0.6)	0:03 (0.2)	7:45 (32.3)	0:51 (3.5)	0:11 (0.8)	24:00 (100.0)
80세 이상	13:00 (54.2)	0:55 (3.8)	1:19 (5.5)	0:08 (0.6)	0:02 (0.1)	7:55 (33.0)	0:32 (2.2)	0:09 (0.6)	24:00 (100.0)
결혼상태									
무배우	11:29 (47.8)	1:32 (6.4)	2:19 (9.6)	0:15 (1.0)	0:05 (0.3)	6:16 (30.3)	0:54 (3.8)	0:11 (0.8)	24:00 (100.0)
유배우	11:10 (46.5)	2:40 (11.1)	1:38 (6.8)	0:16 (1.1)	0:04 (0.3)	6:49 (28.4)	1:11 (5.0)	0:12 (0.8)	24:00 (100.0)
교육수준									
무학	11:37 (48.4)	2:09 (9.0)	2:08 (8.9)	0:14 (1.0)	0:05 (0.3)	6:42 (27.9)	0:53 (3.7)	0:12 (0.8)	24:00 (100.0)
초등학교	11:05 (46.2)	2:17 (9.5)	2:05 (8.7)	0:16 (1.1)	0:04 (0.3)	6:54 (28.8)	1:07 (4.7)	0:12 (0.8)	24:00 (100.0)
중학교	10:55 (45.6)	2:10 (9.0)	1:29 (6.3)	0:17 (1.2)	0:05 (0.3)	7:46 (32.2)	1:06 (4.7)	0:13 (0.9)	24:00 (100.0)
고등학교	10:55 (45.5)	1:49 (7.6)	1:23 (5.8)	0:13 (0.9)	0:03 (0.2)	8:05 (33.7)	1:23 (5.7)	0:09 (0.6)	24:00 (100.0)
전문대 이상	11:00 (45.8)	1:26 (6.0)	1:10 (4.9)	0:24 (1.7)	0:04 (0.3)	8:10 (34.0)	1:38 (6.8)	0:10 (0.7)	24:00 (100.0)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는 개인유지, 일 및 가정관리 등의 활동에 비중을 두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과 이에 따른 이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 비하여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므로 여가활동에 시간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노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생활시간의 분포를 보면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역시 근로활동으로 하루에 5시간 17을 사용하고 있어 하루의 22%를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8시간 13분을 사용하여 일하는 노인의 4시간 55분에 비해 1.7배나 많이 할애하였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기술직 및 준전문직과 농·임·어업숙련직을 제외하고 전문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 및 사무직인 경우 타 직종에 비하여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로 인하여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교제 및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6-2 참조).

요일별 생활시간 구성을 비교해보면 근로시간은 평일(9.2%)에 비하여 토요일(8.9%)이나 일요일(7.3%)에 줄어드는 것은 하지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의 비중은 평일(28.9%)에 비하여 토요일(29.4%)과 일요일(31.2%)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6-3 참조).

〈표 6-2〉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분	개인 유지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 피기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	이동	기타	계
전체	11:19 (47.2)	2:08 (8.9)	1:57 (8.1)	0:15 (1.1)	0:04 (0.3)	7:04 (29.4)	1:03 (4.4)	0:12 (0.8)	24:00 (100.0)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11:46 (49.0)	0:21 (1.5)	2:10 (9.0)	0:19 (1.3)	0:04 (0.2)	8:13 (34.2)	0:56 (3.9)	0:11 (0.8)	24:00 (100.0)
경제활동	10:31 (43.9)	5:17 (22.0)	1:35 (6.6)	0:08 (0.6)	0:06 (0.4)	4:55 (20.5)	1:15 (5.2)	0:12 (0.9)	24:00 (100.0)
직업									
전문직	10:43 (44.6)	4:26 (18.5)	0:29 (2.0)	0:03 (0.2)	0:00 (0.0)	6:15 (26.3)	1:58 (8.2)	0:07 (0.5)	24:00 (10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10:00 (41.7)	4:29 (18.7)	0:53 (3.8)	0:00 (0.0)	0:00 (0.0)	7:25 (30.9)	1:06 (4.6)	0:07 (0.5)	24:00 (100.0)
사무직	9:52 (41.1)	5:04 (21.1)	0:43 (3.0)	0:12 (0.8)	0:10 (0.7)	5:43 (23.8)	2:07 (8.8)	0:09 (0.6)	24:00 (100.0)
서비스·판매직	10:16 (42.8)	5:15 (21.9)	1:50 (7.6)	0:13 (0.9)	0:07 (0.5)	5:06 (21.3)	1:02 (4.3)	0:12 (0.8)	24:00 (100.0)
농·임·어업숙련직	10:42 (44.6)	5:08 (21.4)	1:40 (6.9)	0:07 (0.5)	0:06 (0.4)	4:51 (20.2)	1:12 (5.0)	0:14 (1.0)	24:00 (100.0)
기능직	10:19 (43.0)	5:21 (22.3)	1:14 (5.1)	0:11 (0.8)	0:01 (0.1)	5:15 (21.9)	1:31 (6.3)	0:07 (0.5)	24:00 (100.0)
단순노무직	10:09 (42.3)	6:18 (26.3)	1:32 (6.4)	0:12 (0.8)	0:03 (0.2)	4:18 (17.9)	1:20 (5.6)	0:09 (0.7)	24:00 (100.0)

註: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정의가 달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표 6-3〉 노인의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분	개인 유지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 피기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	이동	기타	계
전체	11:19 (47.2)	2:08 (8.9)	1:57 (8.1)	0:15 (1.1)	0:04 (0.3)	7:02 (29.3)	1:03 (4.4)	0:12 (0.8)	24:00 (100.0)
평일	11:19 (47.1)	2:12 (9.2)	1:59 (8.3)	0:16 (1.1)	0:04 (0.3)	6:56 (28.9)	1:02 (4.3)	0:12 (0.8)	24:00 (100.0)
토요일	11:20 (47.2)	2:08 (8.9)	1:55 (8.0)	0:15 (1.1)	0:05 (0.3)	7:03 (29.4)	1:02 (4.3)	0:12 (0.8)	24:00 (100.0)
일요일	11:18 (47.1)	1:45 (7.3)	1:51 (7.7)	0:14 (1.0)	0:03 (0.2)	7:29 (31.2)	1:08 (4.7)	0:11 (0.8)	24:00 (100.0)

3.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가. 노인의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노인이 개인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총 11시간 19분 중 수면시간은 8시간 31분이며, 이중 낮잠이나 졸음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45분이다. 식사 및 간식시간은 1시간 34분으로 대부분이 가족과의 식사에 소요되고 있으며, 개인관리시간이 42분, 건강관리 시간이 33분이었다. 건강관리의 경우 건강관리를 하는 노인의 비율은 20%이며 이들의 평균적인 건강관리 시간은 2시간 44분이다.

노인이 거주지역에 따른 수면시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다른 지역거주 노인보다 식사 및 간식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간 많았는데 농가지역은 가족과의 식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광역시/비농가 거주 노인은 가족 외의 식사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개인관리시간의 경우, 농가지역 노인이 요일 평균 소요시간이 36분으로 광역시 거주 노인의 45분이나 비농가 지역거주 노인의 42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표 6-4〉 노인특성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구분	총 수면 시간	총행위시간		식사 및 간식	총행위시간			개인 관리 시간	건강 관리 시간 ¹⁾	행위자율 (행위자의 평균시간)	
		수면	낮잠, 졸음		가족과 의 식사	그 외의 식사	간식과 음료				
전체	8:31	7:46	0:45	1:34	0:56	0:26	0:12	0:42	0:33	20.0	(2:44)
지역											
광역시	8:25	7:39	0:46	1:39	0:56	0:28	0:14	0:45	0:35	21.2	(2:47)
비농가	8:36	7:49	0:47	1:32	0:51	0:29	0:12	0:42	0:32	22.5	(3:21)
농가	8:31	7:51	0:40	1:30	1:03	0:17	0:10	0:36	0:29	14.8	(2:23)
성											
남자	8:26	7:42	0:44	1:38	1:04	0:20	0:14	0:45	0:31	17.4	(3:00)
여자	8:34	7:49	0:45	1:32	0:50	0:30	0:12	0:39	0:34	21.8	(2:34)
연령											
65~69세	8:03	7:29	0:34	1:34	0:57	0:24	0:13	0:44	0:22	17.0	(2:07)
70~74세	8:28	7:44	0:44	1:34	0:52	0:29	0:13	0:41	0:29	20.2	(2:23)
75~79세	8:53	8:03	0:51	1:32	0:55	0:26	0:10	0:38	0:37	21.8	(2:52)
80세 이상	9:31	8:20	1:11	1:38	1:02	0:23	0:13	0:43	1:09	26.2	(4:22)
결혼상태											
무배우	8:43	7:52	0:51	1:31	0:42	0:37	0:12	0:40	0:35	22.0	(2:42)
유배우	8:20	7:41	0:39	1:37	1:08	0:16	0:13	0:43	0:30	18.3	(2:45)
교육수준											
무학	8:50	8:00	0:50	1:30	0:53	0:27	0:11	0:38	0:38	20.4	(3:08)
초등학교	8:20	7:37	0:43	1:34	0:57	0:24	0:13	0:42	0:30	20.4	(2:27)
중학교	8:08	7:28	0:40	1:34	0:59	0:21	0:15	0:45	0:27	20.5	(2:13)
고등학교	8:01	7:28	0:33	1:43	1:01	0:26	0:16	0:49	0:22	16.8	(2:10)
전문대 이상	7:51	7:18	0:32	1:50	1:03	0:27	0:20	0:58	0:21	18.1	(2:00)

주: 1) 본 장에서는 행위자율이 90% 이상인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자의 요일 평균소요시간을 살펴보았음.

총 수면시간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약간 많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수면시간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낮잠, 졸음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서 80세 이상의 경우 수면시간이 9시간 31분에 달하였고, 이 중 수면은 8시간 20분, 낮잠, 졸음도 1시간 11분이었다.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수면시간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면시간과 낮잠, 졸음시간도 많았다. 식사 및 간식시간은 노인특성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과의 식사시간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남자노인의 경우, 80세 이상의

노인, 유배우' 노인의 경우로 나타났다. 개인관리에 소요하는 시간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의 39분보다 약간 많은 45분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관리 시간이 많았다. 건강관리에 소요하는 시간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여 연령이 많을수록 그 시간이 증가하여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시간 9분에 달하고 있다. 연령군별 차이는 행위자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관리행위자율이 높아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6.2%가 건강관리를 행하고 있으며 요일 평균 소요시간이 4시간 22분에 달하고 있다. 이는 65~69세 연령군의 17%의 행위자율과 2시간 7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노인집단 내에서도 후기고령자의 경우 건강관리의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경제상태별로 개인유지활동을 보면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수면시간이 많았고, 낮잠, 졸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는 1차 산업(농·임·어업숙련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수면시간이 많아서 8시간 24분이었으며, 사무직 종사자가 가장 수면시간이 적어 7시간 11분이었다. 식사 및 간식시간은 경제활동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일을 하는 노인이 사무직과 전문직인 경우 타 직종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특히 사무직은 가족과의 식사 외에 다른 사람과의 식사에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관리시간은 근로여부에는 차이가 없었고, 직업이 농·임·어업숙련직 노인이 가장 적은 시간인 37분을 소요하였고, 전문직 노인은 53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건강관리에 노인이 사용하는 시간은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45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는 일을 하는 노인의 11분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단순노무직 노인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건강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건강관리를 행하는 비율은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 9.5%로 상대적으로 일을 하는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하여 건강이 좋은 편임을 볼 수 있다(표 6-5 참조).

〈표 6-5〉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구분	총 수면 시간	총행위시간		식사 및 간식	총행위시간			개인 관리 시간	건강 관리 시간	행위자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수면	낮잠, 졸음		가족과 의 식사	그 외의 식사	간식과 음료				
전체	8:31	7:46	0:45	1:34	0:56	0:26	0:12	0:42	0:33	20.0	(2:44)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8:42	7:51	0:51	1:36	0:56	0:28	0:13	0:43	0:45	25.9	(2:48)
경제활동	8:10	7:37	0:33	1:30	0:56	0:23	0:12	0:40	0:11	9.5	(-)
직업											
전문직	7:52	7:40	0:12	1:47	0:52	0:37	0:18	0:53	0:10	17.3	(0:54)
기술직 및 준전문직	7:48	7:35	0:13	1:18	0:46	0:25	0:08	0:50	0:03	3.3	(-)
사무직	7:11	6:57	0:14	1:56	0:58	0:52	0:09	0:45	0:00	0.0	(-)
서비스·판매직	7:54	7:17	0:37	1:28	0:48	0:29	0:12	0:43	0:10	11.9	(1:23)
농·임·어업숙련직	8:24	7:48	0:37	1:29	1:02	0:16	0:10	0:37	0:12	9.6	(-)
기능직	7:46	7:30	0:16	1:42	0:52	0:26	0:24	0:46	0:06	5.8	(-)
단순노무직	7:41	7:16	0:24	1:31	0:39	0:37	0:15	0:43	0:14	7.5	(-)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에 비하여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수면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식사 및 간식 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리는 주말에 비하여 평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6-6〉 노인의 요일별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구분	총 수면 시간			식사 및 간식				개인 관리	건강 관리	행위자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수면	낮잠, 졸음		가족과 의 식사	그 외의 식사	간식과 음료				
전체	8:31	7:46	0:45	1:34	0:56	0:26	0:12	0:42	0:32	20.0	(2:44)
평일	8:29	7:45	0:45	1:34	0:56	0:26	0:12	0:41	0:34	20.7	(2:44)
토요일	8:32	7:49	0:43	1:33	0:56	0:25	0:12	0:43	0:32	20.8	(2:34)
일요일	8:35	7:49	0:47	1:35	0:56	0:25	0:13	0:41	0:27	15.5	(2:53)

나. 노인의 수면 및 기상시간대

가장 많은 사람이 기상하는 6~7시 사이의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은 33.5%로 노인의 약 2/3가 기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농가노인이 광역시 거주 노인이나 비농가거주 노인에 비하여 6~7시간대에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이 낮아 22.4%로, 광역시의 38.0%와 비농가 노인의 36.8%에 비하여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수면을 시작하는 11~12시 사이의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96.2%가 수면 중이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6~7시간대에 수면상태인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시간대에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이 높아 80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45.9%가 수면 중에 있다. 11~12시간대에 수면중인 노인의 특성을 보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수면중인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침을 늦게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활동상태별로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보면 6~7시간대에 기상하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일을 안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가 높아 39.2%를 보였고,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중 특히 1차 산업(농·임·어업숙련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19.6%만이 수면을 하고 있는 상태로 농가에서는 일의 특성상 노인들의 기상시간이 빠름을 볼 수 있다. 11~12시간대에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 역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가 높아 96.4%이었고 1차 산업(농·임·어업숙련직)에 종사하는 노인의 경우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98.3%로 타 직종에 비해 취침시간이 빠름을 알 수 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 88.3%이었다.

〈표 6-7〉 노인특성별 수면/기상 시간대

(단위: %)

구분	6시~7시 시간대의 수면노인 비율	11시~12시 시간대의 수면노인 비율
전체	33.5	96.2
지역		
광역시	38.0	94.4
비농가	36.8	96.4
농가	22.4	98.0
성		
남자	32.2	95.0
여자	34.6	97.0
연령		
65~69세	29.1	95.0
70~74세	32.4	96.3
75~79세	36.1	96.9
80세 이상	45.9	98.4
결혼상태		
무배우	37.4	96.5
유배우	30.1	95.8
교육수준		
무학	35.4	97.5
초등학교	29.3	96.0
중학교	29.9	95.0
고등학교	37.0	92.8
전문대 이상	41.8	91.9

〈표 6-8〉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수면/기상 시간대

(단위: %)

구분	6시~7시 시간대의 수면노인 비율	11시~12시 시간대의 수면노인 비율
전체	33.5	96.2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39.2	96.4
경제활동	23.5	95.7
직업		
전문직	53.7	96.7
기술직 및 준전문직	18.9	97.4
사무직	25.6	92.8
서비스·판매직	34.7	92.1
농·임·어업숙련직	19.6	98.3
기능직	29.0	96.3
단순노무직	20.4	88.3

요일별로 살펴보면, 6~7시간대에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은 일요일의 경우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하여 높아 35.3%이었고, 11~12시간대에 수면중인 노인의 비율은 일요일의 경우가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하여 낮아 95.0%으로 나타났다.

〈표 6-9〉 노인의 요일별 수면/기상 시간대

(단위: %)

구분	6시~7시 시간대의 수면노인 비율	11시~12시 시간대의 수면노인 비율
전체	33.5	96.2
평일	33.1	96.2
토요일	33.8	97.2
일요일	35.3	95.0

다. 노인의 경제활동 생활시간량

노인의 42.4%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요일 평균 하루에 5시간 1분 일을 하고 있었다. 노인 중 주업을 갖고 있는 비율은 22.7%이며, 부업을 하는 노인은 0.8%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 경제활동행위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농가지역 거주노인의 82.2%가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광역시 거주 노인의 22.5%와 비농가거주 노인의 23.5%만이 일을 하고 있다. 즉,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노인을 노동력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이 거의 없어 경제활동참여가 미미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표 6-10 참조).

경제활동행위자 비율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의 37.5%보다 높은 49.5%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 65~69세 연령층의 경우 51.7%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는 경우 요일 평균 5시간 37분을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적은 노인일수록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시간도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 무학노인의 경우 44.3%가,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43.3%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는 32.6%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은퇴연령이 없는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직업별로 경제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의 경제활동시간이 가장 높아 7시간 16분이며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7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비스·판매직으로 6시간 9분과 기능직의 5시간 59분이다(표 6-11 참조).

요일별로 비교해보면 일요일에 일을 하는 노인이 39.7%로 평일의 43.1%에 비하여는 낮지만, 타 연령층에 비하여는 요일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6-12 참조).

〈표 6-10〉 노인특성별 경제활동 행위자 비율 및 요일 평균 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경제활동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주업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부업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전체	42.4(5:01)	22.7(5:48)	0.8(3:12)
지역			
광역시	22.5(5:10)	14.0(6:12)	0.4(-)
비농가	34.5(4:15)	13.7(6:23)	0.3(-)
농가	82.2(5:26)	48.3(5:22)	2.1(-)
성			
남자	49.5(5:17)	36.0(5:40)	1.2(-)
여자	37.5(4:47)	13.8(6:03)	0.5(-)
연령			
65~69세	51.7(5:37)	32.4(6:04)	1.3(-)
70~74세	41.0(4:55)	21.6(5:44)	0.6(-)
75~79세	35.9(4:04)	14.9(4:58)	0.3(-)
80세 이상	25.6(3:33)	6.2(-)	0.2(-)
결혼상태			
무배우	33.0(4:38)	14.8(5:44)	0.6(-)
유배우	50.6(5:15)	29.8(5:50)	1.0(-)
교육수준			
무학	44.3(4:51)	19.7(5:51)	0.6(-)
초등학교	43.3(5:17)	25.7(6:01)	1.1(-)
중학교	37.6(5:47)	23.7(6:15)	0.9(-)
고등학교	38.2(4:46)	28.2(5:20)	0.9(-)
전문대 이상	32.6(4:18)	23.3(4:00)	0.7(-)

〈표 6-11〉 노인의 직업별 경제활동 시간

(단위: 시간, 분)

직업	요일 평균 경제활동 시간	주업이 있는 노인의 요일 평균 주업시간
전체	5:01	5:48
전문직	5:29	5:12
기술직 및 준전문직	5:22	5:08
사무직	5:43	4:40
서비스·판매직	6:09	6:38
농·임·어업숙련직	5:28	5:16
기능직	5:59	6:14
단순노무직	7:16	7:27

〈표 6-12〉 노인의 요일별 경제활동 행위자 비율 및 요일 평균 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경제활동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주업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부업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전체	42.4(5:01)	22.7(5:48)	0.8(3:12)
평일	43.1(5:07)	23.4(5:54)	0.8(3:11)
토요일	41.5(5:08)	23.4(5:52)	1.0(3:44)
일요일	39.7(4:26)	18.9(5:15)	0.6(2:40)

라. 노인의 가정관리 항목 생활시간량

노인 중 75.4%가 가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정관리를 하는 노인의 요일 평균 소요시간은 2시간 3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정관리 행위실태를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 행위를 하는 노인은 53.5%이며 행위자의 요일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49분이고, 의류관리를 하는 노인은 31.6%로 행위자의 요

일 평균 소요시간은 50분, 청소 및 정리 행위를 하는 노인은 57.6%로 행위자의 요일 평균 소요시간은 48분, 집관리 행위를 하는 노인은 17.6%로 행위자의 요일 평균소요시간은 44분이었고,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행위를 하는 노인은 14.2%로 행위자의 요일 평균 소요시간은 42분, 가정경영 행위를 하는 노인은 2.7%이다. 즉, 가정관리 행위 중 가장 많은 노인이 하는 행위는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및 정리로 약 1/2 이상의 노인이 행위자로 밝혀졌다. 또한 행위자의 요일 평균행위시간을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의 경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1시간 49분에 달하고 있다.

가정관리행위자의 비율을 노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가거주 노인에 비하여 광역시 거주 노인과 비농가 거주노인의 경우 약간 높았고, 행위자의 요일 평균소요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등 모든 항목별 행위시간은 농가노인이 기타 지역 거주노인에 비하여 낮았다(표 6-13 참조).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의 90%가 가정관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는 53.7%로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위자 비율이 낮아지며, 무배우의 경우가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의 요일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3시간 7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노인의 1시간 18분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즉,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행위자의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관리에 소요하는 시간도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6-13〉 노인특성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가정관리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항목별 행위자비율(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전체	75.4(2:35)	53.5(1:49)	31.6(0:50)	57.6(0:48)	17.6(0:44)	14.2(0:42)	2.7(-)
지역							
광역시	74.1(2:39)	50.5(1:50)	30.7(0:52)	57.1(0:51)	17.8(0:43)	20.1(4:1)	4.2(-)
비농가	79.0(2:46)	60.7(1:54)	36.6(0:49)	60.5(0:49)	18.2(0:38)	14.7(0:41)	2.2(-)
농가	71.9(2:14)	47.5(1:42)	25.5(0:47)	54.2(0:43)	16.5(0:56)	4.9(0:56)	1.1(-)
성							
남자	53.7(1:18)	17.1(1:03)	4.0(0:34)	35.5(0:41)	19.3(0:54)	7.9(0:45)	3.6(-)
여자	90.0(3:07)	78.0(1:57)	50.2(0:51)	72.6(0:50)	16.4(0:37)	18.4(0:42)	2.0(-)
연령							
65~69세	77.4(2:46)	55.2(1:59)	32.2(0:52)	58.5(0:48)	18.6(0:46)	17.8(0:44)	3.4(-)
70~74세	78.1(2:36)	58.0(1:46)	34.4(0:50)	61.0(0:47)	17.7(0:46)	14.6(0:40)	3.0(-)
75~79세	74.5(2:31)	52.3(1:45)	31.5(0:49)	56.6(0:50)	18.5(0:42)	11.8(0:42)	1.3(-)
80세 이상	64.7(2:01)	41.0(1:32)	23.9(0:43)	49.9(0:47)	13.0(0:34)	5.2(0:36)	1.5(-)
결혼상태							
무배우	85.7(2:43)	69.7(1:43)	44.0(0:49)	67.0(0:49)	16.0(0:36)	15.7(0:40)	1.8(-)
유배우	66.6(2:27)	39.3(2:01)	20.6(0:51)	49.2(0:47)	19.0(0:50)	12.8(0:45)	3.4(-)
교육수준							
무학	80.2(2:39)	62.6(1:48)	38.4(0:49)	62.9(0:48)	16.1(0:38)	11.0(0:43)	1.1(-)
초등학교	76.1(2:43)	53.4(1:58)	32.2(0:53)	58.1(0:47)	17.4(0:48)	18.0(0:42)	2.7(-)
중학교	66.0(2:15)	37.8(1:42)	18.2(0:49)	50.0(0:48)	21.0(0:46)	15.2(0:38)	5.2(-)
고등학교	62.0(2:14)	32.4(1:51)	15.3(0:57)	43.6(0:46)	20.1(0:51)	16.1(0:40)	5.5(-)
전문대이상	59.7(1:54)	25.7(1:23)	8.5(0:32)	38.3(0:55)	23.0(0:54)	14.4(0:48)	7.8(-)

음식준비 및 정리를 하는 노인의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78%가 행위자이며 이들의 요일 평균행위시간은 1시간 57분으로, 남자노인의 17.1%와 1시간 3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층별로 비교하여 보면 70~74세 연령층 노인의 행위율은 58.0%로 가장 높았고, 요일 평균행위소요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음식준비 및 정리를 하는 비율이 높아 69.7%로 유배우의 39.3%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행위율이 높지만 행위시간에 있어서는 일관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청소 및 정리를 하는 노인의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72.6%가 행위자이며 이들의 요일 평균행위시간은 50분으로, 남자노인의 35.5%와 41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의 소요시간은 각각 50분과 41분으로 행위자율에 비하여 성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소 및 정리를 하는 비율이 높아 67.0%로 유배우의 49.2%의 약 1.4배에 달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행위율이 높았지만 행위시간에 있어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관리를 하는 노인의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16.4%가 행위자로 남자노인의 19.3%에 비하여 낮아, 가정관리 행위 중 유일하게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행위자율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또한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행위자율이 높은 유일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 및 교육수준별 행위율은 일관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요일 평균행위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중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위시간이 많았다.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을 하는 노인의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18.4%가 행위자로 남자노인의 7.9%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나, 행위자의 행위시간을 비교해보면 여자노인들의 요일 평균행위시간이 42분으로 남자노인의 45분에 비하여 낮았다. 즉, 이러한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을 하는 남자노인의 비율은 낮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오히려 여자노인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을 하는 행위자율이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행위율은 높았으나 행위시간은 유배우 노인이 약간 많았고 연령별 행위율과 행위시간은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경영관련 행위를 하는 노인의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행위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남자노인의 3.6%가 행위자로 여자노인의 2.0%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행위자율이 높으며,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유배우 노인이 행위자율이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하여 일을 하지 않은 노인이 가정관리 행위자 비율이 약간 높았고, 일을 하는 노인의 직업이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인 경우 가정을 관리하는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서 높았다. 대체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모든 항목의 행위자 비율이 높았고, 의류관리가 가장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직업이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의 행위자 비율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았고, 집관리 및 가정경영의 행위자 비율은 기술직 및 전문직 층에서 높았다(표 6-14 참조).

〈표 6-14〉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가정관리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항목별 행위자비율(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전체	75.4(2:35)	53.5(1:49)	31.6(0:50)	57.6(0:48)	17.6(0:44)	14.2(0:42)	2.7(-)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77.0(2:48)	56.9(1:54)	35.1(0:51)	60.6(0:51)	18.1(0:40)	17.4(0:42)	3.0(-)
경제활동	72.6(2:11)	48.0(1:40)	25.1(0:47)	52.4(0:43)	16.4(0:53)	8.2(0:45)	1.6(-)
직업							
전문직	39.9(1:13)	7.8(-)	1.7(1:03)	17.7(0:34)	15.1(0:30)	16.0(0:58)	2.3(-)
기술직 및 준전문직	60.8(1:27)	28.9(1:28)	9.9(0:53)	28.0(0:39)	36.7(0:31)	4.6(0:50)	5.6(-)
사무직	47.6(1:34)	26.1(1:24)	16.3(0:27)	28.1(0:38)	11.2(0:18)	4.8(0:28)	3.0(-)
서비스·판매직	82.5(2:13)	56.9(1:40)	32.2(0:46)	59.7(0:43)	15.2(0:38)	18.1(0:35)	2.6(-)
농·임·어업숙련직	73.5(2:16)	47.9(1:44)	24.2(0:48)	55.3(0:43)	17.0(1:04)	5.6(0:54)	1.3(-)
기능직	58.0(2:08)	38.6(1:42)	18.6(0:48)	37.8(0:57)	8.8(0:37)	4.5(0:36)	2.9(-)
단순노무직	74.7(2:03)	55.9(1:37)	30.7(0:44)	50.2(0:36)	16.3(0:32)	9.6(0:36)	1.4(-)

요일별로는 일요일의 경우 가정관리 행위를 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항목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시간은 요일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15 참조).

〈표 6-15〉 노인의 요일별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가정관리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항목별 행위자비율(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전체	75.4(2:35)	53.5(1:49)	31.6(0:50)	57.6(0:48)	17.6(0:44)	14.2(0:42)	2.7(0:31)
평일	75.5(2:38)	53.6(1:52)	31.9(0:50)	57.3(0:48)	17.9(0:45)	14.5(0:43)	50.5(1:33)
토요일	74.4(2:34)	54.4(1:45)	31.6(0:48)	58.3(0:48)	16.6(0:46)	14.2(0:43)	51.2(1:28)
일요일	75.9(2:26)	52.7(1:46)	30.2(0:50)	58.4(0:48)	17.1(0:40)	12.7(0:38)	50.0(1:28)

마. 노인의 가족 보살피기 항목 생활시간량

가족 보살피기 행위를 하는 노인의 비율은 14.9%이며 행위자의 요일 평균 행위시간은 1시간 32분이었다. 어린이 보살피기 행위를 하는 노인은 10.2%이며 노인 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은 2.2%에 불과하였다. 행위자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가 노인이 광역시 거주 노인이나 비농가노인에 비하여 행위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6-16 참조).

행위자 비율을 노인의 특성별로 보면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아 17.7%이었으며, 요일 평균시간이 1시간 40분이었다. 남자노인의 경우 행위자비율은 여자노인보다 낮지만, 가족 보살피기 행위를 하는 경우 요일 평균시간은 1시간 51분으로 오히려 여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이 높았고, 무배우 노인의 경우 유배우 노인보다 행위비율은 높지만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6〉 노인특성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노인 특성	가족 보살피기 ¹⁾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어린이 보살피기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노인 보살피기 ²⁾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전체	14.9(1:32)	10.2(1:48)	2.2(-)
지역			
광역시	17.9(1:46)	11.3(1:49)	2.7(-)
비농가	17.0(1:44)	13.0(1:47)	2.1(-)
농가	7.6(-)	4.7(-)	1.8(-)
성			
남자	10.7(1:51)	7.5(-)	1.9(-)
여자	17.7(1:40)	12.0(1:46)	2.5(-)
연령			
65~69세	17.4(1:51)	12.3(1:56)	2.7(-)
70~74세	17.0(1:39)	11.6(1:44)	2.7(-)
75~79세	11.2(1:22)	7.7(-)	0.9(-)
80세 이상	8.0(-)	4.6(-)	1.5(-)
결혼상태			
무배우	15.7(1:33)	12.0(1:40)	0.1(-)
유배우	14.2(1:53)	8.7(1:57)	4.1(-)
교육수준			
무학	14.6(1:37)	9.7(-)	2.0(-)
초등학교	15.2(1:43)	11.2(1:47)	2.1(-)
중학교	14.4(1:58)	11.4(2:05)	2.3(-)
고등학교	13.5(1:37)	9.7(-)	2.2(-)
전문대 이상	18.0(2:13)	8.3(-)	5.3(-)

주: 1) 어린이 보살피기, 노인 보살피기 외에도 기타가족 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2) 배우자 보살피기와 부모 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결과임.

노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가족 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을 보살피는 비율은 17.7%로 일을 하는 노인의 행위비율인 9.9%에 비해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일을 하는 노인의 직업이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15.1%를 보였고, 전문직은 6.2%의 행위비율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6-17 참조).

〈표 6-17〉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가족 보살피기 ¹⁾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어린이 보살피기 ¹⁾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노인 보살피기 ²⁾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전체	14.9(1:43)	10.2(1:57)	2.2(1:48)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17.7(1:49)	12.4(1:53)	2.5(1:59)
경제활동	9.9(-)	6.3(-)	1.8(1:21)
직업			
전문직	6.2(-)	2.7(-)	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4.2(-)	1.6(-)	0.0(-)
사무직	14.8(0:55)	3.7(-)	5.2(-)
서비스·판매직	15.1(1:28)	11.3(1:41)	1.2(-)
농·임·어업숙련직	8.5(-)	5.1(-)	2.1(-)
기능직	8.7(-)	6.6(-)	1.0(-)
단순노무직	12.1(1:36)	8.6(-)	1.1(-)

주: 1) 어린이 보살피기, 노인 보살피기 외에도 기타가족 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2) 배우자와 부모 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결과임.

요일별로 살펴보면, 일요일이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하여 행위자율이 낮아지지만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에는 요일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18〉 노인의 요일별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가족 보살피기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어린이 보살피기 ¹⁾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노인 보살피기 ²⁾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전체	14.9(1:43)	10.2(1:57)	2.2(1:48)
평일	15.1(1:44)	10.3(1:51)	2.3(1:49)
토요일	15.1(1:40)	11.3(1:40)	2.2(1:38)
일요일	13.9(1:39)	8.8(1:39)	2.0(1:54)

註: <표 6-17>과 동일.

바. 노인의 여가활동 항목 생활시간량

노인 중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은 99.0%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요일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7시간 6분이었다. 지역과는 상관없이 여가활동은 대부분의 노인이 하고 있지만 여가활동시간을 살펴보면 농가 거주 노인의 경우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이 5시간 21분으로 광역시의 7시간 59분이나 비농가지역 거주 노인의 7시간 26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 중 행위자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중매체 이용으로 93.6%이며, 다음이 교제활동으로 67.7%, 아무 것도 안 하는 때가 있다는 노인도 5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은 36.4%,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25.1%, 종교활동은 13.2%의 노인이 행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의 1.1%만이 관람 및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이 관람 및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교제활동,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농가거주 노인이 타 지역 거주 노인에 비하여 낮지만, 대중매체 이용이나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는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여가활동의 요일 평균시간량을 살펴보면 대중매체 이용이 가장 많아서 3시간 49분이다 (표 6-19 참조).

노인특성별로 여가활동시간을 보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여가시간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여가활동시간이 많아서 7시간 19분과 6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시간이 많아져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8시간 10분으로 무학노인의 6시간 47분에 비하여 1시간 20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가활동을 구성하는 항목 중 교제활동 시간을 보면 노인의 67.7%가 교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의 요일 평균 교제활동 시간은 1시간 53분이었다. 남녀노인 모두 동일한 교제활동 시간을 보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교제활동 시간이 많았고, 결혼상태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제활동 시간이 많아 무학노인의 경우 2시간이었다.

〈표 6-19〉 노인특성별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여가활동 행위자 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항목별 행위자비율(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아무것도 인함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99.0(7:06)	67.7(1:53)	93.6(3:49)	13.2(2:15)	1.1(-)	36.4(1:27)	25.1(1:48)	59.7(1:32)
지역								
광역시	98.7(7:59)	65.7(1:53)	93.9(4:18)	18.1(2:21)	1.3(-)	43.4(1:30)	25.8(2:00)	56.6(1:36)
비농가	99.4(7:26)	69.5(1:52)	94.4(3:55)	13.9(2:14)	1.4(-)	42.3(1:27)	25.6(1:50)	60.0(1:33)
농가	98.9(5:21)	57.4(1:54)	92.1(2:53)	5.2(1:50)	0.3(-)	18.0(1:12)	23.1(1:23)	63.6(1:25)
성								
남자	99.6(7:43)	61.4(1:52)	95.5(4:16)	5.7(2:01)	0.8(-)	47.6(1:35)	40.6(1:44)	56.1(1:23)
여자	99.0(6:41)	67.0(1:53)	92.3(3:28)	18.2(2:18)	1.3(-)	28.9(1:17)	14.6(1:54)	62.1(1:37)
연령								
65~69세	99.3(6:27)	64.1(1:44)	93.2(3:32)	12.3(2:12)	0.9(-)	36.6(1:29)	26.9(1:40)	54.9(1:19)
70~74세	99.4(7:05)	66.3(1:52)	95.0(3:42)	15.7(2:10)	1.7(-)	38.0(1:28)	24.8(1:49)	60.6(1:24)
75~79세	99.1(7:49)	66.6(2:07)	94.8(4:12)	12.3(2:21)	0.7(-)	35.3(1:26)	24.5(1:48)	62.4(1:45)
80세 이상	97.1(8:10)	60.5(2:01)	90.3(4:15)	12.0(2:32)	1.0(-)	34.3(1:16)	20.7(2:15)	68.9(2:19)
결혼상태								
무배우	99.2(7:19)	68.4(1:57)	93.0(3:47)	17.7(2:27)	1.3(-)	32.6(1:20)	18.9(1:58)	63.1(1:44)
유배우	98.9(6:54)	61.4(1:59)	94.2(3:48)	9.2(1:54)	0.9(-)	40.0(1:31)	30.6(1:42)	56.7(1:20)
교육수준								
무학	98.8(6:47)	65.1(2:00)	91.7(3:30)	11.6(2:11)	1.2(-)	29.3(1:20)	19.7(1:48)	64.3(1:44)
초등학교	99.0(6:58)	63.5(1:50)	94.7(3:47)	15.7(2:22)	1.0(-)	37.1(1:25)	25.5(1:44)	56.6(1:21)
중학교	99.7(6:48)	62.4(1:41)	97.1(4:28)	14.5(2:11)	1.4(-)	44.8(1:38)	35.2(1:44)	51.0(1:20)
고등학교	99.1(8:09)	66.3(1:44)	94.7(4:30)	13.6(2:14)	0.9(-)	53.2(1:40)	35.4(1:59)	55.2(1:18)
전문대이상	100.0(8:10)	68.5(1:38)	98.1(4:28)	10.3(1:57)	0.7(-)	60.3(1:35)	41.5(1:50)	54.9(1:08)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노인이 경우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연령이 많은 노인이 젊은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여 여자노

인의 경우 18.2%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노인의 5.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 비율에서는 일정한 경향이 없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자의 행위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참여율이 높아 17.7%이며 참여시간도 높은 2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배우의 9.2%와 1시간 54분과 비교해볼 때 무배우 노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행위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참여가 활발하여 47.6%가 행위자로 여자노인의 28.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무배우 노인보다는 유배우 노인의 참여가 활발하고, 참여시간도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율과 높은 행위시간을 보였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행위를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참여가 활발하여 40.6%가 행위자로 여자노인의 14.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행위 참여율이 높은 경향은 있지만 실제 참여시간은 80세 이상 연령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무배우 노인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참여율이 높으나 행위시간에서는 유배우 노인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량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으나, 행위시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가활동을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 노인의 경우, 그러한 시간은 약 1시간 32분 정도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비율과 시간이 많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율과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보다 그 비율과 시간이 많았다. 교육수준별 행위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행위시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6-20〉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여가활동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항목별 행위자비율(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아무것도 인함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99.0(7:08)	64.7(1:54)	93.6(3:49)	13.2(2:17)	1.1(-)	36.4(1:27)	25.1(1:47)	59.7(1:32)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99.0(8:18)	69.2(1:58)	94.7(4:20)	16.7(2:24)	1.5(-)	45.1(1:31)	25.1(2:07)	60.2(1:43)
경제활동	99.0(4:58)	56.7(1:41)	91.7(2:49)	6.9(1:34)	0.4(-)	21.0(1:08)	24.9(1:13)	58.8(1:11)
직업								
전문직	99.4(6:18)	63.7(1:24)	95.3(3:34)	14.6(0:58)	0.9(-)	57.1(1:18)	35.1(1:22)	56.0(0:54)
기술직 및 준전문직	100.0(7:25)	50.4(1:34)	86.0(5:10)	4.7(-)	0.0(-)	78.5(1:20)	27.9(2:41)	28.3(1:14)
사무직	100.0(5:43)	70.2(1:30)	95.3(3:17)	8.9(-)	0.0(-)	44.1(0:55)	38.6(1:17)	46.3(0:52)
서비스· 판매직	99.2(5:08)	61.1(1:29)	89.4(3:05)	12.2(1:43)	1.5(-)	26.4(1:16)	21.2(1:14)	48.2(1:07)
농·임·어 업숙련직	99.1(4:55)	54.9(1:50)	92.0(2:43)	5.0(-)	0.2(-)	15.0(1:03)	24.0(1:12)	64.3(1:16)
기능직	100.0(5:15)	64.8(1:38)	95.9(2:46)	5.7(-)	0.0(-)	28.3(1:13)	36.0(1:15)	53.4(1:08)
단순노무직	97.7(4:24)	55.4(1:28)	89.8(2:37)	9.2(-)	0.5(-)	22.6(1:08)	22.0(0:59)	52.7(0:55)

노인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여가활동참여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가시간은 차이가 나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은 8시간 18분,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는 4시간 58분으로 1.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일을 하는 노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과 농·임·어업숙련직인 경우 여가활동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일을 하는 노인에 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항목은 교제활동, 종교활동 및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이었고, 가장 시간차이를 보인 항목은 대중매체 이용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간은 4시간 20분, 일을 하는 노인의 이용시간은 2시간 49분으로 약 1.4배나 많았다. 그리고 노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항목은 대중매체이용, 종교활동과 취미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이었으며, 노인의 직업이 1차 산업의 경우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표 6-20 참조).

요일별로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행위자 비율에는 요일별 차이가 없지만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에서는 차이가 있어 일요일의 경우 여가활동시간이 평일에 비하여 34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요일에는 종교활동행위자율과 소요시간이 높고 대중매체 이용시간도 높다. 교제활동의 경우는 평일에 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이 활발하여 행위자의 요일 평균 소요시간이 2시간과 2시간 2분으로 평일의 1시간 49분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표 6-21 참조).

〈표 6-21〉 노인의 요일별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 시간, 분)

구분	여가활동 행위자비율 (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항목별 행위자비율(행위자의 요일 평균시간)						아무것도 인함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종교활동 행위자율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99.0(7:08)	64.7(1:54)	93.6(3:49)	13.2(2:17)	1.1(3:02)	36.4(1:27)	25.1(1:47)	59.7(1:32)
평일	99.0(7:00)	64.1(1:49)	93.8(3:43)	12.5(2:15)	1.0(2:47)	36.5(1:27)	24.9(1:48)	60.4(1:33)
토요일	99.0(7:08)	66.6(2:00)	93.1(3:51)	12.1(1:48)	1.3(2:40)	37.7(1:29)	25.5(1:42)	58.4(1:29)
일요일	99.0(7:34)	65.8(2:02)	93.3(4:05)	17.9(2:41)	1.2(4:04)	34.6(1:21)	25.6(1:51)	57.7(1:29)

4. 노인의 생활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노인의 약 1/4 즉, 24.7%만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뿐 대부분은 시간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부족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농가거주 노인에게서 높았다. 시간부족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높으며,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집안일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남자노인의 경우는 일 때문이라는 응답과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교 학력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간부족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의 시간부족 인식은 일을 하는 노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간

부족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일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중의 하나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농사일에 쫓겨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시간 부족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75.3%로 타 직종에 비해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는 일(47.9%)과 교제 및 사회활동 때문(32.2%)이었는데, 이는 단순노무직의 노인이 시간부족을 느끼는 이유의 대부분이 일 때문(76.1%)인 것과 비교된다.

〈표 6-22〉 노인특성별 시간부족 인식상태

(단위: %)

구분	전혀 안 느낌	거의 안 느낌	가끔 느낌	항상 느낌	이 유					
					일(학습) 때문에	자녀양육 /집안일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교제/사회 활동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타
전체	38.6	36.7	15.9	8.8	64.4	19.2	3.2	7.3	2.6	3.3
지역										
광역시	44.8	36.9	13.5	4.8	37.2	29.4	6.2	14.8	4.2	8.3
비농가	43.6	40.2	11.4	4.8	46.2	31.2	4.1	11.1	4.1	2.6
농가	22.4	31.2	26.0	20.4	88.9	7.5	1.1	0.8	0.9	0.9
성										
남자	36.1	36.4	17.7	9.9	68.9	11.5	3.2	10.6	2.0	3.8
여자	40.2	36.9	14.8	8.1	60.7	25.5	3.2	4.6	3.0	3.0
연령										
65~69세	26.6	37.9	22.2	13.3	66.1	19.0	3.0	7.0	2.8	2.1
70~74세	36.4	40.5	14.6	8.5	63.4	17.7	3.4	8.3	1.0	6.3
75~79세	48.1	36.3	11.1	4.6	61.6	23.6	2.0	5.9	3.6	3.3
80세 이상	66.9	25.6	5.8	1.7	53.2	20.2	8.5	9.1	6.2	2.8
결혼상태										
무배우	45.8	36.7	11.4	6.2	55.6	26.7	4.0	7.2	4.4	2.1
유배우	32.1	36.7	9.9	11.2	68.8	15.5	2.8	7.3	1.6	4.0
교육수준										
무학	42.3	35.1	13.8	8.8	71.5	18.8	1.9	2.7	2.9	2.2
초등학교	35.7	37.9	16.4	10.0	67.5	17.7	2.2	7.0	2.1	3.6
중학교	33.5	41.6	17.1	7.8	52.2	17.5	8.1	13.9	1.6	6.7
고등학교	35.7	35.2	20.9	6.2	46.3	27.8	6.2	14.9	2.2	2.6
전문대 이상	30.8	39.0	23.1	7.2	38.0	21.8	7.4	22.2	4.3	6.3

〈표 6-23〉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시간부족 인식상태

(단위: %)

구분	전혀 안 느낌	거의 안 느낌	가끔 느낌	항상 느낌	이 유					
					일 (학습) 때문에	자녀 양육 /집안일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교제/사 회활동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타
전체	38.6	36.7	15.9	8.8	64.4	19.2	3.2	7.3	2.6	3.3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49.9	38.9	8.4	2.8	22.4	44.7	7.4	15.3	3.7	6.5
경제활동	18.5	32.7	29.3	19.5	81.4	8.9	1.5	4.0	2.1	2.1
직업										
전문직	16.3	8.4	71.6	3.7	47.9	7.2	7.2	32.2	3.2	2.2
기술직 및 준전문직	10.8	47.4	31.2	10.6	62.2	37.8	0.0	0.0	0.0	0.0
사무직	13.1	62.3	15.9	8.7	63.2	28.3	0.0	0.0	0.0	8.5
서비스·판매직	24.6	36.3	33.0	6.1	57.1	16.4	3.9	9.6	3.5	9.6
농·임·어업숙련직	21.2	35.9	25.0	18.0	89.5	6.8	0.9	0.6	1.3	1.0
기능직	33.7	36.2	18.3	11.8	66.2	11.5	0.0	9.4	6.0	6.9
단순노무직	16.3	30.6	30.6	22.5	76.1	10.5	1.9	7.7	3.9	0.0

한편 노인의 32.6%는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약 1/3은 여유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농가거주노인에게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을 하는 노인이 언급하는 주요 이유로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가장 높아 29.4%이며, 다음이 ‘피곤하거나 아파서’가 가장 높아 27.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19.4%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여유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미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노인의 경우 농가거주 노인은 ‘피곤하거나 아파서’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비농가 노인의 경우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농가거주 노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6-24〉 노인특성별 직장인의 여유시간에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경험여부와 이유

(단위: %)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항상 있음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피곤하 거나 아파서	기타
전체	30.4	37.0	24.2	8.4	19.4	10.6	29.4	10.7	27.9	1.9
지역										
광역시	30.5	35.9	24.4	9.3	23.2	10.1	31.1	9.7	24.0	1.9
비농가	32.7	34.1	24.9	8.3	15.1	8.5	31.2	13.4	30.2	1.7
농가	26.9	42.9	22.8	7.5	20.4	14.9	23.9	8.2	30.4	2.2
성										
남자	27.6	37.9	25.7	8.8	24.1	9.9	33.2	7.9	23.4	1.5
여자	32.2	36.4	23.2	8.2	16.0	11.2	26.7	12.9	31.2	2.1
연령										
65~69세	24.2	41.3	27.1	7.4	23.5	11.6	30.4	9.1	24.4	1.0
70~74세	28.8	37.6	25.1	8.5	20.5	10.5	27.9	11.2	28.4	1.5
75~79세	35.1	33.8	23.0	8.0	14.7	10.5	29.2	12.7	29.4	3.6
80세 이상	46.1	27.2	14.7	12.0	7.8	7.5	30.1	13.1	38.0	3.5
결혼상태										
무배우	34.4	33.6	22.6	9.4	15.0	11.0	28.3	15.0	28.7	2.0
유배우	26.8	40.1	25.5	7.6	23.3	10.3	30.4	7.1	27.2	1.8
교육수준										
무학	33.8	35.2	21.4	9.6	17.1	10.5	24.8	12.8	32.7	2.1
초등학교	28.5	38.5	25.6	7.5	22.2	10.4	32.7	9.2	23.3	2.1
중학교	23.8	37.6	28.7	9.9	23.0	10.5	31.6	6.7	28.2	0.0
고등학교	26.3	38.3	31.0	4.4	19.7	13.6	30.3	9.1	25.8	1.5
전문대 이상	26.1	41.6	25.2	7.1	16.6	9.2	43.5	11.0	17.4	2.4

이를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피곤하거나 아파서’ 여유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 상태의 노인의 경우 ‘여유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5.0%로 유배우 노인의 7.1%의 2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배우자의 상실이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은 ‘피곤하거나 아파서’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6-25〉 노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여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여부와 이유

(단위: %)

	항상 느낌	가끔 느낌	거의 안 느낌	전혀 안 느낌	여유시간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그 주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흥미나 취미가 없어서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여유 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피곤 하거나 아파서	기타
전체	8.4	24.2	37.0	30.4	19.4	10.6	29.4	10.7	27.9	1.9
경제활동여부										
비경제활동	9.6	23.7	32.4	34.3	16.9	8.5	30.6	13.3	28.6	2.3
경제활동	6.3	24.9	45.2	23.5	24.3	14.8	27.2	6.0	26.6	1.2
직업										
전문직	1.9	30.7	53.1	14.3	9.8	9.4	49.7	0.0	31.1	0.0
기술직 및 준전문직	8.7	10.9	55.2	25.2	75.6	0.0	24.4	0.0	0.0	0.0
사무직	0.0	32.6	48.4	19.0	33.9	46.3	10.8	0.0	9.0	0.0
서비스·판매직	5.5	27.3	41.3	25.9	19.2	15.7	23.4	7.6	34.1	0.0
농·임·어업숙련직	6.7	23.8	44.8	24.7	23.0	16.1	24.7	7.8	26.6	1.8
기능직	8.3	24.3	50.2	17.3	46.5	0.0	47.5	0.0	6.0	0.0
단순노무직	6.2	27.4	46.2	20.3	26.2	12.7	31.1	1.5	27.8	0.7

VII.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시간배분실태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는 교육의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좋은 직장을 확보하고, 입신 출세와 지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조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유지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시간은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시간과 학교 외 수업(사교육 및 자율학습)시간 등을 요일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초등학생 3,640사례, 중학생 4,494사례, 고등학생 5,385사례, 대학생 이상 4,064사례 등으로 전체 17,583사례이다. 이를 요일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평일 2,259사례, 토요일 692사례, 일요일 689사례, 중학생은 평일 2,840사례, 토요일 820사례, 일요일 834사례, 고등학생은 평일 3,368사례, 토요일 1,027사례, 일요일 990사례, 그리고 대학생은 평일 2,573사례, 토요일 772사례, 일요일 719사례이다.

2. 각급 학교 학생의 생활시간배분실태

학생들의 생활시간 활용실태는 학업이 생활의 주요 영역이므로 개인유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학생의 생활실태 양상을 보면 수면 및 식사 등의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의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개인유지시간은 24시간 중 46.8%에 해당하는 요일 평균 11시간 15분을 사용함으로써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을 위해 6시간 11분(25.7%), 교제 및 여가활동(20.7%)을 위해 4시간 59분을 할애하고 있다. 중학생은 초등학생 다음으로 개

인유지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며, 10시간 27분으로 하루 중 43.5%를 사용하고 있다. 학습시간량은 초등학생보다 1시간 18분을 더 많이 사용해 7시간 29분이었으며, 교제 및 여가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초등학생보다 39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습시간량과 교제 및 여가시간이 반비례하는 현상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늘어난 수업시간량과 학습량으로 인하여 놀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등학생의 개인유지시간은 중학생에 비해 1시간 1분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는 하루 일과의 39.3%시간인 9시간 26분을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학습량은 초등학생보다 2시간 35분, 중학생보다 1시간 22분 늘어난 8시간 51분으로 대학생의 4시간 28분보다도 4시간 23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량의 증가량에 비해 교제 및 여가활동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24시간 중 14.7%인 3시간 31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에 비해 1시간 28분, 중학생보다는 49분 감소한 것이며, 대학생과는 1시간 31분의 차이로 학생들 중에서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시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의 주요활동이 학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7-1〉 각급 학교 학생의 요일 평균 생활시간활용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유지	11:15(46.9)	10:27(43.5)	9:26(39.3)	10:01(41.7)
일	0:01(0.1)	0:02(0.1)	0:17(1.2)	1:23(5.8)
학습	6:11(25.7)	7:29(31.3)	8:51(36.9)	4:28(18.7)
가정관리	0:11(0.8)	0:13(0.9)	0:12(0.8)	0:30(2.1)
가족 보살피기	0:04(0.3)	0:02(0.1)	0:01(0.1)	0:05(0.3)
참여 및 봉사활동	0:00(0.0)	0:00(0.0)	0:00(0.0)	0:02(0.1)
교제 및 여가활동	4:59(20.7)	4:20(18.1)	3:31(14.7)	5:02(21.0)
이동	1:11(4.9)	1:21(5.6)	1:37(6.7)	2:24(10.0)
기타	0:08(0.6)	0:06(0.4)	0:05(0.3)	0:05(0.3)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일하는 시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의 집단차이 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고등학생은 1일 중 17분, 대학생은 1시간 23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조사에서 학생이 불규칙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해당하며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고용을 통해 보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하는 생활시간량의 증가 사유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참여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모든 학생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0.5분 미만이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약 1분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농촌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 등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동시간 항목은 초등학생이 1시간 11분, 중학생이 1시간 21분, 고등학생이 1시간 37분이었으며, 가장 많은 이동시간을 사용하는 집단은 대학생으로 하루 2시간 24분이었다. 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거주지역의 행정구역에 따라 배정 받는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지며, 특히 고등학교부터는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지원하고, 대학 선택은 그러한 경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3. 각급 학교 학생의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실태

가.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학생별 개인유지 생활시간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개인유지 가운데 수면시간량이 가장 많다. 요일 평균은 고등학생이 가장 적었으며(7시간 8분), 초등학생(8시간 58분)이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는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증가량을 보였는데, 평일에 수면량이 가장 적은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6시간 57분이며 이는 가장 많은 수면을 취하는 초등학생과 무려 1시간 5분의 차이를 보였다.

토요일에 취하는 수면량의 변화는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보다 오히려 4분이 감소한 8시간 48분, 중학생은 8시간으로 3분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10분, 대학생은 44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취하는 수면량에서 가장 현격한 변화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은 토요일보다 2시간 3분, 중학생은 1시간 34분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장 학습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 시기가 평일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량이 많아짐에 따라 일찍 등교하면서 줄어드는 수면을 일요일에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관리시간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갈수록 미미하나마 약 1~6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이·미용, 외모관리 등 개인관리를 위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2〉 학생의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초등학생					중학생			
수면	8:52	8:48	9:41	8:58	7:57	8:00	9:34	8:11
식사 및 간식	1:27	1:21	1:41	1:28	1:21	1:15	1:31	1:22
개인관리	0:49	0:50	0:46	0:49	0:54	0:52	0:48	0:53
건강관리	0:00	0:01	0:00	0:00	0:01	0:01	0:02	0:01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11:08	11:00	12:08	11:15	10:13	10:08	11:55	10:27
고등학생					대학 이상			
수면	6:47	6:57	9:00	7:08	7:13	7:57	8:33	7:31
식사 및 간식	1:22	1:18	1:30	1:23	1:28	1:31	1:35	1:29
개인관리	0:55	0:54	0:52	0:54	1:00	1:00	0:59	1:00
건강관리	0:01	0:01	0:00	0:01	0:01	0:01	0:00	0:01
기타 개인유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9:05	9:10	11:22	9:26	9:42	10:29	11:07	10:01

나. 학습 항목의 생활시간량

학생이 개인유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학습시간량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은 요일 평균 8시간 51분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하루의 36.9%가 해당되는 시간이다.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 10시간 8분, 토요일 7시간 42분, 일요일 3시간 36분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은 평일에는 하루 24시간의 42%를 학습을 위한 시간배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생들은 전체 학습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2000. 1)의 「대학생에 대한 학업성취와 사회문화적 배경 등 요인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시간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은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곳'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정규수업 외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시간량은 현저하게 다른 집단에 비해 요일 평균 42분, 중학생 48분, 고등학생 24분이었다. 이를 요일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은 평일 56분, 토요일은 12분으로 44분이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은 1분에 불과하였다. 중학생은 평일에 1시간, 토요일 27분으로 33분이 감소하였고, 일요일은 10분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는 평일 27분, 토요일 18분, 일요일 15분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평일에도 학원 이용시간이 적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시간의 감소량이 적다. 이와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일요일에도 정규 외 수업시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학원에서 주말에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시간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규 외 수업시간량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원을 1개 이상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정규 외 수업시간량이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최근 초등학생도 60%이상이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의 강요로 과외를 하는 경우도 60%로 저학력층부터 정규수업 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비교적 입시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집이나 독서실 등과 같은 곳에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하거나 친구와 같이 숙제를 위한 자료를 찾는 활동, 그룹스터디 등을 하는 시간량은 초등학생의 경우 요일 평균 55분, 중학생 1시간 17분 고등학생 1시간 33분, 대학생 53분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중·고·대학생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초등학생은 15분 가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학생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은 토요일보다 35분 증가하여 1시간 25분, 중학생은 1시간 45분으로 32분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2시간 42분으로 56분, 대학생은 1시간 12분으로 11분 늘어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스스로의 학습시간의 증가량은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3〉 학생의 학습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학습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의 정규수업	5:06	3:53	0:01	4:12	6:27	4:08	0:03	5:12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2:14	1:11	1:24	1:58	2:24	1:48	2:02	2:16
- 정규 외 수업	0:56	0:12	0:01	0:42	1:00	0:27	0:10	0:48
-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1:05	0:50	1:25	0:55	1:12	1:13	1:45	1:17
학습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계	7:21	5:05	1:26	6:11	8:52	5:57	2:06	7:29
고등학생					대학 이상			
학생의 정규수업	8:16	5:30	0:28	6:45	4:21	1:40	0:29	3:25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1:51	2:11	3:07	2:05	0:58	1:08	1:18	1:02
-정규 외 수업	0:27	0:18	0:15	0:24	0:04	0:03	0:02	0:04
-학교 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1:16	1:46	2:42	1:33	0:48	1:01	1:12	0:53
학습관련 물품구입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계	10:08	7:42	3:36	8:51	5:20	2:49	1:47	4:28

다.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학생들은 개인유지와 학습 활동 다음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은 대학생으로 24시간 가운데 21.0%인 5시간 2분을 할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으로 4시간 59분, 중학생 4시간 19분, 고등학생 3시간 31분 순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모두 대중매체 이용 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취미 및 여가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을 먼저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요일 평균

2시간 14분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은 2시간 4분, 고등학생 1시간 42분 등의 순이었다. 이를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내에서의 비율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이 44.8%, 중학생 51.5%, 고등학생 48.3%, 대학생 41.1%로 중학생의 교제 및 여가활동의 절반 이상이 대중매체 이용에 할애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경우 상당수 대중 매체이용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 이용 항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은 TV 시청으로 중학생의 대중매체 이용 중 TV시청은 88.1%에 달하고 있다. 고등학생도 TV시청이 대중매체 이용의 83.3%나 되었다. 이는 하루에 평균 약 2시간 가량을 TV시청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TV의 순기능이 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나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오락과 흥미위주의 프로그램과 광고로 채워져 있다는 역기능적인 면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V를 시청하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상업적, 비윤리적 내용의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로서 TV외에도 PC 통신(채팅 포함)이나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등 컴퓨터 정보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시간사용을 살펴보았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2~6분에 불과하였으나 대학생은 약 3배 가량 되는 17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PC 통신 등과 관련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가 형성시키는 주요 세력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 이용과 더불어 학생들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초등학생이 1시간 41분, 대학생 1시간 3분, 중학생 1시간 6분, 고등학생 45분 순으로 나타났는데,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활동으로 독서와 컴퓨터 게임, 놀이에 대한 학생별 활동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은 초등학생으로 20분, 다음은 대학생이 19분, 중학생이 18분, 고등학생이 12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게임에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중학생 31분, 초등학생 30분, 고등학생 19분, 대학생 15분을 사용하고 있다. 놀이는 초등학생이 42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분, 대학생이 1분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만화책이나 일반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초등학교생이 가장 많이 보고, 대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도서나 일반 도서를 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독서시간량은 약 10분을 넘고 또래들과 함께 하는 놀이 시간량은 2분에 불과하였으나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량은 19분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의 컴퓨터 게임시간량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고등학생부터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이 대학입시와 진로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량이 감소한 경향도 있겠으나 대학생의 시간량도 많지 않은 점을 보면, 컴퓨터 게임은 연령이 낮은 층에서 선호하는 활동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체발달과 성장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은 다른 학생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놀이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가 곧 학습활동으로 연계되어지는 아동기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제 및 여가활동은 다양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대중매체 이용과 컴퓨터 오락 등의 활동에만 치우치는 여가문화의 편재현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폭력만화, 영상물, 섹스비디오 등이 그러하고 이는 성인기에 가사도 일탈적 여가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의 현실에서 청소년기의 여가문화에 대한, 가정, 사회, 교육적, 정책적 차원에서 전환이 필요하고, 청소년 개개인이 보다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함을 시사한다.

〈표 7-4〉 학생의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학습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초등학생					중학생			
교제활동	0:30	0:40	0:39	0:33	0:34	0:40	0:41	0:36
대중매체 이용	1:46	2:42	4:08	2:14	1:36	3:11	4:28	2:14
- TV시청	1:41	1:36	3:58	2:08	1:23	2:52	4:01	1:58
- 컴퓨터 정보이용	0:01	0:02	0:04	0:02	0:04	0:07	0:09	0:05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종교활동	0:01	0:05	0:26	0:05	0:01	0:06	0:29	0:06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0	0:03	0:04	0:01	0:00	0:03	0:04	0:01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9	0:30	0:27	0:21	0:12	0:14	0:25	0:14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23	2:02	2:48	1:41	0:50	1:30	1:58	1:06
- 독서	0:17	0:20	0:34	0:20	0:12	0:19	0:29	0:18
- 컴퓨터 게임	0:21	0:44	1:02	0:30	0:21	0:49	1:03	0:31
- 놀이	0:37	0:49	1:00	0:42	0:09	0:09	0:10	0:09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0	0:02	0:04	0:01	0:01	0:05	0:04	0:02
기타 여가관련활동	0:03	0:02	0:03	0:03	0:01	0:01	0:01	0:01
계	4:02	6:06	8:39	4:59	3:15	5:50	8:10	4:20
고등학생					대학 이상			
교제활동	0:39	0:43	0:50	0:41	0:58	1:10	1:16	1:02
대중매체 이용	1:11	2:18	3:44	1:42	1:39	2:49	3:27	2:04
- TV시청	0:57	1:59	3:12	1:25	1:09	2:02	2:37	1:29
- 컴퓨터 정보이용	0:05	0:07	0:10	0:06	0:15	0:22	0:24	0:17
일반인의 학습	0:00	0:00	0:00	0:00	0:16	0:16	0:15	0:16
종교활동	0:01	0:07	0:28	0:06	0:05	0:11	0:34	0:10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	0:03	0:03	0:02	0:03	0:10	0:08	0:05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09	0:11	0:15	0:10	0:15	0:18	0:18	0:16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34	1:01	1:25	0:45	0:55	1:19	1:23	1:03
- 독서	0:09	0:12	0:25	0:12	0:16	0:23	0:33	0:19
- 컴퓨터 게임	0:13	0:30	0:40	0:19	0:13	0:20	0:21	0:15
- 놀이	0:02	0:03	0:02	0:02	0:01	0:02	0:01	0:01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6	0:08	0:04	0:03	0:08	0:08	0:04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	0:02	0:02	0:01	0:02	0:02	0:02	0:02
계	2:38	4:31	6:55	3:31	4:16	6:23	7:31	5:02

VIII. 한국인의 주요 특성별 가족공유시간

가족은 가족원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에 의해 ‘가족행동’ 즉 가족기능을 수행하며, 가족행동의 결과로 사회의 유지 및 존속,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과 관련되어진다. 가족기능은 개별가족원이 사회변화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경제적 기능, 성적 및 재생산 기능,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정서적 기능, 여가 및 휴식 기능, 사회보장기능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김승권 외, 2000). 특히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사회·경제적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내적으로 가족기능이 점점 축소·약화됨에 따라 가족결합이 약화되며, 가족성원의 생활태도가 개별화되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관심과 생활태도의 격차에 의하여 가족위기를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가족해체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족공유시간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이론으로서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가족공유시간을 가족의 요구와 자원에 의한 관리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가족은 친구나 친척, 이웃과 같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공유시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Dollahite & Rommel, 1993).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 및 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은 개인적 발달이나 역할, 의무수행들을 발전시키고 이행해 나가게 된다. 가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시간자원의 사용방식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이용함에 있어 ‘공유’의 개념은 개인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분석의 주요 내용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가족 간에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활동으로 열 가지를 선정하였다. 개인유지 항목에서는 ‘가족과의 식사’를, 가족 보살피기 항목에서는 ‘미취학아이 보살피기’로 신체적 돌

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와 ‘초·중·고등 학생 보살피기’로 씻기기 및 등·하교 도와주기, 숙제 및 공부 봐주기이었다. 또한 가족 보살피기에서는 배우자 보살피기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를 포함시켰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에서는 교제활동에서 가족·친척과의 교제를, 그리고 이동시간 항목에서는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을 가족공유시간을 살펴보는 척도로 보았다.

2.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한국인은 요일 평균 1시간 18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평일이 1시간 14분, 토요일이 1시간 24분으로 10분 증가하였고, 일요일은 1시간 34분으로 평일보다 20분 연장되었다.

가족공유시간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간배분은 ‘가족과의 식사’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에서 ‘가족과의 식사’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 경우와 다른 가족원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옆에 같이 있어 준 경우, 그리고 가족과 다른 사람이 섞여서 함께 식사하였더라도 가족이 주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요일 평균 40분을 사용하며 이는 가족공유시간의 51.3%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이 38분, 토요일 43분, 일요일 50분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족, 친척 등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도 요일 평균 11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요일은 평일의 2배로 주말에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가족과의 식사	0:38	0:43	0:50	0:40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8	0:08	0:07	0:08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7	0:08	0:09	0:07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	0:01	0:01	0:0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3	0:03	0:01	0:03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2	0:01	0:02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2	0:01	0:02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9	0:14	0:19	0:11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	0:03	0:03	0:03
계	1:14	1:24	1:34	1:18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공유시간

가. 성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남자는 요일 평균 58분, 여자는 남자보다 41분이 많은 1시간 39분을 사용하고 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평일 52분, 토요일은 1시간 2분으로 평일보다 10분이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은 1시간 20분으로 평일보다 32분이 증가하였다. 여자는 평일은 1시간 34분, 토요일은 1시간 45분으로 평일보다 11분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은 1시간 48분으로 평일보다 14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가족 공유시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보다 요일 평균 41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요일별 시간 증가량을 보아도 평일에는 42분, 토요일 43분, 그리고 일요일에는 28분 남자보다 여자의 가족공유시간이 더 많았다.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요일 평균 39분이었으며 평일보다는 토

요일과 일요일에 시간량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요일 평균 43분으로 남성보다 4분 많았으며, 여성 역시 평일보다는 주말에 시간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 4~6분 가량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성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남자				여자			
가족과의 식사	0:35	0:40	0:48	0:39	0:40	0:46	0:52	0:43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1	0:01	0:01	0:01	0:14	0:14	0:13	0:14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3	0:04	0:07	0:04	0:11	0:11	0:10	0:11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	0:00	0:00	0:00	0:02	0:02	0:01	0:0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0	0:00	0:00	0:00	0:05	0:05	0:02	0:05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1	0:01	0:01	0:01	0:03	0:02	0:03	0:03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3	0:03	0:02	0:0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8	0:12	0:18	0:10	0:11	0:16	0:20	0:13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2	0:03	0:03	0:02	0:04	0:04	0:03	0:04
계	0:52	1:02	1:20	0:58	1:34	1:45	1:48	1:39

나. 연령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로 1시간 53분이었으며, 다음은 65세 이상 1시간 25분, 50~64세 1시간 22분, 20대가 1시간 17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30대가 평일에 1시간 48분, 일요일은 2시간 8분으로 20분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40대가 평일 1시간 9분에서 일요일 1시간 27분으로

18분이 증가하였다. 이어서 20대의 일요일 시간량은 평일보다 16분 증가한 1시간 29분, 50~64세와 65세 이상은 평일보다 10분 증가한 1시간 30분과 1시간 34분이었다.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연령층은 65세 이상 연령층으로 요일 평균 55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인 연령층은 20대(요일 평균 28분)로 65세 이상 연령층과는 약 27분의 격차를 보였다.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서도 현격한 격차를 보여 평일 30분, 토요일 25분, 일요일 13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이나 자녀, 손자녀 등의 방문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데 비하여 20대는 친구 등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외식이 많은데서 오는 결과라 판단된다.

요일 평균시간이나 평일에서 일요일로의 시간증가량은 30대가 가장 높았는데, 30대의 가족공유시간 활용실태를 보면, 가족공유시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과의 식사시간 다음으로 가족 보살피기 시간에서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을 보살피기 위한 시간이 많음을 짐작케 한다. 미취학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시간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간량을 보인 연령층은 30대로 35분을 사용하였으며 20대에서는 32분을 사용하였다. 반면, 40대는 2분, 50~64세는 12분, 65세 이상은 10분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시간은 30대가 13분, 40대가 7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30대 및 20대는 가족발달주기상 부부가 결혼을 하여 첫 자녀를 출생하는 가족형성기에 속하는 남녀가 가장 많고 첫 자녀의 성장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배우자 보살피기 시간은 모든 연령층이 요일 평균 2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는 요일 평균 1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 가족·친척과의 교제시간은 30대부터 65세 이상까지는 요일 평균 14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량의 증가를 보였다.

〈표 8-3〉 연령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64	65세 이상
가족과의 식사	0:32 (82.0)	0:28 (36.3)	0:42 (37.2)	0:42 (58.3)	0:49 (59.8)	0:55 (64.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0 (0.0)	0:17 (22.1)	0:16 (14.1)	0:01 (1.4)	0:04 (4.9)	0:03 (3.5)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0 (0.0)	0:13 (16.9)	0:16 (14.1)	0:01 (1.4)	0:07 (8.5)	0:06 (7.1)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 (0.0)	0:02 (2.6)	0:03 (2.7)	0:00 (0.0)	0:01 (1.2)	0:01 (1.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0 (0.0)	0:01 (1.3)	0:07 (6.2)	0:05 (6.9)	0:01 (1.2)	0:01 (1.2)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 (0.0)	0:00 (0.0)	0:06 (5.3)	0:02 (2.8)	0:00 (0.0)	0:00 (0.0)
배우자 보살피기	0:00 (0.0)	0:02 (2.6)	0:02 (1.8)	0:02 (2.8)	0:02 (2.4)	0:02 (2.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2.6)	0:01 (1.3)	0:01 (0.9)	0:01 (1.4)	0:01 (1.2)	0:01 (1.2)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6 (15.4)	0:10 (13.0)	0:14 (12.4)	0:14 (19.4)	0:14 (17.1)	0:14 (16.5)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0 (0.0)	0:03 (3.9)	0:06 (5.3)	0:04 (5.6)	0:03 (3.7)	0:02 (2.4)
계	0:39 (100.0)	1:17 (100.0)	1:53 (100.0)	1:12 (100.0)	1:22 (100.0)	1:25 (100.0)

〈표 8-4〉 연령 및 요일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10대			20대		
가족과의 식사	0:28	0:37	0:49	0:26	0:31	0:3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0	0:00	0:00	0:17	0:18	0:17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0	0:01	0:02	0:13	0:13	0:13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	0:00	0:00	0:02	0:01	0:0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0	0:00	0:00	0:01	0:01	0:00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	0:01	0:00	0:00	0:00	0:00
배우자 보살피기	0:00	0:00	0:00	0:02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2	0:01	0:01	0:02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4	0:08	0:12	0:08	0:13	0:16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0	0:01	0:01	0:03	0:03	0:02
계	0:33	0:49	1:06	1:13	1:22	1:29
구 분	30대			40대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의 식사	0:39	0:44	0:54	0:40	0:44	0:50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16	0:16	0:15	0:01	0:01	0:01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15	0:15	0:19	0:02	0:01	0:02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3	0:03	0:01	0:00	0:00	0:0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8	0:07	0:04	0:05	0:05	0:02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7	0:04	0:05	0:02	0:02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2	0:02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1	0:17	0:23	0:12	0:16	0:23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6	0:07	0:04	0:04	0:04	0:05
계	1:48	1:56	2:08	1:09	1:16	1:27

〈표 8-4〉 계속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50~64대			65세 이상		
가족과의 식사	0:48	0:50	0:55	0:56	0:56	0:50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4	0:04	0:03	0:03	0:02	0:07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7	0:07	0:06	0:06	0:06	0:09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	0:00	0:00	0:01	0:00	0:0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1	0:01	0:00	0:01	0:01	0:01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	0:01	0:00	0:00	0:01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2	0:02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0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2	0:16	0:21	0:12	0:16	0:19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4	0:01	0:02	0:02	0:01	0:03
계	1:20	1:22	1:30	1:24	1:25	1:34

다.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혼인상태별 가족공유시간 실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가 1시간 43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사별자 1시간 9분, 이혼자 39분, 미혼자 35분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평일이 1시간 40분, 토요일은 평일보다 6분 증가한 1시간 46분, 일요일은 1시간 58분으로 평일보다 18분 증가하였다. 사별자는 평일이 1시간 7분, 토요일은 평일보다 7분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1시간 9분으로 평일보다는 2분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혼자는 평일이나 일요일 모두 38분이었으며 토요일은 1분 가량 증가하였다. 미혼자는 평일 31분, 토요일 38분, 일요일 54분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

구 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가족과의 식사	0:27(77.1)	0:48(46.6)	0:38(55.1)	0:21(53.9)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0(0.0)	0:12(11.7)	0:05(7.2)	0:02(5.1)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1(2.9)	0:11(10.6)	0:08(11.6)	0:03(7.7)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0.0)	0:02(1.9)	0:01(1.4)	0:00(0.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0(0.0)	0:04(3.9)	0:02(2.9)	0:03(7.7)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0.0)	0:03(2.9)	0:00(0.0)	0:01(2.6)
배우자 보살피기	0:00(0.0)	0:03(2.9)	0:00(0.0)	0:00(0.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2.9)	0:01(1.0)	0:01(1.4)	0:00(0.0)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5(14.2)	0:14(13.6)	0:12(17.5)	0:07(17.9)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1(2.9)	0:05(4.9)	0:02(2.9)	0:02(5.1)
계	0:35(100.0)	1:43(100.0)	1:09(100.0)	0:39(100.0)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유배우자는 가족공유시간의 46.6%를 차지하는 평균 48분을 가족과의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별자는 38분, 이혼자는 21분으로 유배우자와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사별보다는 이혼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원과의 사이에 해체가 발생되는 관계로 가족과의 식사시간도 훨씬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유배우자의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시간은 25분임에 비해 사별자는 14분, 이혼자는 5분에 불과하였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시간 또한 유배우자는 7분, 사별자는 2분, 이혼자는 4분 가량으로 나타나 사별자와 이혼자는 자녀와의 공유시간도 유배우자보다 적었다.

가족·친척과의 교제시간을 살펴보면 유배우자는 14분, 사별자는 12분으로 차이가 약 2분 정도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자는 7분으로 유배우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이혼한 가정의 정서적 외로움이나 고립감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교제도 활발하지 않아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단절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8-6〉 혼인상태 및 요일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미혼			유배우		
가족과의 식사	0:24	0:31	0:40	0:46	0:50	0:5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0	0:00	0:00	0:12	0:12	0:11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1	0:01	0:01	0:11	0:11	0:13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	0:00	0:00	0:02	0:01	0:0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0	0:00	0:00	0:05	0:04	0:02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	0:00	0:00	0:03	0:02	0:03
배우자 보살피기	0:00	0:00	0:00	0:03	0:03	0:02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4	0:04	0:11	0:12	0:17	0:24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1	0:01	0:01	0:05	0:05	0:04
계	0:31	0:38	0:54	1:40	1:46	1:58
	사별			이혼		
가족과의 식사	0:37	0:39	0:40	0:21	0:20	0:23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5	0:05	0:02	0:02	0:02	0:01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8	0:08	0:06	0:02	0:03	0:03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	0:01	0:01	0:00	0:00	0:0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2	0:02	0:01	0:03	0:04	0:01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	0:01	0:00	0:01	0:01	0:01
배우자 보살피기	0:00	0:00	0:00	0:00	0:00	0:0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0	0:00	0:01	0:00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1	0:15	0:17	0:07	0:07	0:08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2	0:02	0:02	0:02	0:01	0:01
계	1:07	1:14	1:09	0:38	0:39	0:38

라.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교육수준별 가족공유시간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학력자가 1시간 26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무학력자 1시간 20분, 초등학교

교 학력자와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시간 15분, 중학교 학력자 1시간 11분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평일에는 고등학교 학력자가 1시간 22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학력자는 1시간 19분, 초등학교 학력자 1시간 11분, 중학교 학력자와 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1시간 7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8-7〉 교육수준별 한국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

구 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가족과의 식사	0:52 (64.9)	0:50 (66.7)	0:42 (59.2)	0:38 (44.2)	0:34 (45.3)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4 (5.0)	0:03 (4.0)	0:04 (5.6)	0:11 (12.8)	0:09 (12.0)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7 (8.8)	0:05 (6.7)	0:03 (4.2)	0:09 (10.5)	0:09 (12.0)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 (1.3)	0:00 (0.0)	0:01 (1.4)	0:02 (2.3)	0:01 (1.3)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1 (1.3)	0:01 (1.3)	0:03 (4.2)	0:04 (4.6)	0:02 (2.7)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0 (0.0)	0:01 (1.3)	0:01 (1.4)	0:03 (3.5)	0:02 (2.7)
배우자 보살피기	0:02 (2.5)	0:01 (1.3)	0:02 (2.8)	0:02 (2.3)	0:01 (1.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0 (0.0)	0:01 (1.3)	0:01 (1.4)	0:01 (1.2)	0:01 (1.3)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2 (14.9)	0:11 (14.7)	0:11 (15.6)	0:12 (14.0)	0:12 (16.0)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1 (1.3)	0:02 (2.7)	0:03 (4.2)	0:04 (4.6)	0:04 (5.4)
계	1:20 (100.0)	1:15 (100.0)	1:11 (100.0)	1:26 (100.0)	1:15 (100.0)

가족공유시간이 증가하는 주말 중 일요일을 살펴보면, 평일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은 대학 이상의 학력자로 평일보다 33분이 증가하여 1시간 40분이었고, 다음은 중학교 학력자 1시간 26분으로 19분이 증가하였다.

가족과의 식사시간은 무학력자가 요일 평균 52분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집단은 대학 이상 학력자로 34분이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식사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학력층은 대부분 젊은 층으로 고연령층보다는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고 그 외 사회활동이 많음으로써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요일별로는 평일 의 경우 무학력자가 52분, 초등학교 학력자 48분이었으며, 가장 적은 집단은 대학 이상 학력자로 30분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초등학교 학력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전체 학력층에서 모두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족과의 식사시간이 증가하였다. 평일과 일요일간의 가족과의 식사시간 차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났다.

미취학아이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고등학교 학력자가 가장 많은 22분이었으며,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9분이었고, 가장 적은 집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자로 각각 8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행동은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9분으로 많았으며, 다음은 무학력자 7분, 초등학교 학력자 5분, 중등학교 학력자 3분 등의 순이었다.

초·중·고등학생을 보살피는 시간은 고등학교 학력자가 가장 많은 7분이었으며, 중학교 학력자와 대학 이상 학력자는 각각 4분이었고,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인 집단은 무학력자로 1분에 불과하였다. 특히 숙제와 공부를 봐주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약 1~3분에 불과하였으나 고등학교 학력자는 3분, 대학 이의 학력자는 2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자는 각각 1분이었다. 이는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숙제와 공부를 봐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 데서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가족·친척과의 교제는 요일 평균 11~12분이었으며,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그리고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8-8〉 교육수준 및 요일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초등학교			중학교		
가족과의 식사	0:48	0:53	0:58	0:40	0:45	0:52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3	0:03	0:02	0:04	0:03	0:03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5	0:06	0:06	0:03	0:03	0:04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	0:00	0:00	0:01	0:00	0:0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1	0:01	0:01	0:03	0:03	0:01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1	0:00	0:01	0:01	0:01	0:01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1	0:01	0:02	0:01	0:02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2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9	0:14	0:18	0:09	0:13	0:19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2	0:02	0:02	0:03	0:03	0:03
계	1:11	1:21	1:31	1:07	1:13	1:26
	고등학교			대학 이상		
가족과의 식사	0:36	0:40	0:47	0:30	0:37	0:48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11	0:11	0:10	0:09	0:10	0:09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9	0:10	0:10	0:08	0:10	0:12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2	0:01	0:01	0:01	0:01	0:0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4	0:04	0:02	0:02	0:02	0:01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3	0:02	0:02	0:02	0:02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2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0	0:13	0:18	0:09	0:17	0:21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4	0:04	0:03	0:04	0:05	0:04
계	1:22	1:28	1:35	1:07	1:26	1:40

마.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경제활동 비참여자(1시간 34분)가 경제활동 참여자(59분)보다 가족공유시간을 35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비

교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평일 59분, 토요일 1시간 9분, 일요일 1시간 27분으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더 많은 가족공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평일 1시간 31분, 토요일 1시간 41분, 일요일이 1시간 27분으로 토요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에게 할애하고 있었으며, 일요일에는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여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표 8-9〉 경제활동여부별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

구 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가족과의 식사	0:32(54.2)	0:43(45.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3(5.1)	0:12(12.8)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5(8.5)	0:11(11.7)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1.7)	0:02(2.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2(3.4)	0:03(3.2)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1(1.7)	0:03(3.2)
배우자 보살피기	0:01(1.7)	0:02(2.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1.7)	0:01(1.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0(16.9)	0:13(13.8)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5.1)	0:04(4.3)
계	0:59(100.0)	1:34(100.0)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요일 평균 32분이며,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3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4분 증가하여 39분, 일요일은 평일보다 12분 많아져 47분을 할애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평일이 41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48분과 47분으로 6~7분 더 많았다.

〈표 8-10〉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가족과의 식사	0:35	0:39	0:47	0:41	0:48	0:4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0:03	0:04	0:04	0:13	0:13	0:04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4	0:05	0:08	0:11	0:11	0:08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	0:01	0:00	0:02	0:01	0:0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2	0:02	0:01	0:03	0:03	0:01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1	0:01	0:02	0:03	0:02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1	0:01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8	0:12	0:20	0:11	0:16	0:20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	0:03	0:03	0:04	0:04	0:03
계	0:59	1:09	1:27	1:31	1:41	1:27

그리고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시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9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25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에게 할애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보다는 평일에 더 많은 시간을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에 할애하였다.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시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6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시간은 요일 평균 1분으로 경제활동참여 여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친척과의 교제시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10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13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 또는 부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서 가족과의 식사시간이나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가족공유시간

직장인의 직업유형별 가족공유시간량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종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으로 요일 평균 1시간 24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이 1시간 6분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종은 기능직으로 56분이었다. 요일별로는 평일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1시간 22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직이 1시간 4분, 단순노무직이 1시간 2분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종은 사무직으로 49분이었는데 이는 농업·임업·어업숙련직과 약 15분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일요일의 경우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이 1시간 4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으로 1시간 16분이었는데 이는 기술직 및 준전문직과 약 24분 차이가 있었다.

가족과의 식사를 위한 시간량을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요일 평균 1시간 1분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외 직종들은 31~37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다른 직종보다 약 30여 분이나 많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 외에도 식사사이의 간식(새참)이 식사 횟수와 시간이 많아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8-11〉 직업유형별 직장인의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

구 분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임업· 어업 숙련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가족과의 식사	0:34 (54.9)	0:31 (52.6)	0:30 (51.8)	0:35 (53.0)	1:01 (72.6)	0:34 (60.7)	0:37 (56.1)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09 (14.5)	0:11 (18.6)	0:10 (17.2)	0:10 (15.2)	0:07 (8.3)	0:07 (12.5)	0:09 (13.6)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03 (4.8)	0:02 (3.4)	0:04 (6.9)	0:05 (7.6)	0:01 (1.2)	0:03 (5.3)	0:05 (7.6)
배우자 보살피기	0:01 (1.6)	0:01 (1.7)	0:01 (1.7)	0:01 (1.5)	0:01 (1.2)	0:01 (1.8)	0:01 (1.5)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0 (0.0)	0:00 (0.0)	0:00 (0.0)	0:01 (1.5)	0:01 (1.2)	0:00 (0.0)	0:01 (1.5)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2 (19.4)	0:11 (18.6)	0:10 (17.2)	0:11 (16.7)	0:10 (11.9)	0:09 (16.1)	0:11 (16.7)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 (4.8)	0:03 (5.1)	0:03 (5.2)	0:03 (4.5)	0:03 (3.6)	0:02 (3.6)	0:02 (3.0)
계	1:02 (100.0)	0:59 (100.0)	0:58 (100.0)	1:06 (100.0)	1:24 (100.0)	0:56 (100.0)	1:06 (100.0)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시간은 기술공 및 준전문직이 가장 많아 요일 평균 11분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인 직종인 농업·임업·어업숙련직(7분)이나 기능직(7분)보다 4분이 많았다.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는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이 5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집단은 농업·임업·어업숙련직으로 불과 1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가족·친척과의 교제는 약 9~12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 기능직이 가장 적었다. 또한 이들 모두 평일보다는 토요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가족·친척과의 교제시간이 많아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표 8-12〉 직업유형 및 요일별 직장인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가족과의 식사	0:29	0:39	0:51	0:27	0:34	0:49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08	0:12	0:14	0:09	0:12	0:2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03	0:04	0:04	0:02	0:03	0:03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0	0:01	0:00	0:00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8	0:19	0:25	0:08	0:14	0:22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	0:05	0:04	0:03	0:04	0:05
계	0:52	1:20	1:39	0:50	1:09	1:40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족과의 식사	0:26	0:32	0:45	0:34	0:36	0:40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09	0:12	0:16	0:10	0:10	0:1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04	0:03	0:03	0:06	0:05	0:03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2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0	0:01	0:01	0:01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7	0:13	0:23	0:09	0:11	0:18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2	0:04	0:04	0:03	0:03	0:02
계	0:49	1:07	1:33	1:04	1:07	1:16
		농업·임업·어업숙련직		기능직		
가족과의 식사	1:01	1:02	1:03	0:32	0:33	0:44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07	0:06	0:06	0:07	0:06	0:1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01	0:01	0:01	0:03	0:02	0:02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2	0:02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0	0:01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8	0:12	0:16	0:07	0:11	0:19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	0:02	0:02	0:02	0:03	0:04
계	1:22	1:26	1:31	0:52	0:57	1:21

〈표 8-12〉 계속

구 분	평일	토요일 단순 노무직	일요일
가족과의 식사	0:35	0:37	0:47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09	0:10	0:1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05	0:04	0:04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1	0:02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0	0:0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9	0:10	0:20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2	0:03	0:03
계	1:02	1:05	1:28

5.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가족공유시간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가족공유시간량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약 1시간 27분이 적은 1시간 36분을 할애하고 있다. 요일별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평일 1시간 33분, 토요일은 1시간 38분으로 5분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은 1시간 53분으로 20분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 경우 평일의 가족공유시간은 3시간 5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보다 1시간 32분이 많았으며, 토요일은 1시간 25분, 일요일은 58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보다는 평일에 가족공유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가족과의 식사시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48분,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59분이었다. 요일별로는 모두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시간량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평일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46분,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57분으로 약 11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토요일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 1시간 3분으로 14분이 많았고, 일요일은 1시간 6분으로 9분이 더 많았다.

〈표 8-13〉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요일 평균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

구 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가족과의 식사	0:48(50.0)	0:59(32.2)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18(18.8)	1:10(38.3)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11(11.5)	0:15(8.2)
배우자 보살피기	0:02(2.1)	0:07(3.8)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1.0)	0:02(1.1)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2(12.5)	0:21(11.5)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4(4.1)	0:09(4.9)
계	1:36(100.0)	3:03(100.0)

미취학아이를 보살피는 시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요일 평균 18분, 평일과 토요일 18분, 일요일 19분으로 약 1분의 차이가 있었으며 평일이나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미미하나마 다소 증가된 경향이 있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요일 평균 1시간 10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평일은 1시간 13분, 토요일은 1시간 7분, 일요일은 58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과는 반대로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시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돌보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이 요일 평균 11분, 평일 12분, 토요일 9분, 일요일 7분으로 약 2~3분씩 감소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요일 평균 15분이었으며, 평일은 17분, 토요일은 12분, 일요일은 9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며 역시 평일보다는 일요일로 갈수록 돌보는 시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자녀가 초·중·고등학생보다는 미취학자녀가 더 많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집단의 경향으로 살펴볼 때 초·중·고등학생보다는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듯 하다. 이점으로 미루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이 미취학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일 경우보다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4〉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가족과의 식사	0:46	0:49	0:57	0:57	1:03	1:06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18	0:18	0:19	1:13	1:07	0:58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12	0:09	0:07	0:17	0:12	0:09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3	0:03	0:07	0:07	0:0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2	0:02	0:03
가족, 친척과의 교제	0:10	0:14	0:22	0:19	0:25	0:27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4	0:04	0:04	0:10	0:08	0:04
계	1:33	1:38	1:53	3:05	3:04	2:51

IX.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효율화 방안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등 모두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체 한국인 및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활시간배분실태, 주요 집단별 생활시간배분실태의 비교 분석을 통한 결과 등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 방안이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 반드시 최선의 방안인 것은 아니며, 통계학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일반적 인식 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에서 수면 등 개인유지 다음으로 큰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교제 및 여가활동이며,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TV 시청을 위한 시간량은 과도하게 많았다. 따라서 자기발전을 꾀하고 사회에 순기능적인 영역에 이러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개인의 시간활용이 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TV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연령층에 알맞은 흥미중심에서 교양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에서 개인유지 다음으로 큰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4시간 49분이나 되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TAPE 등 음악 듣기, 컴퓨터 정보이용 등 대중매체 이용은 가장 많은 2시간 23분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매체 이용 항목이 대부분 TV 시청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인의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매우 낮아 좋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독서, 사회봉사, 가정관리, 가족 돌보기 등의 항목에 시간량을 증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에게 TV의 위력은 대단히 높게 인식되므로 오락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양프로그램의 전환하여 국민을 계도하는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 요망된다.

2.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한국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체 한국인에게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과 학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말과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여성 및 노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의 가치부여와 참여확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각 개인은 동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0세 이상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1일 평균 4분에 불과하였다. 이를 개별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친구가게 봐주기, 이웃집 농사일 또는 잔치음식 준비 돕기 등의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는 2분, 민방위·예비군 훈련, 환경운동 등 집회·시위참여나 투표참여, 각종 선거유세 관람, 정치적 집회 등 정부기관 행사 참여, 정부나 민간의 각종 설문조사 등의 사회참여활동은 1분에 불과하였다. 특히 반사회, 쓰레기 분리수거당번, 마을 청년회·부녀회 활동, 지역의 대책회의, 방범활동, 마을청소 등 지역공동체 활동은 0.5분 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행사,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 복구관련 등의 자원봉사는 1분에 불과하였다. 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여유시간을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1일 평균 남자 4분, 여자 3분으로 낮았으며, 각 항목별 시간량도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가에 비추어 보아 시간배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인 지역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이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 및 봉사활동이 평일에는 일, 학업, 가사 등의 사회적 및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시간을 배분하지 못할 수 있음은 이해되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러한 활동에 시간배분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동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몽 및 인식부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부인들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량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24시간 중 3분을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부인은 24시간 중 2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부인이라고 하여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아울러 향후 미취업 부인과 활동 가능한 노인인력을 참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며, 아울러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학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3. 시간의 효율적 활용은 삶을 보다 창조적이게 하고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때,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나 외국어 학습, 전문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등을 포함한 일반학습시간을 보다 증가시킴으로서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중 독서시간은 평균 10분인데 반하여, TV 시청은 2시간 5분에 달하고 있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촉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그 적은 시간이 더 적어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영역과 부합되는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독서량도 많지는 않았는데 평균 10분 가량으로 직종별로는 농림·임업·어업숙련직이 3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문직이 10분으로 가장 많았는데, 직업 지위가 낮을수록 독서시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6.7%가 한 달에 2권 이상 읽는데, 2~3권의 책을 읽는 CEO(30명중 13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1주일에 1~2권(12명), 한 달에 1권(4명), 1주일에 3~4권(1명) 순이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1)

4.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각종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하는 데 활동시간량을 증대시켜야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40대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이며, 이의 주요 요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임은 밝혀진 사실이다. 건강관리는 걷기와 산책, 등산이나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나 수영 등의 운동, 낚시나 암벽등반 등 다양한 스포츠, 레저활동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 경우 이러한 시간은 평균 14분에 불과하였으며 서비스·판매직, 농업·임업·어업숙련직, 단순노무직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농업·임업·어업숙련직이 가장 시간량이 적었는데 이는 일 자체도 과중하고 환경 및 경제적 여건상 산책, 걷기, 등산 등과 같이 경비가 적게 드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 스포츠센터에서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체육활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나 이용방법 등을 다양화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은 정기검진이나 운동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데 있다. 현대인은 각박한 생활사나 상대적 빈곤감 등 다양한 소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 등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영화나 연극관람, 전시회나 박물관 행사 참여, 각종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정신 건강 함양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대부분 약 1~3분을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기능직은 0.5분 미만이었으며, 한국인 전체는 1분에 불과하여 비교적 문화적 혜택을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다. 최근 생산적 복지에서 논의된 문화정책을 주장한 Staay교수는 국민의 생활양식이 시장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Sttay, 2001). 따라서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산적 복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정책을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가족원을 보살피는 절대적 시간량을 늘려 가족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화목한 가족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최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가족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 및 노부모에 대한 관심은 최근 부부중심의 가족관에 의하여 소외되고 있는 취약가족원에 대한 배려일 것이며,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증가시켜 가족갈등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을 보면, 평균 1시간 18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58분, 여자는 여자가 전업주부인 경우로 인하여 공유시간이 증가하였을 수 있는데, 남자보다 41분 많은 1시간 39분으로 하루 24시간 중 약 4~6%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족공유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과의 식사'시간은 평균 40분이었는데 65세 이상 연령층은 평균보다 15분이나 많았으며 연령층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사별자 1시간 9분, 유배우자 1시간 43분인 반면, 이혼자 39분에 불과하였다.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 자녀, 배우자, 노부모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25분에 불과하였다. 대상가족별로는 미취학 아동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16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살피기 5분, 배우자 보살피기 1분,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1분, 기타 가족 보살피기 1분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아동, 노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인 전체 요일 평균을 보여주는 본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항목의 시간배분량과 비교하여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족 보살피기의 개별항목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는 요일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보살피는 시간은 평일(5분)보다는 토요일(4분)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3분)이 오히려 적었다(통계청, 2000a).

배우자 돌보기 시간은 평균 2분이며, 유배우 남자는 1분, 유배우 여자는 3분으로 적은 시간이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통계청, 2000a). 현대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상이나 개인주의 사상의 확산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부부관계로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의 결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날 부부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두 남녀가 한 공동체로서 인격적으로 융합하여 이를 기초로 만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부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관심과 이해를 기본으로 한 의사소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배우자에 대한 앎을 통해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만이 아니라 남편 또한 배우자의 관심영역을 서로 알아가고 보살핌의 다양한 방법을 배워 각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는 프로그램이 직장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조부모 보살피기 시간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꼭 장남이 노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추세가 기울고 이와 함께 핵가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관리 및 노후준비를 통해 과거에 비해 건강하고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 아직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량이 적었을 수도 있으며 조부모를 돌보는 방법이 시간보다는 물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가구에 따라 분석하는데는 자료상 제한이 있었으나, 이 정도의 적은 시간량의 투입은 노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구가 많고, 그만큼 노인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버림받고 있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이 없는 해체가족원과 노인 단독가구는 가족의 보살핌이 적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심리적 고독감과 외로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망된다. 다시 말해 이들을 위한 시간배분이 더욱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유형, 각급 학교 학생, 부인의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시간배분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량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공휴일의 수면시간은 평일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토요 휴무제 도입에 대비하여 동 시간을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목에 할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개인유지를 위한 많은 시간량은 대부분 수면시간이며, 이는 평일과 토요일

은 각각 7시간 39분, 7시간 44분으로 유사하였으며, 일요일은 8시간 31분으로 현저하게 많았다. 그러나 개인위생, 옷갈아 입기 및 외모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의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51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자가 치료, 의료서비스 받기, 아파서 쉬는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은 7분이었다. 따라서 수면시간을 다소 줄여 개인관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투입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면 공휴일이라고 인식하여 현재의 일요일처럼 수면 시간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휴일에 수면시간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동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시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시간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으로는 전술한 가족공유시간,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행위, 독서 및 일반인의 학습 등의 자기개발, 참여 및 봉사활동 등이 라 하겠다.

7.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배우부인의 부족한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 피기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가정관리는 자신의 가족 및 가구를 위한 가정유지 및 관리 행동으로 요리, 세탁, 청소, 물품구입, 가정경영 등 가사 일이 포함되어있는 활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4시간 39분(19.4%),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2시간 58분(12.4%)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경제활동에 참여부인은 경제활동 비참여부인보다 가정관리 시간량이 약 1시간 41분 적었다. 음식 준비 및 정리를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 1시간 44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 2시간 26분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부인들의 시간 사용은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에 평일보다는 주말로 갈수록 시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부인들의 경우는 평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시간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부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가정관리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들의 가정관리와 일과의 병행을 위한 시간사용의 어려

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경우 평일에 일을 함으로써 절대시간 부족에 따라 돌볼 수 없었던 가정관리를 휴일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경제활동참여부인들이 일과 가사 및 가족 보살피기에 따른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 보살피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시간 40분이나 경제활동 참여부인은 35분만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평일에 일을 함으로써 절대시간 부족에 따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간의 시간활용 상 차이를 보여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보살피는 데 있어 경제활동참여부인은 31분을 소요하는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는 1시간 28분을 소요하였다. 특히 미취학아동 보살피기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은 18분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시간 10분으로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및 조부모 등의 기타 가족원을 보살피기에 있어서 경제활동참여부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족 내에서의 대책, 즉, 남편의 도움 등과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8. 직장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배우부인의 노동과 여가시간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

직장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배우부인의 과반수 이상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여유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0% 이상이었고, 경제활동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도 80~90%가량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장생활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고 시간부족을 느끼나 정작 여유시간을 갖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들 중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유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이 약 50%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흥미나 취미가 없고 갈 곳이 마땅하

지도 않으며, 피곤하거나 아프고, 함께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고루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직장인들이 여가시간을 통해 활력소를 재충전하여 노동에 재투입하는 생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가는 노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기도 하나 노동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Kelly, 1972). 여가가 창조적인 노동과 같이 생산적이며 가치롭다고 생각될 경우 그로 인한 만족과 성취감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노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노동과 여가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따라서 향후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9.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경제참여율의 증가는 성평등 사회의 달성과 여성의 자아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증대로 인한 부족한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가정에서의 전통적 성 역할 시각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2000)」에 따르면, 약 140여 개국가운데 한국은 남녀평등지수¹⁰⁾는 30위, 여성의 권한 척도¹¹⁾는 63위로 한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00b).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에서 성취해야할 역할에 있어 직무에 대해서는 남녀간 평등성을 갖고 있으나, 가사 및 육아에서는 성 평등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가정관리의 항목별 배분시간량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동 시간량은 여자가 2시간 40분이었으나 남자는 20분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는 미취업 여성, 즉, 전업주부에 의한 영향

10)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임(통계청, 2000b).

11)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 의회의원 점유율, 관리직·전문직 비율, 소득에 있어서 여성비율 등을 근거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임.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감안할 경우 취업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정관리를 위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가정관리를 위한 여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에 1시간 25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청소 및 정리 32분, 의류관리 23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14분, 집관리 3분, 가정경영 3분 등이었다. 또한 여자의 가정관리 항목별 시간량은 남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요일에 따라서는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를 위한 남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 7분, 음식준비 및 정리와 집관리에 각각 4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3분, 의류관리와 가정경영 각각 1분 등으로 가정관리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일별로 구분하면,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가정관리를 위한 남자의 시간량이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우 적은 시간량을 보였다.

그리고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요일 평균 25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41분, 남자는 겨우 8분에 그쳐 성별에 따른 격차가 심하였다(통계청, 2000a). 가족 보살피기는 주로 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는 취업여성의 증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한 영역인 것으로 가사, 가족 돌보기 등에 대한 남녀의 역할분담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토요일 및 일요일에 가족을 위한 시간할애가 요망된다. 물론 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일'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쉽지는 않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개인과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인이 취업여성인 경우 남성의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에서의 평등한 성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이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남성의 성 역할 변화를 위한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0. 이혼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들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혼가족의 가정관리, 가족원 보살피기 등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을 위한 시간량은 결혼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혼자가 5시간 16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유배우자 4시간 39분, 사별자 2시간 35분, 미혼자는 2시간 13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상태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이혼자의 경우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무려 5시간 4분이나 되었으며, 이들은 평일 5시간 21분에서 일요일에도 무려 4시간 11분 동안 일하고 있어 요일에 상관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장근무 또는 자영업종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이혼상태의 사람은 평일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이혼상태인 가구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회적 지원체제도 적극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1. 우리나라 학생의 자질향상과 전인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초·중·고·대학생의 독서시간량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학생의 학습량 증대와 연구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겠다.

초등학생의 하루일과를 조사한 한 설문 조사(조선일보, 2001년 5월 2일자)에 따르면, 초등학생 1,363명 가운데 하루 '4시간 이상' TV를 보는 아동이 37.5%,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은 30.2%가량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부엔 '1시간 미만'(26.9%)에 불과하였다. 특히 독서량에 대해 매월 '10권 이상'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아동은 39.5%, '5권 미만'은 20.5%, '1권' 15.9%, '전혀 읽지 않는다' 10.2%로 TV시청에 비해

독서량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관심있는 도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독서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독서지도가 학교 정규과정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접근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독서 기피증(어떤 일을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는 것)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을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치원생도 그림책은 그런 대로 보지만 글씨가 많은 책은 한 줄도 읽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많은 이용은 궁금한 점에 대해 사고해 봄으로서 얻게되는 심리적 준비도를 낮추게 되어 사고력이 저하되고, 행동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며, 두뇌활동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휘력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아동들이 사용하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포함하여 일상 언어들이 매우 파격적이고, 많은 부분은 연예인이 사용하는 유행어에 좌우되고 있으며, 어휘력은 사고력뿐만 아니라 어휘는 문화적 수준을 표현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생의 독서시간량은 9분으로 초등학생의 17분, 중학생의 12분, 대학생의 16분에 비해 가장 적은 시간량을 보였다. 이는 다독과 정독을 통해 사고력과 풍부한 정서를 배양해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는 장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입시문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입시문화가 잘 드러난 대목은 학생들의 학업시간량이었는데,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 학교 외 학원이나 자율학습시간 등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학생집단은 고등학생으로 평균 8시간 51분, 즉 24시간 36.9%로 개인유지 외에는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평균 학습시간량은 4시간 28분으로 고등학생의 학습시간량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있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은 1시간 31분이 증가하였다.

대학생의 수업 외 시간은 자율시간으로 대부분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거나 부족한 공부를 보충한다. 과거 학교이름이 명예와 학생의 지적수준을 대변해주던 사회적 통념(通念)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전공 공부를 통해 자신의 지향점이 뚜렷한 특성화된 과정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한 학문

적 도약(跳躍)을 이루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학생의 비단 학습시간량이나 독서시간량만 보더라도 향학열을 불태우기보다는 학과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을 듣는 정도로 예측되는 시간이 할애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 지식인을 요구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서 대학인들의 꾸준한 연구활동과 학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진학에 대한 의식변화와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부터 전공학문에 대한 애착과 관련 학문활동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대학생 지도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X. 결 론

오늘날 시간의 가치가 중요시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간은 정보를 의미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라는 명언처럼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가 결정되는 것은 비단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의 고위공무원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당연한 사실 일 것이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발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즈음 국가차원에서 최초의 생활시간 실태조사가 1999년 9월에 실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일 24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생활시간 사용양식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동 실태조사자료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아쉬웠다. 주요한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 및 가족단위의 조사가 수행되지 못하고 개인단위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가구원과 떨어져 사는 부인, 자녀, 노부모 등의 비동거 가족원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 가구원이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을 보살피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물론 필요한 가구만을 분석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예를 들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시도하지 못하였다.

둘째, 여가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0%를 넘을 정도로 여가시간은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선행연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가구 또는 개인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어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

셋째, 직장인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넷째, 본 조사가 실시된 시기는 9월이어서 기존의 생활시간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계절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집단인 농촌거주자의 생활시간은 평일과 휴일의 구분보다는 농업노동의 특성에 따라 계절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농번기와 농한기는 농촌의 생활시간양상을 변화시키며, 농한기는 여가활동 또는 부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농번기에는 농촌에 거주하나 취업한 가구원도 많은 시간을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바 이를 추후 조사에서는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시되는 생활시간배분실태조사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지적이 해결됨으로써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자료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시간의 효율적 사용은 개인 및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상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5일 근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한국인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제도도입 이후 국민의 시간활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이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는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다른 영역, 예를 들면,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배분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다중적 역할부담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본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개인 및 집단의 시간배분에 의하여

도 가능할 것이며,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튼 본 연구가 국민 개개인이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하여 개인 당사자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 및 사회가 활기를 되찾으며, 궁극적으로 전체 한국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신주·서영숙·최보가,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1968.
-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외숙,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박사논문, 1991.
- 김외숙·서창원,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 대학 논문집』, 1986.
- 김외숙·이기춘,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988.
- 김외숙·조희금·두경자,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2000.
-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보고서』, 1979, 1984, 1994.
- 문숙재,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1996.
- 박이안 역, 자이베르트 저, 『시간관리학(Time is Money: Save it)』, 미래비즈니스, 1993.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309호, 2001.
- 서병숙·임정빈, 『가정관리학』, 동명사, 1983.
- 유성은, 『시간관리와 자아실현』, 생활지혜사, 1988.
- 이기영 외, 「남편의 직종과 조직내 성 역할 문화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998.
- 이연택·민창기 역, 스탠리 파커 저(1976) 『현대사회와 여가』, 일신사, 1995.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00a.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b.
- 矢野眞和 編著, 『生活時間の 社會學』, 동경: 동경대학출판부, 1995.
- 令井光映, 『家庭經營學』,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81.
- Dollahite, D.C. & Rommmel, J.I., "Individual and Relationship Capital: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on Fmaili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1), 1993.
- Kelly, J. R. "Work and Leisure: A Simplified Paradig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Winter 1972.
- Rice, A. S. & S. M.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 6th ed,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1986.

Staay, Adriaan van der, "Improving Quality of Life by Culture in Korea: Eight Strategic Suggestions for a Cultural Policy Problem",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Sharing Productive Welfare Experience, September 6~7, 2001, Korea.

Szalai, A. (ed.), *The Use of Time*, The Hague: Mouton, 1972.

부 록

1. 성 및 요일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남자			여자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개인유지	10:10	10:12	11:06	10:09	10:17	11:04
일	5:04	4:31	2:40	3:01	2:39	1:45
학습	1:51	1:13	0:30	1:38	1:01	0:26
가정관리	0:18	0:22	0:29	2:37	2:46	2:49
가족 보살피기	0:07	0:08	0:12	0:43	0:41	0:35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3	0:03	0:03	0:03	0:02
교제 및 여가활동	4:34	5:30	7:08	4:16	4:55	5:48
이동	1:45	1:54	1:45	1:24	1:28	1:22
기타	0:07	0:07	0:07	0:09	0:10	0:09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 연령 및 요일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10대			20대		
개인유지	10:03	10:06	11:44	10:06	10:23	11:12
일	0:26	0:24	0:20	4:34	3:39	1:51
학습	8:11	5:44	2:19	1:05	0:34	0:20
가정관리	0:10	0:17	0:28	1:06	1:11	1:21
가족 보살피기	0:02	0:03	0:05	0:36	0:37	0:35
참여 및 봉사활동	0:00	0:01	0:01	0:06	0:04	0:04
교제 및 여가활동	3:30	5:35	7:45	4:29	5:28	6:44
이동	1:32	1:43	1:12	1:51	1:57	1:46
기타	0:06	0:07	0:07	0:07	0:07	0:07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구 분	30대			40대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개인유지	9:56	10:04	11:04	9:54	9:59	10:42
일	5:38	4:42	2:40	5:53	5:15	3:19
학습	0:02	0:02	0:00	0:01	0:01	0:00
가정관리	1:50	1:58	2:04	1:58	2:05	2:08
가족 보살피기	0:55	0:51	0:49	0:15	0:13	0:12
참여 및 봉사활동	0:03	0:02	0:02	0:03	0:02	0:02
교제 및 여가활동	3:52	4:26	5:33	4:10	4:34	5:43
이동	1:36	1:47	1:40	1:38	2:43	1:46
기타	0:08	0:08	0:08	0:08	0:08	0:08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구 분	50~64세			65세 이상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개인유지	10:13	10:11	10:33	11:19	11:20	11:18
일	4:39	4:24	3:05	2:12	2:08	1:45
학습	0:00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	2:04	2:08	2:04	1:59	1:55	1:51
가족 보살피기	0:18	0:17	0:15	0:16	0:15	0:14
참여 및 봉사활동	0:05	0:03	0:03	0:04	0:05	0:03
교제 및 여가활동	5:01	5:14	6:16	6:56	7:03	7:30
이동	1:30	1:33	1:35	1:02	1:02	1:08
기타	0:10	0:10	0:09	0:10	0:12	0:11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3. 혼인상태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미혼	유배우		
개인유지	10:04	10:14	11:30	10:07	10:10	10:52
일	2:26	2:07	1:13	5:04	4:27	2:44
학습	5:14	3:26	1:26	0:01	0:00	0:00
가정관리	0:18	0:26	0:38	2:01	2:06	2:08
가족보살피기	0:02	0:03	0:04	0:39	0:37	0:36
참여 및 봉사활동	0:03	0:03	0:03	0:03	0:02	0:03
교제 및 여가활동	4:02	5:43	7:31	4:25	4:50	5:51
이동	1:45	1:52	1:28	1:31	1:39	1:38
기타	0:06	0:06	0:07	0:09	0:09	0:08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사별	이혼		
개인유지	10:58	10:56	11:05	10:17	10:30	10:41
일	2:41	2:39	1:58	5:30	4:57	4:27
학습	0:00	0:01	0:01	0:02	0:00	0:00
가정관리	2:27	2:29	2:23	1:31	1:40	1:39
가족보살피기	0:20	0:19	0:11	0:10	0:12	0:08
참여 및 봉사활동	0:05	0:06	0:03	0:07	0:05	0:05
교제 및 여가활동	6:13	6:10	6:57	4:39	5:00	5:13
이동	1:05	1:08	1:11	1:35	1:27	1:39
기타	0:11	0:12	0:11	0:09	0:09	0:08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4. 교육수준 및 요일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초등학교				중학교		
개인유지	10:38	10:36	11:04	10:10	10:07	11:03
일	3:14	3:10	2:22	3:31	3:24	2:19
학습	1:58	1:17	0:22	2:56	1:48	0:39
가정관리	1:44	1:52	1:51	1:30	1:40	1:42
가족 보살피기	0:14	0:14	0:15	0:15	0:14	0:14
참여 및 봉사활동	0:03	0:03	0:03	0:03	0:02	0:03
교제 및 여가활동	4:44	5:18	6:34	4:03	5:05	6:29
이동	1:14	1:19	1:19	1:23	1:31	1:23
기타	0:11	0:11	0:10	0:09	0:09	0:08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고등학교				대학 이상		
개인유지	9:56	9:58	11:01	9:53	10:17	11:08
일	4:21	4:01	2:26	4:45	3:28	1:38
학습	1:46	1:15	0:35	1:10	0:35	0:22
가정관리	1:29	1:35	1:41	0:59	1:08	1:17
가족 보살피기	0:34	0:33	0:30	0:27	0:27	0:28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2	0:02	0:03	0:03	0:02
교제 및 여가활동	4:06	4:42	6:00	4:34	5:50	7:09
이동	1:36	1:46	1:38	2:03	2:06	1:50
기타	0:08	0:08	0:07	0:06	0:06	0:06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5.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개인유지	9:55	10:01	10:51	10:26	10:31	11:22
일	7:15	6:24	3:51	0:10	0:08	0:09
학습	0:07	0:05	0:03	3:42	2:23	1:01
가정관리	1:15	1:11	1:27	1:55	2:04	1:54
가족보살피기	0:14	0:15	0:18	0:37	0:36	0:30
참여 및 봉사활동	0:03	0:02	0:03	0:05	0:03	0:02
교제 및 여가활동	3:30	4:04	5:35	5:32	6:37	7:35
이동	1:43	1:50	1:44	1:24	1:29	1:19
기타	0:08	0:08	0:08	0:09	0:09	0:08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6. 직장인의 직업유형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개인유지	9:44	10:07	11:11	9:48	10:16	11:19
일	7:34	5:05	2:07	7:09	5:14	2:01
학습	0:09	0:02	0:03	0:17	0:07	0:10
가정관리	0:32	0:50	1:12	0:33	0:45	1:04
가족 보살피기	0:12	0:17	0:22	0:12	0:17	0:26
참여봉사활동	0:01	0:01	0:01	0:03	0:02	0:03
교제 및 여가활동	3:39	5:05	6:51	3:32	4:51	6:53
이동	2:03	2:27	2:08	2:21	2:22	1:58
기타	0:06	0:06	0:05	0:05	0:06	0:06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개인유지	9:46	10:15	11:31	9:48	9:52	10:26
일	6:35	6:32	1:47	7:10	7:02	5:22
학습	0:09	0:05	0:05	0:11	0:07	0:02
가정관리	0:42	0:57	1:30	1:30	1:30	1:42
가족 보살피기	0:14	0:19	0:23	0:19	0:17	0:18
참여봉사활동	0:01	0:01	0:01	0:03	0:02	0:01
교제 및 여가활동	3:23	6:26	6:37	3:19	3:30	4:28
이동	2:04	2:19	1:59	1:33	1:33	1:34
기타	0:06	0:06	0:07	0:07	0:07	0:07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농업·임업·어업 숙련직			기능직			
개인유지	10:20	10:15	10:27	10:00	9:55	11:02
일	5:37	5:30	4:50	8:03	7:27	3:55
학습	0:04	0:07	0:02	0:02	0:03	0:01
가정관리	1:52	1:48	1:50	0:40	0:41	1:01
가족 보살피기	0:12	0:12	0:10	0:11	0:10	0:16
참여봉사활동	0:08	0:07	0:08	0:01	0:01	0:01
교제 및 여가활동	4:11	4:21	5:00	3:18	8:46	5:45
이동	1:22	1:26	1:20	1:38	1:51	1:52
기타	0:14	0:14	0:13	0:07	0:06	0:07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6. 계속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단순 노무직			
개인유지	9:55	9:54	10:38
일	7:00	6:21	3:42
학습	0:07	0:04	0:02
가정관리	1:32	1:40	1:56
가족 보살피기	0:17	0:16	0:21
참여봉사활동	0:02	0:03	0:03
교제 및 여가활동	3:28	3:55	5:33
이동	1:31	1:38	1:36
기타	0:08	0:09	0:09
계	24:00	24:00	24:00

7.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 및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구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개인유지	9:41	9:49	10:34	10:17	10:19	10:51
일	6:25	5:50	3:49	0:10	0:07	0:09
학습	0:01	0:00	0:00	0:00	0:00	0:00
가정관리	2:52	3:01	3:28	4:43	4:46	4:12
가족보살피기	0:35	0:34	0:33	1:45	1:34	1:18
참여봉사활동	0:03	0:03	0:03	0:05	0:02	0:02
교제 및 여가활동	2:52	3:09	4:02	5:38	5:45	5:56
이동	1:21	1:24	1:22	1:10	1:16	1:23
기타	0:10	0:10	0:09	0:12	0:11	0:09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8. 학생의 요일별 생활시간활용실태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초등학생			중학생			
개인유지	11:08	11:00	12:08	10:13	10:08	11:55
일	0:01	0:02	0:02	0:01	0:04	0:05
학습	7:21	5:05	1:26	8:52	5:57	2:06
가정관리	0:08	0:13	0:22	0:09	0:15	0:29
가족보살피기	0:03	0:04	0:08	0:02	0:03	0:04
참여 및 봉사활동	0:00	0:01	0:00	0:00	0:01	0:01
교제 및 여가활동	4:02	6:06	8:39	3:15	5:50	8:10
이동	1:09	1:21	1:07	1:22	1:35	1:04
기타	0:08	0:08	0:08	0:06	0:07	0:06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고등학생			대학 이상			
개인유지	9:05	9:10	11:22	9:42	10:29	11:07
일	0:18	0:16	0:15	1:31	1:14	0:49
학습	10:08	7:42	3:36	5:20	2:49	1:47
가정관리	0:08	0:13	0:28	0:25	0:42	0:45
가족보살피기	0:01	0:01	0:03	0:04	0:06	0:06
참여 및 봉사활동	0:00	0:01	0:01	0:02	0:02	0:04
교제 및 여가활동	2:38	4:31	6:55	4:16	6:23	7:31
이동	1:38	2:00	1:13	2:35	2:09	1:46
기타	0:04	0:06	0:07	0:05	0:06	0:05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9.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6:17(88.7)	5:31(87.1)	3:17(82.4)	5:33(87.6)
무급가족종사일	0:20(4.7)	0:21(5.5)	0:15(6.3)	0:19(5.0)
농림어업의무급가족종사일	0:24(5.6)	0:23(6.1)	0:22(9.2)	0:23(6.1)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2(0.5)	0:03(0.8)	0:04(1.7)	0:03(0.8)
구직활동	0:00(0.0)	0:00(0.0)	0:00(0.0)	0:00(0.0)
일관련물품구입	0:02(0.5)	0:02(0.5)	0:01(0.4)	0:02(0.5)
기타일관련행동	0:00(0.0)	0:00(0.0)	0:00(0.0)	0:00(0.0)
계	7:05(100.0)	6:20(100.0)	3:59(100.0)	6:20(100.0)
비경제활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0:04(36.4)	0:03(30.0)	0:02(20.0)	0:03(30.0)
무급가족종사일	0:00(0.0)	0:00(0.0)	0:00(0.0)	0:00(0.0)
농림어업의무급가족종사일	0:01(9.2)	0:01(10.0)	0:01(10.0)	0:01(10.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4(36.4)	0:05(50.0)	0:06(60.0)	0:05(50.0)
구직활동	0:02(18.2)	0:01(10.0)	0:01(10.0)	0:01(10.0)
일관련물품구입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일관련행동	0:00(0.0)	0:00(0.0)	0:00(0.0)	0:00(0.0)
계	0:11(100.0)	0:10(100.0)	0:10(100.0)	0:10(100.0)

10. 경제활동여부별 한국인의 학습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학습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경제활동				
학생의 정규수업	0:06(85.7)	0:04(80.0)	0:01(33.3)	0:04(80.0)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0:01(14.3)	0:01(20.0)	0:02(66.7)	0:01(20.0)
학습관련 물품구입	0:00(0.0)	0:00(0.0)	0:00(0.0)	0:00(0.0)
계	0:07(100.0)	0:05(100.0)	0:03(100.0)	0:05(100.0)
비경제활동				
학생의 정규수업	2:51(76.7)	1:40(71.4)	0:08(13.1)	2:06(72.0)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0:51(22.9)	0:40(28.6)	0:53(86.9)	0:49(28.0)
학습관련 물품구입	0:01(0.4)	0:00(0.0)	0:00(0.0)	0:00(0.0)
계	3:43(100.0)	2:20(100.0)	1:01(100.0)	2:55(100.0)